

THE COMET

# 三 則 三

空軍本部政訓監室發行  
(禮紀四二八七年四月九日)  
(第三種郵便物取扱認可)



1960 長

第46號



‘고아(孤兒)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딘E 헤스  
미공군대령(美空軍大領)이 12월 19일 K-16에 도착하여  
기념촬영

명작 조각(名作彫刻)



근해어부(近海漁夫)

콘스탄틴·뮤니엘  
(1831~1905)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녹색모자(綠色帽子)를 쓴 女人

앙리 마티스 작(作)



## 코메트 제46호 목차(目次)

	〈목차(目次)·비(扉) 컷〉 . . . . . 이희세(李喜世)
★녹색모자(綠色帽子)를 쓴 여인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 . . . . 앙리 마티스작	
화보(畫報)	◇ F-86 전천후요격기인수식(全天候邀擊機引受式)
	◇ 이런 일 저런 일
	◇ 하늘을 수놓은 에어쇼
〈권두언(卷頭言) 조화(調和)에의 노력(努力)〉 . . . . . 주정호(朱貞鎬) 2	
신년사(新年辭) 참모총장(參謀總長) . . . . . 김신(金信) 4	
나라를 지키는 군인정신(軍人精神) . . . . . 류달영(柳達永) 6	
희망과 실망(失望)의 교차로(交叉路)에 서서 . . . . . 민석홍(閔錫泓) 10	
-제2공화국(第二共和國) 역사(歷史)의 첫페이지를 기록(記錄)한다-	
1960년(一九六〇年)의 세계적(世界的) 사건(事件) . . . . . 김광섭(金光涉) 17	
아프리카 신생제국(新生諸國)의 갈 길 . . . . . 엄기형(嚴基衡) 23	
-공고공화국(共和國) 사태(事態)를 중심(中心)하여	
U-2기(機)의 산 교훈(敎訓) . . . . . 외지(外誌)에서 28	
관리(管理)된 평화(平和)를 이룩하는 길 . . . . . J·H 스토로우벨 37	
미소우주경쟁(美蘇宇宙競爭)의 의의(意義) . . . . . 조지·V·알렌 39	
소련(蘇聯)의 새로운 공세(攻勢) . . . . . 김창순(金昌順) 33	
「후」의 평화적공존론(平和的共存論)과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의 본질(本質) . 유완식(兪完植) 22	
소련의 위협정책(威脅政策)과 자유진영(自由陣營)의 과제 . . . . . 외지(外誌)에서 23	
시(詩)	천마(天馬) . . . . . 김종문(金宗文) 56
	언제나 아침의 나라에서 . . . . . 정공채(鄭孔采) 58
	통한(痛恨) . . . . . 채규철(蔡奎哲) 62
	송구영신(送舊迎新) . . . . . 주명영(朱命永) 64
소련의 제3차대전전략(第三車大戰彈硯) . . . . . 외지(外誌)에서 43	
미 군사력의 전망(展望) . . . . . 박병희(朴秉熙) 역(譯) 66	
북미방공사령부(北美防空司令部)의 활동 . . . . . 조기성(曹基成) 역(譯) 106	

### 위문편지

R과일럿 오펜에게 . . . . . 박해왕(朴海王) 76
혜성(彗星)의 용사(勇士)들께 . . . . . 송영치(宋英治) 77
멋을 아는 공군장병(空軍將兵)들에게 . . . . . 한혜인 79

그리운 여인상(女人像) <화(畫)·문(文)> . . . . . 이순재(李舜在) 98
들관 <화(畫)·문(文)> . . . . . 백영수(白榮洙) 100

국가와 민족의식(民族意識)의 발단(發端) . . . . . 김계숙(金桂淑) 82	
인권선언(人權宣言)과 자유권(自由權) . . . . . 신상초(申相楚) 88	
프로파간다의 본질과 방법 . . . . . 김철(金哲) 92	
—집단심리(集團心理)의 정치적 효과에 관하여	
우리 시가상(詩歌上)에 나타난 제야(除夜)의 종 . . . . . 이태극(李泰極) 102	

### 수상수필

공항(空港)에서 느낀 공한(空恨) . . . . . 정병욱(鄭炳昱) 132
제야(除夜)의 시(詩) . . . . . 임인수(林仁洙) 133
크리스마스 . . . . . 김요섭(金耀燮) 135
목석한(木石漢) . . . . . 박찬흥(朴贊興) 137

한국한명시역초이제(韓國漢名詩譯抄二題) . . . . . 박두진(朴斗鎭) 80
장갑 . . . . . F 월러 정찬조 역 137

나는 직공(職工)이었다 . . . . . 외지(外誌)에서 149	
—클라이슬러가 자동차왕(自動車王)이 되기까지	

경지(庚子)·신축(辛丑) . . . . . 김경언(金庚彦) 142
만화오선(漫畫五選) . . . . . 이재화(李在華) 144
바둑이 <연재(連載)> . . . . . 고대지 148
상송의 유래와 노래한 사람들 . . . . . 이호료(李胡露) 160

창작(創作)상(像) . . . . . 오상원(吳尙源) 172
-----------------------------------

숙명(宿命)의 삶 . . . . . 임수일(林秀逸) 180
----------------------------------

## 녹색모자를 쓴 여인

앙리 마티스 작(作)

마티스는 파리의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나 화가를 희망하여 동교(同校)를 퇴학하고 1893년 파리 미술학교에 입학, 마루게, 루오, 도랑과 함께 구수타브 모로에 사사(師事)했다. 도랑, 마루게와 함께 마네, 세잔느, 고갱을 논하고 새로운 화법의 발견에 노력함과 동시에 신인상파에 흥미를 가져 순수색의 점묘법(點描法)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도랑과 함께 종래의 전통주의적 작품에서 일전(一轉)하여 극도의 단순화된 형태와 선명한 색채로써 묘사하였다.

그의 생애의 방향인 선과 색채의 단순화, 특히 색채를 아라베스크 풍으로 조합하여 색의 심포니를 이루는 그 독자의 화풍이 완성된 것은 삶의 환희, (1905-1906) 댄스(1910) 등 장식적 대화면을 그리기 시작한 후였다.

그 생애를 이 방향의 탐구에 바친 그는 타인의 영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피카소와도 더 친교를 맺어 그 작풍(作風)에서 배울 것을 배웠다. 녹색모자를 쓴 여인은 1905년 작품이다.



지중해지방(地中海地方)의 여인(女人)  
(1861~1944)

아리스티드 마이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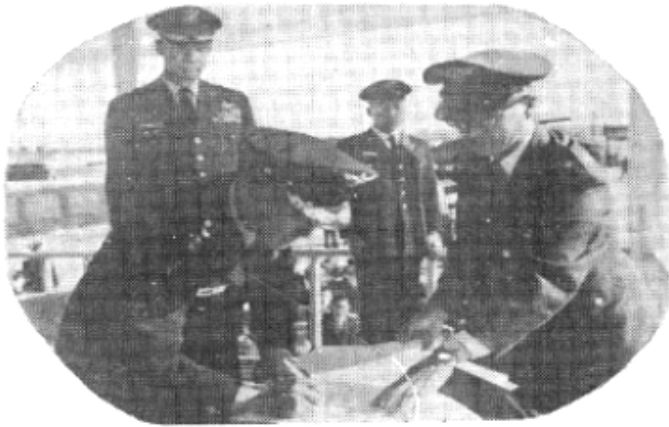
# F-86D 요격기인수식

11월14일K-13에서성거(盛舉)

정렬한 F-86D 전천후요격기  
(全天候激撃機)



인수식에서 조인(調印)하는 김신  
참모총장(參謀總長)



동인수식 전경(全景)



# 이런 일, 저런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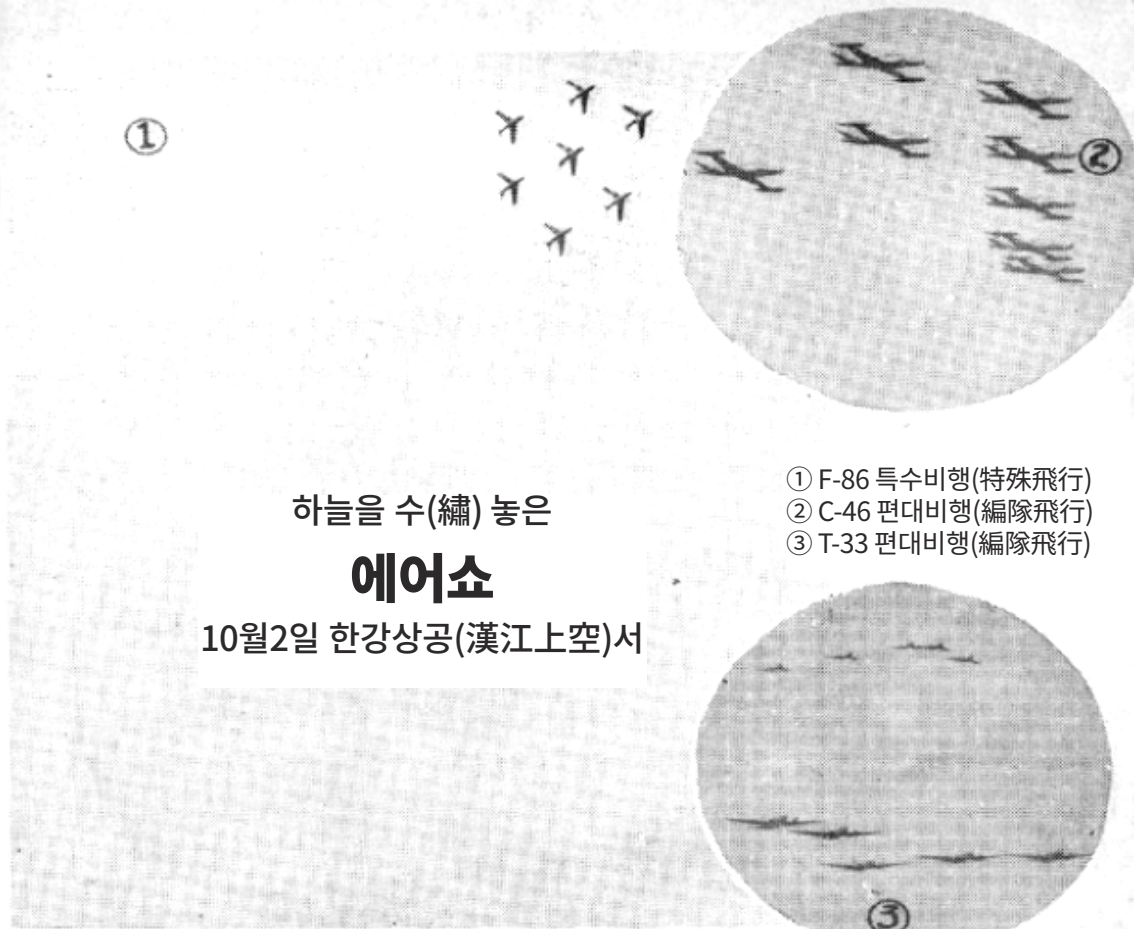
## 〈사진설명〉

- ① 장면(張勉) 국무총리(國務總理)는 초도순시차(初度巡視次)공(寫眞說明)군본부(空軍本部)와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를 내방(來訪)하였다.(11.15)
- ② 권중돈(權仲敦) 국방장관(國防長官) 초도순시차(初度巡視次)공군(空軍)에 내방(來訪)하였다.(9.26)
- ③ 자유중국(自由中國)의 국방부장관 일행(一行)이 본부(本部)를 예방(禮訪)하였다.(9.30)
- ④ 9월28일 내한(來韓)한 차릭 미공군차관이 K-14기지(基地)에서 김(金)참모총장(參謀總長)(左)과 환담(歡談)하고 있다.
- ⑤ 화이트 미공군참모총장(美空軍參謀總長)의 초청(招請)으로 도미(渡美)하였던 김 참모총장(원내(圓內))이 귀국하여 의장대의 사열(查閱)을 받고 있다.(12.11)
- ⑥ 자유중국(自由中國) 국방대학생(國防大學生) 일행을 인솔(引率)하고 본부를 예방한 황(黃)대장(우(右))이 김 참모총장으로부터 기념품(紀念品)을 받으며 미소(微笑)짓고 있다.(10.17)
- ⑦ 각단대(各團隊)에서 선발(選拔)된 공군모범용사(空軍模範勇士) 10명은 본부를 예방(禮訪)하고 기념촬영(記念攝影)하였다.(9.30)

코 메 트  
THE CO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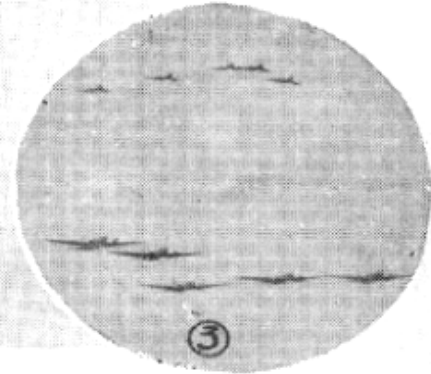


第 46 號



하늘을 수(繡) 놓은  
**에어쇼**  
10월2일 한강상공(漢江上空)서

- ① F-86 특수비행(特殊飛行)
- ② C-46 편대비행(編隊飛行)
- ③ T-33 편대비행(編隊飛行)



④ 동(同)식(式)전(典)에 참(參)석(席)한  
우(右)윤(尹)대(大)통(統)령(領) 부(夫)처(妻)  
좌(左)장(張)총(總)리(理) 부(夫)처(妻)



## 조화(調和)에의 노력

정훈감(政訓監) 주정호(朱貞鎬)

봄이란 자연의 법칙에 의한 필연적인 순환의 계절이긴 하지만 조화 속에서 생기(生氣)를 풍겨 주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의 상징으로서 반갑게 맞아지는 게 아닌가 싶다.

조화란 역시 변화 있는 조화가 좋고 변화도 조화된 변화가 좋을상 싶다.

계절의 변화도 봄과 같은 조화된 변화가 없었던들 아마 인류나 모든 생물의 발달이 오늘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변화도 조화의 범주 속에서만이 진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지난해에 많은 변화를 보았다. 멀리는 토이기(土耳其)[터키], 라오스, 콩고 등의 질서(秩序)의 절규(絶叫)요 바로 우리에게도 젊은 세대가 선봉(先鋒)서 독재와 기만(欺瞞)과 시의(淸疑)를 타도(打倒)한 4·19 혁명의 조화에의 변화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조화를 갈구하는 인간의 꾸준한 노력의 표현이라 하겠다.

조화는 모든 외부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만이 방향을 올바르게 견지(堅持)할 수 있을 것이고 성숙의 도(度)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화에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외부의 장애를 제거하여야만 하는 군의 사명이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다행히도 우리 공군은 같은 조화에의 노력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장애 제거에도 많은 역량을 길러 왔다.

F-86D의 도입이라든가 켓트 창정비(廠整備)를 비롯해서 부문별 발전도는 이 요청에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4·19 후 첫 번 맞이하는 새해와 더불어 앞날의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의 조화는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지만 인간사회의 조화란 어디까지나 인위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자의적이어야 하는 까닭에 앞으로의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만이 이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고 각 개인의 행복과 발전도 이에 정비례 될 것으로 믿는다.



## 신년사(新年辭)

공군참모총장 공군 중장 김신(金 信)



희망에 가득 찬 신축(辛丑) 원단(元旦)을 맞이함에 있어 본관(本官)은 장병 여러분의 거년(去年)의 노고(勞苦)를 치하(致賀)하며 또한 신년(新年)에 소원성취(所願成就)하고 만복(萬福)을 누리기를 충심(衷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지나간 경자년(庚子年)은 국제적(國際的)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서도 사월혁명을 통(通)하여 독재정권을 타도(打倒)하고 제2공화국 수립(樹立)한 기록(記錄)의 해였습니다.

기간(其間) 우리 공군장병(空軍將兵) 일동(一同)은 군(軍) 본연(本然)의 사명(使命)을 깊이 자각(自覺)하고 추호(秋毫)의 동요(動搖)없이 근무(勤務)에 성실(誠實)하여 전천후요격기(全天候邀擊機)의 도입(導入)을 위시(爲始)한 각종(各種) 전력(戰力) 증강(增強)을 완수(完遂)하였음은 오로지 장병 각자(各自)의 애국(愛國) 애족(愛族)하는 정신(精神)의 결과(結果)라고 확신(確信)하는 바이며 국가장래(國家將來)를 위(爲)하여 동경(同慶)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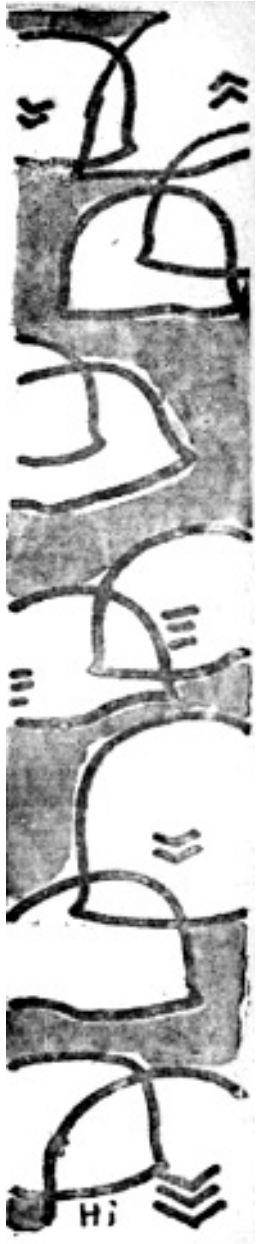
자고(自古)로 일년지계(一年之計)는 원단(元旦)에 있다고 합니다. 본관(本官)이 여러분에게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출발(出發)하는 단기4294년(檀紀四二九四年)에 대(對)한 우리의 의욕(意慾)과 결의(決意)를 공고(鞏固)히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민주혁명(民主革命)의 완결(完結)과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發展)은 아직도 우리의 숙제(宿題)로 남아 있으며 남북통일(南北統一)의 민주적(民主的) 숙원(宿願)은 아직도 그 해결(解決)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군이 신년도(新年度)에 도달(到達)하여야 할 전력증강목표(戰力增強目標)는 우리의 비상(非常)한 성의(誠意)와 노력을 요구(要求)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當面)한 과업(課業)은 과거(過去)의 어느 때 보다도 무거우며 우리가 신축년(辛丑年)에 노력하는 결과(結果)는 우리의 장래(將來)의 발전(發展)을 좌우(左右)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무력전(武力戰)에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무장면(精神武裝面)에서도 적(敵)을 압도(壓倒)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르기 위(爲)하여 우리는 과거(過去)의 부패(腐敗)와 부정(不正)을 시정(是正)하는데 가장 용감(勇敢)하여야 하며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새해도 한결같이 나라와 겨레를 위(爲)하는 일념(一念) 밑에 더 한층(層) 열(熱)과 정(情)을 기울여 각자(各者)가 중책(重責)을 완수(完遂)할 것을 당부하며 전장병(全將兵)의 건투(健鬪)를 비는 바입니다.

신축(辛丑) 원단(元旦)



## 나라를 지키는 군인정신(軍人精神)

류달영(柳達永)

애국심(愛國心)은 결코 군인의 독점물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민인 이상 누구나 다 제나라를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에게 우리는 사람다움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군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군인에게 있어서 애국심은 알파이며, 오메가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애국심을 소유하지 않은 군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을 것이다. 국민은 수다한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는 무기를 군인들에게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군인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신뢰하고 이 무서운 무기를 그들의 손에 내맡긴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의 애국심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 할 것이다.

일단 조국이 위험한 경우에 처했을 때에 군인은 자기의 생명을 일순의 주저도 없이 자기 생명을 내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군인은 항상 마음과 몸을 맹렬히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무기 사용에 능란한 기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의 안전이 조국의

안전보다 먼저 걱정이 된다면 그것은 참군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군인인 이상 변함없는 철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인은 조국을 지키는 전쟁터에서 조국의 흠을 내 충성스러운 피로 물들이는 것을 최대의 쾌사로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나는 모든 군인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지극히 평범한 문제를 들어내 생각을 펴보고자 한다. 군인의 임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조국을 수호(守護)하는 일인 것이다. 조국을 수호한다는 말은 적군이 내 국토 안에 한 발자욱도 들어서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호하는 뜻인 것이다. 이 이념에 서서 생각한다면 길가에 넘어진 어린이를 일으켜 주는 것이나, 비좁은 버스 안에서 노인과 아기 업은 여인에게 자리를 마련하여 편히 있게 하는 일들은 군과 마주 대해서 총을 쏘는 일과 추호도 다름이 없다고 나는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군인의 싸움터는 결코 포화(砲火)를 서로 뿜는 일선 고지(高地)만이 아닌 것이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수다한 군인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대부분은 적군과 싸우는 전쟁터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군인들의 이야기가 전쟁 없는 때에도 응당 수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인답지 않게 사치하고자 하는 장교나, 예절 없는 난폭한 병사를 우리는 심히 의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감은 그대로 군인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 검소하고 질박함과 민첩하고 절제있음과 씩씩하고도 예절 바름과 또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디는 굳센 의지력과 인내력은 가장 올바르게 군인의 정의감과 애국심의 뿌리를 길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의 처한 장소가 그 어디를 막론하고 국가를 허물어지게 하는 부도덕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정의감이 젊은 혈관에 창일해야 할 것이다.

몇 해 전의 일이다. 한 미국 병사가 폭우로 인해서 미친 듯이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한국의 한 소년을 건지기 위해서 헤엄쳐 들어가 필사의 노력을 하다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다. 나는 눈물로 신문을 적시었다. 국경을 초월한 그의 아름다운 인류애만이 아니라 그 군인다움에 깊이 감동된 것이다. 나는 일선고지에서 피를 뿌린 미군병사 보다는 오히려 이 소년을 구하다가 죽은 병사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싶다. 나는 최고의 훈장을 그의 가슴에 깊은 존경으로 달아드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별써 십 년도 넘는 일이다. xx대학교(大學校)의 K 총장의 자제가 수원(水原)으로 놀러 왔다가 서호(西湖)에서 익사한 일이 있었다. 나도 급보를 듣고 뛰어가 보았는데 그때에 산책 왔던 한 미국 병사가 찬 물 속에 들어가 풀을 헤치고 장시간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날씨가 차서 사람들이 물가에서 떨고 있는데 그 병사가 추위를 무릅쓰고 수초(水草)로 인해서 자기 몸에 상처가 여러 곳에 나는 것도 구애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던 것을 지금도 서호가를 산책할 때마다 상기하면서 그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미국 군인의 눈부신 전투의 역사는 병사들의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기사도적인 정의감이 밀받침되어있다는 것을 지나쳐 볼 수가 없다고 믿는다.

기차에 휩쓸려 들어가는 노파를 구해내고 자기의 두 다리가 기차 바퀴에 절단되었다는 우리나라 군인의 이야기도 아직까지 수다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이다. 무인(武人)의 정신, 기사(騎士)의 도는 전선(戰線)에서는 물론 후방에서도 또 자기 홀로 있는 방 속에서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음속에 당당함이 없이 군인다운 생활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작년 여름에 충무공(忠武公)이 국운을 걸고 왜적과 싸우던 울두목(鳴梁)을 찾아가 본 일이 있었다. 불과 열세 척의 소수의 배에 오합(烏合)의 무리 같은 병졸을 거느리고 삼백(三百)여 척의 완비된 왜군 함대와 싸워 통쾌하게 이겨서 바람 앞에 등불같은 조국을 구원해낸 고장이다. 인류 전사상(戰史上)에 이 보다 더 장쾌하고 더 감격적인 전쟁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충무공은 우리 한민족의 마음의 거울이어야 한다. 그 당당한 장부다움과 그 넓고 공정한 처사와 부하를 살처럼 아끼는 마음씨와 그 탁월한 지략과 가을물처럼 맑은 정신이 인류가 낳은 군인 중(中)에 제일인자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함대를 이끌고 적군을 호령하는 충무공만이 아니라 평소의 충무공을 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용기의 근원을 쉽사리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뜨거운 부모에 대한 깊은 효심이라든지, 자제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라든지, 여색과 재물에 대한 담백한 마음씨라든지 또 가난한 민중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생각 등등 참으로 파고들수록 높고 넓고 깊은 인간성을 그에게서 느끼는 것이다.

장단군에 덕물산 위에 최영(崔瑩) 장군의 신위를 모신 곳이 있다. 어느 사가(史家)는 최영 장군이 정적(政敵) 이성주(李成柱)에 의해서 참수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송도시외(松都市外)의 길가에서 백발의 최영의 머리가 떨어질 때 그대들은 벽력성(聾)과 함께 조선 역사의 수천 년 대탑(大塔)이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나? 그런데 그 죽은 것은 최영이 아니오 조선혼(魂)이었다. 그러나 아니다, 저는 죽은 것이 아니다. 떨어진 그의 머리가 자약(自若)한 안색을 오히려 가지고 후후 느껴 옷자락을 휘어짜는 더벅머리의 배달의 아들, 배달의 딸들을 바라볼 때에, 목 떨어진 그 노구(老耄)를 차마 못 떠나서 잠깐이라도 더 버티어보던 그 혼은 그 어린 가슴

속에 그 뜨거운 혈관 속에 왜 아니 들어 갔을까? 불사조(不死鳥)가 스스로 태운 자기 시체의 유회(遺灰) 속에서 갱생하여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역사의 무너진 탑은 흩어진 석재(石材)를 다시 다스려 새로이 일어서는 때가 있고야 말 것이다.』

원(元)나라가 무너져 가는 기회에 북벌을 계획하여 고구려의 옛 국토를 회복하고 나아가 중원(中原)에 뜻을 펴보려던 그 용지(雄志)는 야심가인 이성계의 배반에 의해서 일조(一朝)에 무너진 것은 천추에 걸친 이 민족의 한사(恨事)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용지가 일개 야심가에 의해서 전복되고 이씨(李氏) 오백년의 고생 많은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뼈에 사무치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영장군은 대소백전(大小百戰)에 한 번도 패해 본 일이 없는 명장(名將)이었다. 그런데 그 지략 그 용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없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근원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황금(黃金)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고 부탁한 아버지 최원직(崔元直)의 임종의 말씀이 그의 일생의 신조가 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돈에 의해서 큰 집과 화려한 가구와 또 군인답지 않은 향락을 쉴 사이 없이 찾는 장교가 있다면 이 다사한 역사에 있어서 크나큰 죄인임을 영원히 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 보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때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단계가 있었는가? 한국의 오늘의 군인은 우리 배달민족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로 세계의 운명의 핸들을 잡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비 오듯 하는 탄환 속에서 적군과 싸우는 것으로 군인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를 맡은 군인으로서 싸움터 아닌 곳은 없을 것이다.

새 나라의 군인은 국민으로부터 털끝만한 지탄이라도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실로 무인도(武人道)에 있어 끊임없는 피나는 인간수련(人間修練)이 필요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군인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절대 신뢰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로마는 망했어도 로마의 군인정신은 영원히 살아 인류의 유산이 되어 오늘도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란 명사(名詞)가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에 있어서도 군인정신만은 살아 있어야 한다. 군인정신은 정의에 입각한 자기희생의 정신인 것이다.

<필자(筆者)·서울농대교수>

## 희망과 실망(失望)의 교차로(交叉路)에 서서

-제이공화국(第二共和國) 역사(歷史)의 첫 페이지를 기록(記錄)한다-

민석홍(閔錫泓)

1



4월혁명은 사람들의 가슴에 벅찬 감격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적어도 이승만정권(李承晩政權)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그것에 기식(寄食)하고 있던 일부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환영하고 거기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 이제 압제(壓制)가 없어지고, 부정과 부패가 제거되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보다 나은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

을 희망하였고 또한 그것을 믿었다. 어지간한 힘으로는 까딱도 하지 않을 듯이 보이든 적어도 이박사(李博士)가 생존하는 한에 있어서는 요지부동(搖地不動)으로 보이던 독재정권이 짧은 시일 내에 비교적 간단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일종의 허탈감과 기존질서가 무너지는 경우에 언제나 뒤따라 오는 약간의 불안감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가슴이 희망에 가득 찼던 것만이 사실이다. ‘꿈만 같다, 새 세상을 만난 것 같다’는 것이 도부(都鄙)나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민의 공통된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러한 희망과 기대 속에 회의와 실망이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정치나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독재적 요소나 부정과 부패의 제거 내지 그 책임자의

처단은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그러한 구질서의 악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게 되었다. 혁명입법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식자들 간에 논의되어 왔고 현행법으로는 엄벌을 줄 수 없다는 법원측의 시사까지도 있었다. 과도정부나 자유당이 아직도 다수를 차지하고 따라서 혁명입법이 마련되면 걸려들 사람이 많은 잔존 4대 국회가 그러한 입법을 하지 못한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신생공화국의 새 국회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태도를 취함에 이르러서는 국민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이른바 혁명재판의 첫 판결은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정부와 법원이 책임 전가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에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대의 일부가 국회 내에 돌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후에야 비로소 혁명입법의 기초가 착수되었다.

해방후의 모든 정치가가 다 애국자를 자처하듯이 4·19 이후의 정치가는 입을 열면 4월혁명정신의 계승과 혁명과업의 완수를 맹서하였다. 신생공화국의 첫 국회도 그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국민은 진지하게 신국회가 혁명국회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것은 피를 더 보자든지 잔인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루 빨리 과당성있게 과거의 악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압도적 다수로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집안싸움이고, 이른바 원흉들의 석방이었던 것이다.

이제 민주당 내의 신구파의 싸움은 구파의 신당조직으로 어느 정도 결말을 본 셈이고 혁명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그것대로 일단락 지은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사람들의 가슴에 깃들기 시작한 실망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회의까지도 끼어있는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문제는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과 불안이 어디서 온 것이며 그러한 실망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무기력과 무위에 빠져버릴 것인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2

현재 일반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실망이 사실이라면 그것의 원인의 일부는 사람들이 4월혁명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진 데 있지 않을까? 4월혁명의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나 낙관적인 희망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당장에 압제와 부정과 부패가 일소(一掃)되고 자유롭게 안정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낙관한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사람들은 4월혁명을 이정권하(李政權下)에서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 주는 동시에 민주주의라든지 경제적 번영 즉, 참된 의미의 자유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성취시켜주는 계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마치 해방 직후에 사람들이 해방감에 도취하여 만사가 다 된 것같이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이러한 관찰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4월혁명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착각이다. 이 말은 4월혁명의 성공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하다. 다만 4월혁명을 모든 것이 성취되는 계기 내지 그것의 보증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뜻이다. 왜냐, 4월혁명은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4월혁명으로 민주주의나 자유가 달성된 것은 아니다. 또 당장에 번영을 초래할 경제적 발전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러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독재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참된 의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여유 있는 안정된 생활을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건설이고 건전한 경제의 발전이고, 다 4월혁명이 우리에게 제시한 앞날의 과제이요, 이제부터의 우리 국민전체의 역량과 노력여하에 따라 달성여부가 좌우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중앙집중적이고 관료적인 전제정치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정치에 시달린 우리 사회에는 낯선 것이었다. 그것은 서양에서 오랜 역사와 투쟁을 거쳐 성취된 통치형태요 생활양식이며 그 밑바닥에는 중산계급의 건전한 성장을 수반한 합리적인 근대적 경제체제의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해방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우리나라에 이식되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도 과거 신라시대에 화백(和百)이라는 것이 있어 민주적인 전통이 존재한 것처럼 이야기하나, 그것은 부족사회의 풍습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근대 민주주의와는 물론 고대 희랍(希臘)의 민주정치와도 동일하게 논할 바가 못 된다.

따라서 전연 이질적인 토양 속에서 단시일내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분단과 6.25사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반영구적인 전시상태란 특수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이리하여 독선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이박사로 하여금 민주주의가 싹트기도 전에 그것을 꺾어버리고 독재정치를 실시하는데 매우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4월혁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이와 같이 남으로부터 주어진 이질적인 자유를, 그러기 때문에 이정권에 의하여

용이하게 꺾어버린 자유를, 피의 대가로서 자기의 것으로 다시 찾았다는데 있다.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는 비로소 남에게서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전취(戰取)한 것으로 한국민 속에 뿌리를 박기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4월혁명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자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환언(換言)하면 4월혁명으로 자유나 민주주의가 달성된 것이 아니라 4월혁명은 독재를 타도함으로써 오직 민주주의를 건설할 바탕을 마련하였을 뿐이다. 즉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건설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리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정권이 자유의 성장의 길을 막아 버리는데 유리하였던 객관적 조건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다만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정치적 장벽이 없어졌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주주의의 확립은 경제적 발전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서양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근대적 경제체제의 발전과 건전한 중산계급의 성장이 자유주의 내지 민주주의발전의 관건이었다. 서양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러한 순조로운 중산계급의 성장과 발전이 있었던 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라났으나 독일이나 이태리와 같이 중산계급의 성장이 순조롭지 못하고 또한 지연된 나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또한 그 발전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제1차대전 후의 혼란 속에서 독재정치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4월혁명 후 우리나라는 책임내각제를 채택하였는데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발전이 요소(要素)되며, 서로 정치적 신조와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대립, 견제, 경쟁, 타협을 통하여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데 정당정치의 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중산계급을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의 사회계급의 분화와 안정된 발전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려면 국민전체의 부가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너무나 큰 차위(差違)·농촌 인구의 매우 얇은 정치의식 등을 시정 내지 향상시키는 길은 그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밖에 없다. 경제적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이와 같이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신생공화국이 빈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전도(前途)는 암담(暗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실천은 여하튼 간에 경제문제의 해결을 급선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매우 타당한 태도이다.

그러면 4월혁명은 이러한 경제발전에 무엇을 기여하였는가. 독재정권에 기식(寄食)하던 소수의 특권적인 부정제벌을

제거하고 보다 더 넓게 국민적인 토대 위에 합리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치면에 있어서와 꼭 같이 경제면에서도 4월혁명은 부의 보다 더 광범하고 균등한 배분과 합리적인 경제성장의 길을 마련한 것이지 그것이 곧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생활의 여유를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여유 있는 생활의 건설은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4월혁명으로써 해결된 문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

### 3

그러나 4월혁명 이후의 사태의 진전, 특히 정식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의 사태는 우리가 4월혁명으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대나 희망을 꺾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신국회나 신정부는 왜 혁명으로서 수립된 정부나 국회답게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고 앞날의 건설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현재의 국회나 정부가 4월혁명의 소산이라는 의미에서나 혁명자를 부칠 수가 있지 원래는 혁명자를 부칠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4월혁명의 주체자가 학생층이었고, 기성정치거나 정당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정권을 대신하여 혁명후의 사태를 혁명적으로 처리하고 과감하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혁명적인 사회집단이나 정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4월 19일 학생시위대가 의사당주변에 집결하여 부정선거를 규탄하였을 때 그들 사이에 고조되어 가는 혁명적 정열을 이끌어 갈 정치거나 정당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경무대(景武臺)로 향하여 무장경찰의 총탄에 쓰러지고 있을 때, 이 젊은이들의 혁명대열 속에 뛰어드는 지도자도 한 사람 없었다. 4월 19일 이후에 있어서도 사태는 동일하였다. 장면 부통령(張勉 副統領)은 부통령직을 사퇴하였고, 민주당은 이정권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혁명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이정권에 최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4월 25일 오후에 감행된 교수단 데모와 이에 뒤따른 학생 및 시민의 시위였다. 4월 혁명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힘이 된 다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와 계엄군이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사상계와 세계 6월호에 논한 바 있기 때문에 더 논하지 않겠다.)

이리하여 4월혁명은 젊은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였다고 찬양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현실정치는 좀 더 복잡하다. 혁명직후에 대두된 문제는 이정권 대신 누가 정권을 담당하느냐였다. 그것은 으레히

혁명의 주체자가 담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4월혁명의 주체자는 학생층이였다. 이리하여 4월혁명의 사후처리는 기묘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하야직전에 이박사가 국무총리로 임명한 허정씨가 과도정부를 조직하게 되고 유일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정국안정이라는 구실하에 독재정권의 정당이었던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계속하면서 책임내각체제현에 착수하였다. 혁명으로 탄생케 된 신생공화국의 성립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민주당은 설혹 허수아비로 화했다 하더라도, 독재와 부정과 부패의 뒷 받침이요, 온상이었던 자유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7·29 총선거 때 독재와 싸운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 슬로건에 거는 것은 없었다. 이정권과 자유당 치하에 있어 유일한 야당으로서 많은 서러움과 박해를 받아오고 저항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싸웠을 뿐이다. 결코 혁명적 정당이나 혁명의 주체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현국회나 민주당 신파가 조직한 정부에 혁명적 에너지를 기대한 것이 지나친 기대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화국 탄생 이래 국회나 정부가 혁명국회나 혁명정부로서는 너무나 과단성이 없고,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없고 무력한 감을 준 근본 원인은 이러한 데에도 있는 것 같다.

### 4

확실히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실망의 일부는 4월혁명이나 현 국회 내지 정부의 성격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그로 인한 과분의 기대와 희망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실망하기에는 아직 빠르다. 더구나 원인이 나변(奈邊)에 있던 간에 실망으로 인하여 무위와 무관심에 빠지거나 미래를 포기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단시일내에 모든 문제를 깨끗이 처리해 버리려는 조급한 태도도 금물이다.

4월혁명은 부패와 부정에 가득 찼던 독재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참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근대적 경제체제의 발전을 통하여 국민적 부의 증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제 이 과업을 성취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지도자나 소수의 지배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책무이다.

고대회랍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이상 국민의 여론을 배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직접 문제 해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를 편달(鞭撻)하고 비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 1960년의 세계적 사건

김광섭(金光涉)



파리의 동서수뇌회담이 후르시초프의 망발(妄發)로 말미암아 파괴됨을 계기로 해서 완화의 기운을 보여 줄 것 같았던 냉전의 양상은 1960년의 국제정세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동서 10개국의 군축위원회회담(軍縮委員會會談) 동서 10개국의 핵실험 금지협정을 위한 회담 등의 국제회담은 모두 정돈상태에 빠져버렸고 베를린의 위기는 여전히 지속될 뿐 아니라 오히려 소련 측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악화되었다. 1955년 소련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원조경쟁을 전개하면서부터 라틴 아메리카에 뻗었던 그의 마수(魔手)에 카스트로라는 쿠바의 괴물이 걸려들어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를 미묘하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에는 군부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삼파전의 내란이 일어남으로써 전략상 요충인 라오스의 귀추가 아직 예측을 불허할 정세 아래 해를 넘기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있는 한국에서 일어난 4월학생혁명은 자유우방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던 독재자 이승만박사를 축출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고 곧 뒤이어서 터키에서도 멘데레스 독재 수상을 추방하는데 성공하는 등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널리 보여 주었다. 이제 1960년 한 해 동안 세계각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의 책임이요, 의무이다. 이정권하에서는 국민의 이러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가 무시되고 억압되었으나, 4월혁명은 그것을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국민된 사람의 의무로서 요청하였다. 이제 4월혁명이 제시하고 길을 열어준 과업달성에 만일의 경우 다시 실패한다면 어느 한 특정한 정부나 집권당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책임이요, 국민전체의 역량의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4월혁명은 국민을 이정권이나 자유당의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끊임 없는 편달과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제때대로 정치를 하는 전제군주나 독재자의 정부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하기가 힘든 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통찰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에 전역량을 경주(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4월혁명으로 싹튼 국민의 희망이나 젊은 세대의 혁명적 열정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합리적이고 실천성 있는 뚜렷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고 당분간 곤란을 면할 수는 없으나, 꾸준히 참고 노력만 한다면 서서히나마 또 조금씩이나마 현재보다 생활이 향상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인다면 국민은 자발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요, 어떠한 내핍생활(耐乏生活)에도 견디어 낼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실천하고 구체적인 희망의 증거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협력을 안 하거나 향락과 사치와 태타(怠惰)에 흐른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암흑이다. 우리 앞에는 4월혁명이 제시한 원대한 과업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의 달성을 위하여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가 산적해 있다. 아직도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씩이라도 풀릴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빠르다. 희망을 가지고 분발할 때다. '혁명은 무슨 혁명이야, 애석하게 젊은 피만 헛되이 흘렸지' 라는 소리가 영구히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지혜와 경험과 정열을 다 하여 신국면을 개척할 때다.

<필자(筆者)·연세대학교수(延世大教授)>



#### ◇한국의 4월혁명

1957년 소련이 대륙간탄도탄을 제조 핵탄두를 달고 발사하는데 성공한 이래 인공위성을 두 개씩이나 연거푸 발사해서 궤도에 올려 놓는데 성공한 소련이 냉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서간의 광범위한 수뇌회의를 개최하고자 제의한 후 1960년에 파리에서 4대국에 국한된 동서수뇌회의를 개최하기로 관계국 간에 합의를 봄으로써 1960년이라는 해는 평화의 서광 속에서 맞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교라고 신격화되어 오던 독재자 이승만박사는 그의 대통령 4선을 위해서 전 국민의 기본 권리까지 박탈유린(剝奪蹂躪)함으로써 젊은 학도들의 분노를 샀고 또 그들의 집단결기로 말미암아 12년 동안이나마 고수해 온 대통령직에서 추방되었다. 어떠한 정치집단이나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라 맨주먹밖에 갖지 않은 젊은 학도들의 집단적 반대시위에 완고하기로 세계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직에서 축출됨으로써 한국청년학도들의 의거정신(義舉精神)은 널리 세계에 선양(宣揚)되었다.

#### ◇터키의 부패정권(腐敗政權)도 붕괴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이 하직하는 4월 27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도 대학생들의 멘데레스 정권 타도 데모가 일어났다. 터키 대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학생들의 용맹스러운 장거(壯舉)의 연쇄반응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멘데레스 수상도 장기집권 동안 독재정치로 말미암아 민원을 한몸에 지니고 있던 터라 한국 학생들의 의거에 자극을 받아 터키 대학생들도 총궐기했던 것이다. 멘데레스 수상의 사임을 부르짖는 학생들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멘데레스 수상은 총선거를 약속하며 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군부에 의하여 감금되어 버리고 말았다. 터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일이 있는 케말 쿠르셀 장군은 군부의 협력을 얻어 멘데레스 수상을 비롯한 정부수뇌와 여당지도자들을 조그마한 섬으로 이동감금하고 국가통일위원회라는 순 군사지도자들로 조직된 기관에서 질서를 유지하였다. 동 국가통일위원회는 10월에 들어서 군사법정을 방치하고 전 여당 및 행정부지도자들의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군부가 영도하고 있는 국가통일위원회는 질서가 회복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총선거를 실시하리라고 전해지고 있고 쿠르셀 장군은 총선거에서 대통령에 입후보하리라는 것이다.

발칸의 요충인 터키, NATO와 중동조약기구에

참가하고 있는 서방측의 집단안전보장체의 전위(前衛)라고 할 수 있는 터키에서 일어난 국내의 혼란으로 인하여 NATO와 중동조약기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일시적 기우도 없지 않았으나 동 혁명주체는 곧 질서를 정당화함으로써 가맹국가 지도자들을 안도시켰다.

#### ◇파리 동서수뇌회의의 파괴

1957년 12월 소련의 당시 수상 불가닌은 세계의 냉전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동서 여러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서한을 미, 영, 불, 인도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 수뇌들에게 발송하였던 것이다. 이래 찬반의 여러 나라 주장이 대립된 가운데 작년 말까지 외교 루트를 통해서 의제의 비밀교섭을 진행하다가 소련 측의 배반으로 중단된 때도 있었으나 1958년 초 맥미란 영국 수상의 소련 방문을 계기로 해서 또 다시 동서수뇌회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동회담의 개최준비절차의 논의가 재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서수뇌회의를 개최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를 만든 것은 역시 소련의 베를린 위기 조성에 있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동베를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국외상회의를 여는데 동의한 소련이 동 4대국 외상회의는 앞으로 동서수뇌회의를 개최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1959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베를린 문제 및 독일통일문제를 위한 4대국외상회의도 아무런 성과 없이 무기휴회라는 형식으로 헤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작년 10월 영국총선거당시 자기에게 정권을 맡겨주지만 하면 동서수뇌회의를 통해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노라고 선거민들에게 공약하였던 맥미란 수상은 노동당을 물리치고 재차집권하게 되었다. 따라서 맥미란 수상은 선거민들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1958년 신정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후르시초프와의 약속도 있으므로 해서 재집권 직후부터 동서수뇌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서둘렀던 것이다. 원래 동서수뇌회의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을 설복시켜 1960년 5월 16일 파리에서 4대국에만 국한된 동서수뇌회의를 개최하는데 완전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련은 물론 미, 영, 불 3대국 수뇌들은 외상을 비롯한 수다한 보좌관들과 함께 회담개최전일까지 파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정작 회담이 개최되자

후르시초프 소련수상은 의외의 광태로써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대들었다. 5월 1일 소련은 미국의 U-2 정찰비행기(偵察飛行機)를 소련 영토상공에서 격추시켰고 동 탑승원 파워즈를 체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은 파워즈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미국의 U-2 정찰기의 임무를 잘 알고 파리 동서수뇌회의에 임했던 것이다.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이 만일 소련 영공에 대한 U-2기의 기만적인 침입을 해명하고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관계자를 처벌하고 그와 같은 비행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한 수뇌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고 강경한 요구를 했고 6월에 소련을 방문할 예정이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소련 방문초청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U-2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된 이후에는 U-2기의 정찰비행을 이미 중지했다고 말하고 수뇌회담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뇌회담을 위한 것과 미·소 양국 간의 문제(U-2기사건)를 위해서 이중의 비밀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으나 후르시초프가 응하지 않아 결국 소련 자신이 몇 해 전부터 개최하자고 성화같이 추진해온 그 동서수뇌회담을 모처럼 개최하려는 마당에서 자신이 또 파괴함으로써 평화에로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던 4대국의 동서수뇌회의는 깨어지고 말았다.

후르시초프 자신이 모처럼 이루어 놓은 동서수뇌회의를 파괴시킨 이유로서는 자국 내의 스탈린주의 군 간부들의 압력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중공(中共)의 압력 즉, 중공을 제외하고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중공 소련 간의 압력 때문이라고도 하나 역시 중공과의 그 이상의 불화를 후르시초프가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편이 지배적이었고 11월 미국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보다는 다음의 미국대통령과 회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한 추측을 자아내게 한 것은 미국이 후르시초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뇌회담을 열려고 한다면 6개월이나 8개월 후로 수뇌회담을 연기하는 길밖에 없다고 후르시초프가 성명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를린의 위기 군축문제 등 당면한 국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동서수뇌회담이라는 이름의 4대국수뇌회의가 깨어짐으로써 국제간의 긴장은 오히려 격화되었다.

#### ◇독립국(獨立國) 콩고의 내란

베르기 레오폴드 2세의 사유재산으로부터 1908년

베르기 정부의 식민지로 승격되었던 콩고는 1960년 6월 30일 베르기로부터 독립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콩고 민족주의자들이 독립할 수 있는 힘, 독립행정부 운영의 힘조차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하게 베르기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콩고에는 전통치자들이 채 물러가기도 전에 내란이 일어났다.

콩고공화국은 성급한, 다시 말하면 독립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역량을 채 갖추기도 전에 베르기로부터 독립됨으로써 팔삭동이 공화국이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었다. 콩고인들은 베르기로부터 해방만 되는 날이면 베르기인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도 아파트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고 그 밖에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독립 불과 일주일 만에 콩고보안대 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베르기인 장교에 대한 반발도 있었으나 관리와 의원들의 봉급은 한껏 올려 놓은데 대하여 병사들에게는 이렇다 할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폭발이었다. 이러한 폭동은 군대 내부에 뿐만 아니라 연쇄반응으로 각부면(各部面)에 파급되었고 따라서 최초의 피해자들은 누구보다도 베르기 주민들이었다. 베르기인들에 대한 위협은 생명재산에 이르기까지 위급하였다. 따라서 베르기 정부는 콩고에 있는 십여만의 베르기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콩고와의 조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로써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콩고 정부 루뎀바 수상은 “독립을 부여한 지 나흘 만에 침략을 했다”고 베르기를 비난하는 동시에 베르기군의 침입을 국제연합에 제소하였다. 그래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콩고에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었는데 유엔에 제소했던 루뎀바 수상은 또다시 유엔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베르기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때 루뎀바 수상은 베르기군이 만일 철수하지 않는다면 소련군의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위협도 하였다. 베르기 정부는 그의 위협보다도 유엔군에 협조하는 의미에 있어서 수도 레오폴드빌을 철수하였다. 그러나 카탕가주 수상은 루뎀바가 자기를 중앙정부 요직에 기용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터이라 “루뎀바가 소련군의 원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노선을 걷는 것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탈할 것을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대륙을 노리고 있는 소련은 발언권을 얻는 좋은 기회라 하여 군사 및 기술원조를 개시함으로써 콩고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카사부부 대통령과 루뭉바 수상 사이에도 균열이 벌어짐으로써 행정부 자체 안에서도 불화와 반목이 조성되었다. 이때 모부투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루뭉바 수상을 연금한 다음 소련 및 체코의 외교사절을 축출하였다. 따라서 소련이 제15차 유엔총회에 어느 문제보다도 콩고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대륙에 대한 그들의 침투계획이 실패될 것 같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의 경우보다는 콩고침투계획의 실패에 소련은 더욱 중요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 ◇ 미국대통령선거

11월 8일의 미국대통령선거는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 가운데 민주당 후보 존 F 케네디씨를 당선시켰다. 동 선거에서 민주당 케네디씨가 당선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 모양이나 공화당집권 8년 동안에 국제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소련에게 기선을 잃었고 또 미사일 발전면에 있어서 미국이 소련에 낙후되었다는 점에 선거민들이 정력적이고 발랄한 신념의 인물 케네디씨를 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외교정책이 곧 전환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공화당정부와는 좀 달리 탄력성있는 양상을 띠리라고 생각된다. 소련은 선거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기들은 개의할 바가 아니라고 했으나 역시 과거의 공화당정권 당시와는 대공정책이 달라지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전에서 대만 해협의 금문(金門), 마조도문제(馬祖島問題)가 논란되어 케네디의 생각하고 있는 편모(片貌)가 드러났으나 중공의 승인문제, 한국통일문제 등이 공화당정부 당시보다는 활발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대의원제도 무상원조에서 대의원조형식으로 그 방법이 변모될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프랑스, 자유중국 같은 극소수국가를 제외하는 세계대다수의 국가들은 민주당의 집권을 환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가 공산주의선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불안정상태에 빠져있고 특히 카스트로가 영도하는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상태에 들어갔다. 한편 라오스에는 우익, 중립, 좌익의 삼파전내란이 계속됨으로써 미국과 소련의 경제원조경쟁이 아슬아슬하게 벌어지고 있다. 1960년은 59년에 비해서 훨씬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할 수 있겠다. 동서수뇌회담이 후르시초프의 망발로 깨어졌었으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는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한 후르시초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961년은 동서수뇌회담의 실현으로써 동서간의 냉전을 완화시키고 군축, 핵실험의 금지 문제 등을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이 혹시나 열리지 않을까?

<필자·서울신문편집국장>

## 아프리카 신생제국(新生諸國)의 길

- 콩고공화국사태(共和國事態)를 중심으로 -

엄기형(嚴基衡)



### 해방(解放)과 비극(悲劇)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던 아프리카에도 여명의 빛이 떠오르고 있다. 제1차대전 전만 해도 독립한 국가는 수개국에 불과했었는데 제2차대전 이래로 이미 20여 개국으로 증대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새로 독립한 19개 국가는 이미 유엔에 가입하였고 방금 분규 중에 있는 콩고만이 남아 있다. 과연 콩고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이른 것 같다.

콩고는 베르기령(領)으로 있다가 금년 6월 30일 콩고공화국으로서 독립하였다. 이번에 콩고가 새로 독립한 것은 1958년 1월에 발생한 대규모의 폭동이 있는 지 1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다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너무 급속한 독립실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의 표면에는 팽배일로(彭湃一路)에 있는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조류에 발맞추어 베르기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양보하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려는 공리주의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

그러나 아무런 준비와 바탕이 없는 채로 독립을 약속받은 콩고는 독립하기 전부터 종족간의 암투가 전개되고 결국 독립한 지 수 일 만에 내란으로 폭발하고야 말았다. 그 발단은 7월 6일 베르기 장교의 파면을 요구하는 2만 5천 명에 달하는 보안대의 변란(變亂)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베르기 군이 다시 개입하고 카탕가주가 독립을 선언함에 이르렀다. 사태가 급박함에 이르러 콩고 정부는 유엔군의 출동을 요구함에 이르고 7월 14일 유엔안보이사회는 유엔군파견을 결정하여 아프리카 제국군(諸國軍)의 출동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루뎀바 수상은 유엔군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한때는 미군의 단독지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한때는 소련군의 지원만 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여기서 종족간의 파쟁(派爭)이 격화되고 카사부부 대통령 지지파와 상충하여 내분이 더욱 격화되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콩고 내분을 동서쌍방이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암투가 크게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초에 육군참모총장인 모부투 대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오는 12월까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한편 행정권을 접수하였다. 그는 루뎀바 수상을 정계에서 추방한 다음 카사부부 대통령과 협력하여 소련대사관 등을 철거시켰다. 이것이 유엔안보리에서 문제화되고 후루시초프 소련 수상이 함마숄드 사무총장을 불신임하는 등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콩고의 독립은 유엔군의 힘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콩고는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조류를 타고 베르기의 지배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는 하였으나 그 기쁨은 불과 3일 만에 환상처럼 여지없이 부수어지고 내란의 도가니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 여기에는 베르기가

콩고의 민족자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교육을 고의로 기피해 왔던 탓으로 그 국민의 자치능력이 결여한 데다가 아무런 준비기간도 없이 행정권을 이양(移讓)한 데 기인(基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바탕 없는 살림살이

사실 콩고는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조류를 타고 독립이라는 새 출발을 하였으나 내정을 지탱해 갈 만한 아무런 바탕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탐험가 트란피가 발견한 이래 1855년부터 1908년까지의 반세기 동안은 베르기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사유재산으로 있었다. 그동안 레오폴드 국왕은 잔인무도(殘忍無道)한 방법으로 개발하면서 노예 수출 등으로 약 5백만의 원주민을 희생시켰다. 그는 주로 강제부역을 일삼으며 반항 내지 불응자는 수족을 잘라 죽이는 가혹한 방법을 썼던 탓으로 내종(內終)에는 국제문제화함에 이르자 1909년에 베르기령으로 삼고 원주민대우방법도 약간 개선함에 이르렀다. 이로써 국토는 점차 개발되고 원주민의 생활도 약간 향상되었다.

그러나 베르기 정부는 원주민의 각성을 꺼려하여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고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용인하지 않은 탓으로 주민의 대부분은 문맹자(文盲者)이고 대학교육을 받은 흑인은 겨우 십여명에 불과하다. 이토록 저급한 교육수준으로는 독립국가를 운영할 만한 인적자원을 발견하기 매우 힘들다.

지난 1월에 독립을 약속받고 얼마 후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의회가 구성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중등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한 정객(政客)들이다. 또 콩고의 초대수상으로 지명된 루뎀바 자신도 중등교육만 받은 우편국원(郵便局員) 출신이지만 범아프리카 민족주의자라는 사실로써 수상직에 선임(選任)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閣僚) 몇 사람 정도가 대학출신이고 보면 인도의 3분의 2나 되는 광대한 국토와 천 3백만 인민을 통치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독립 3일 만에 내란에 부딪혀 전국토가 전화(戰火)에 휩쓸리고 이통에 루뎀바는 카사부부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하는가 하면 모부투 대령으로부터도 배척받고 있다. 이 모부투 대령도 역시 중학출신이고 한 때 연합군군속으로 있다가 신문기자생활을 한 바 있고 그 뒤에 다시 보안대에 입대하여 대령으로 참모총장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이 모부투 대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전(全) 콩고의 정권을 접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콩고 내분과 관련되는 중대문제는 콩고의 한 연방주(聯邦州)이던 카탕가주가 콩고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원래 카탕가주는 콩고의 유일한 광산지대(鑛山地帶)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광산지구이다. 여기서는 금, 은은 물론이요 코발트, 우라늄광(鑛)이 많이 생산되어 이는 베르기와 미, 영의 자본으로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우라늄은 세계적으로 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매장량도 상당하여 미국은 여기서 핵무기의 원료를 대량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콩고의 재원은 대개 이 광산지구에서 염출(揀出)되어 전국가 재정의 6할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카탕가주가 독립하였다는 사실은 콩고공화국의 재정적 기반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더하여 콩고공화국이 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베르기가 독립을 부여하면서 콩고 정부에서 사용할 재정을 전부 갖고 떠났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콩고는 독립한 그날부터 국고는 텅텅 비게 되어 일체의 재정적 지출이 봉쇄되고 관리들이나 보안군(保安軍)의 봉급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특히 이에 분격(憤激)한 콩고인들과 보안군은 베르기인 장교들의 해임을 요구함에 이르고 콩고 원주민들도 백인들을 보복하기에 이른 것 같다.

### 유엔의 건설활동(建設活動)

콩고 내분을 진압시키려는 유엔군의 활동은 다양한 바가 있다. 7월 14일 안보이사회의 결의로 유엔군의 출동이 결정되자 15일에는 가나군이 현지에도 착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아아제국(亞阿諸國)으로부터 6천명의 군대들이 파견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현지에 군사총들을 방지하고 치안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콩고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카탕가주 군이 침입하려 해도 이를 봉쇄했고 그 이상 콩고에서의 내전이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물론 유엔군은 콩고 내정에 간섭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범아프리카주의자로 유명한 엔쿠르바 수상이 영도하는 가나군만은 루뭄바를 암암리(暗暗裡)에 지지하고 있고 친서적(親西的)인 국가군대들은 모두투 대령을 지지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 한때 유엔안보리에서도 크게 논란된 바 있고 소련은 함총장을 불신임한다고 나섰던 일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아제국은 중립적태도를 견지하며 내정에 간섭할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태도와 활동이다. 미국은 콩고에 대한 유엔군파견이 결정되자 즉시 중동(中東), 북아(北亞), 영국 등지에 배치된 수송기들을 총동원하여 유엔군 수송에 임하였다. 적어도 그 병력의 약 75%와 물자의 90%를 미군수송기들이 수송했는데 그 비용만도 1천만 불 이상을 소비했다고 한다.

이것을 본 소련도 유엔과는 별도로 소련수송기를 동원하여 공산제무기(共產制武器)를 대량 수송하기 시작하면서 루뭄바와 결탁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지만 이는 결국 콩고를 동서냉전장으로 화하게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콩고에는 32개국으로부터 약 4백 명의 기술자들이 도착하여 통신, 교통에 이르기까지 콩고의 행정을 기술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지난 8월에 의회에 대해서 1억 불의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으로서는 유엔을 통하여 제공할 것을 기대하며 직접적인 원조만은 삼가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에 함 총장은 콩고주둔 유엔 군사비로서 8천만 불의 예산지출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서방각국은 응분(應分)의 배정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련만은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도 소련의 콩고에 대한 정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콩고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립하고 자치할 만한 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국가로서 존속하려면 유엔은 군사비 이외에도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야만 할 것 같다.

### 콩고는 어디로?

모든 바탕이 박약(薄弱)하고 자치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콩고공화국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이는 오늘날 콩고 인민 자신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신생공화국 제국과 동서냉전의 문제로 클로즈업되고 있다.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퍼지는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여세로 콩고는 베르기에 대한 오랜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원래 미개한 민족이라 모든 기반이 없는데다가 격심(激甚)한 종족분규를 겪게 되어 그들은 베르기 지배 당시 이상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들은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집시와 같은 운명에 있고 20세기 후반의 문명을 등진 원시적 생활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군 지배하에 장구히 있을 수는 없고 내정간섭을 불허하는 유엔의 활동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할 수도 없다. 아프리카의 여타서방(餘他西方) 식민지들이 금년 중에 19개 국가나 독립을 선포하였지만 모두 예비적인 행정훈련과 기술적 지도를 받아왔고 또 군대의 수뇌들만은 여전히 전주인들이 지도하고 있어 치안유지에 별 이상이 없이 지내가고 있다. 그러나 콩고만은 독립을 서두른 것까지는 좋았지만 전주인을 일조에 구축하려던 과격한 행동으로 이제 오히려 세계의 조소(嘲笑)꺼리만 되고 말았다. 그들의 자치능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이로 인하여 동서쌍방이

〈32항(三十二頁)에 계속〉



소련의 스포트니크 1호가 우주로 발사된 이래로 기업을 토하여 온 수명의 정부 고위층 관리를 포함하여 수백만의 미국시민들은 지난번의 U-2기 사건은 하나의 커다란 충격적 사고였음이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안전 나아가서는 전체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소련은 영토상의 고공비행의 U-2 정찰기를 보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소련정부의 수령으로부터 지독한 욕과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다.

버지니아 출신의 젊은 미국시민의 한사람인 푸란시스 캐리 파워즈는 간첩죄로 10년간의 옥중 고초를 겪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당대의 슬로건 속에 포함된 평화는 마치 타버린 네온싸인에서 깜박이는 불꽃처럼 명멸(明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일지도 모르지만 여하간 이 나라가 수년간 집거하여 온 자기만족으로 뚫린 벽장을 얇은 현실의 베니아판(版)으로 막은 셈이 된다.

우리들의 귀에는 지금 정찰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인 기습공격의 위협이라든가, 유도탄 내지는 인공위성 경보체제의 확립이라는 등의 귀익을 말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화의 관리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

대체로 U-2기 조종사 파워즈의 운명과 후루시초프 소련수상의 로켓 위협 역사는 마침내 우리들은 현시에 있어서 두려워하였던 것은 바로 민족적 과대망상의 황야(荒野)에서 소리친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이었다는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정세는 하룻밤 사이에 변화하였는바 위정(爲政) 당국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단 말인가?' 라는 용어는 하룻밤 사이에 바로 '얼마만큼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과거 U-2기의 후계자로 알려진 마이다스 사모스 등 정찰위성(偵察衛星)은 새로운 자금을 받아 착실히 연구발전되고 있으며 B-70 폭격기도 마침내 예산이라는 쓰레기통에서 벗어나서 천정부지(天井不知)의 불사조(不死鳥)같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징조는 참으로 경하(慶賀)스러운 일로써 이려고 보면 U-2기가 이번에 소련영토 횡단 중 소련의 로켓에 의하여 격추당한 사실은 바로 이전까지 무사고로 비행하여 얻은 성공의 기록보다 더욱더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어야 한다면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고 타할 것인가? 민주주의 아래에서 복잡하고 고가(高價)하면서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대중적인 성원을 받으려는 것은 불타는 푸른 숲속에 세워진 조그마한 집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 집은 불길에 싸여 타버리겠지만 그 집은 다른 숲보다 불꽃을 더 크게 울릴 것이고 그 집의 불을 끄면 불은 곧 꺼져버린다.

그러면 U-2기의 사건과 영향의 기록이 아직도 우리들의 뇌리에 생생한 만치 그것이 남겨준 몇 가지의 교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말해줄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결코 전쟁상태에 있지 않은 어느 주권국가의 영공을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횡단정찰비행(橫斷偵察飛行)까지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그 필요성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대륙 간 횡단 유도탄에 의한 기습공격의 가능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존속한다. U-2기의 유산은 크게 나누어 두 개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적의 공격이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

정찰체제의 확립과 그 때에 시간 맞추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임무를 맡겨주게 되는 지휘 및 통제통신체제,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포신(砲身) 아래서 살아야 할 것이다. 우주만이 우리에게 대기습공격을 효과적으로 경보해 줄 수 있는 전자정보 장치를 간직할 것이다. 소련영토 횡단정찰(橫斷偵察)을 포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이상의 말을 밑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U-2의 정찰비행은 정확한 작전체제를 갖춘 비행으로써 계획된 코스에 따라 정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우주비행용정찰장치(宇宙飛行用偵察裝置)는 계속 발전단계에 있어 성공의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마이다스 사모스 및 통신위성 체제가 작전용 기능을 발하게 될 때까지는 부득이한 일이지만 현재의 유도탄경쟁에서의 겹뜨 뿐 아니라 정보작전상(情報作戰上)의 겹뜨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고립적인 시험발사의 성공이 아니라 이와 같은 체제(諸體制)가 완전한 작전상의 기능을 발하게 되는 날은 언제가 될 것인가? 순수한 평화적 과학적 이익을 위한 탐구용 발사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사되는 작전용의 인공위성 간에 상이하는 요소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군사적 요청은 이와 같은 우주체제가 부단히 계속되어 주기를 원한다. 항공우주연구의 권위자이며 지휘자인 바나드 A 슈리버장군이 말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즉각적인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 여하한 정찰장치, 경보장치 혹은 통신체제도 유명무실한 것이다.

다음은 어떤 군사 목적의 우주체제는 전면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시에 몇 개의 인공위성을 우주상의 궤도에 진입시켜 놓아야 한다.

(이러한 예는 마이다스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마이다스위성은 그것으로부터 얻는 유익한 결과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혀 통합적인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나 이 위성을 구성하는 기관을 멧쟁이처럼 걸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듯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반드시 장기간의 신빙성과 고도의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을 만치의 간단히 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Blue-suit Capability라고 부르는데 몇 사람의 정선된 과학자들에 의하여 조작되기보다는 날마다 작업에 동원되는 공군장병들의 손에 의하여 쉬이 조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슈리버 장군은 지난 6월 미국 상원(上院)의 1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었다.

“착실한 지상관측소가 있어서



〈사진:U-2기의 장비될 기계장치, 이 계장치 전단에 70mm. 공중 카메라·필름이 장비(裝備)된다〉

위성으로부터 보내오는 정보를 수신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작전지휘소로 발송하지 않은 한 위성을 지구주위의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작전용 체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성의 성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지상관측소 이를 운용하는 인원, 시설전반의 발전과 내부에 장치되는 계기 등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만 위성 발사의 촉진과 그 횡수의 증가만으로써 U-2기가 격추됨으로써 야기된 우리의 정보근원의 낙후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대륙 간 횡단 유도탄분야에서의 우리의 입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원에서 승인한 추가연구비는 이러한 사실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 남은 문제는 과연 국방성 당국이 이렇게 배당된 돈을 이용하여 공군이 의회의 의사를 신속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며 그리하여 예정된 계획보다 1년을 빨리 성공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까지 미 국방성의 역사를 일별(覽)하면 우주계획에 대한 지원상태에 호감이 적게 간다.

이때까지 해 나온 정상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반대이유는 주로 예산상의 이유에 기인하는데 즉, 많은 종류의 계기는 먼저 쥐구멍(서혈(鼠穴))과 같이 돈을 흘려 넣어야 하는 위성에 장치되기 전에 반드시 개별적인 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역설적인 것 같지만 결코 돈을 절약하는 묘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경비의 지출을 많은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며 때때로 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낡은 것이라는 이유로 중지당하는 사례까지도 유발하고

김창순(金昌順)



소공당(蘇共黨)의 일반적 정세분석(情勢分析)

수세를 취하면서 방어전을 유지할 때에는 사기가 앙양(昂揚)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단 공세를 취하고 진격을 개시하면 사기가 충천(冲天)하는 법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턱대고 공세를 취하고 진격을 개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요는 수세를 벗어나서 공세를 취하고 방어전으로부터 공격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적준비와 작전계획과 시점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언젠가 스탈린은 전쟁을 지휘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써 현대의 정치가 일 수가 없다는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부터 공산당 간부들은 전쟁학을 거의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소련이 국제정치무대에 있어서 비약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허허실실의 허허만도 아닌 것 같다. 그네들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비약적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모양이다.

소련공산당의 규격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1 자본주의의 힘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소련을 기수로 하는 공산진영의 힘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해 졌기 때문이다.

2 전후 민족주의의 대두와 신생독립국가의 속출(續出)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미개적(未開的) 시장들이 붕괴됨으로써 자본주의의 안정기가 상대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하에서는 식민주의 대 민족주의의 결투가 초래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형편하에서는 자본주의 상호간의 정치적 단결보다는 경제적 해관계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된다.

있는 형편이다. U-2기의 사건과 파탄된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사는 어리석음을 교훈으로 남겨주었다.

우리는 지금 우주시대의 가장 긴장된 시간에 살고 있다. 용감성의 발휘와 지도이념의 확실한 파악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득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순간의 필요성을 위한 노력의 뒤에는 우리들의 약점의 문호를 침략자에게 개방함이 없이 궁극적으로 군비의 과중한 부담을 벗어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평화와 번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습공격의 위협을 제거하고 세계정복을 꿈꾸는 무리들의 거칠은 독아(毒牙)를 뽑아 버려야 한다. 우주에 기지를 둔 정보, 정찰 내지는 통신장치가 적으로 하여금 대륙간 탄도유도탄으로서의 공격을 절대로 발사치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보장이 될 것이다. 확실한 보복의 위협을 동반한 기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는 세계에게 비로소 착실하고 목적 있는 군비축소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와 힘을 가진 평화 즉, 통제된 평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다만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주여행을 꿈꾸는 근본 목적이 되는 것이다. (Air Force 지(誌) 7월호에서)

<27엽(二十七頁)에서 계속>

서로 세력을 뺏치려 기도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세력의 침투를 경계하고 소련은 미국세력의 진출을 질시하고 있다. 이것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 유엔이오 아프리카 신생제국들이다.

특히 콩고는 아프리카 중심부에 자리 잡은 방대한 지역이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은 원자시대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미국이 방대한 투자를 들여 우라늄광을 확보하고 베르기가 다이아몬드, 금광 등을 확보하고 있는 카탕가주가 독립을 선언한 이면사정(裏面事情)도 넉넉히 추단(推斷)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눈을 뜨기 시작한 아프리카 민족운동이 일익 고조되고 있고 아(亞), 아(阿) 중립세력이 증대일로(增大一路)에 있음에 상도(想到)할 때 콩고의 내분문제는 단순한 콩고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분쟁의 요인을 포장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한때 백인들로부터 노예로 수입되던 아프리카민족들이 장차 백인들에 대한 반발을 일으킨다면 실로 세계의 운명은 그 양상을 달리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자립할 능력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서방측은 과거와 같은 식민지내 지배관념으로부터 떠나서 다 같은 인류의 일원으로서 공존공영할 수 있는 활로(活路)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엔이 당면한 중요과제인 동시에 서방측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할 것 같다.

<필자·서울일일신문논설위원>



3. 전기(前記) 1, 2항의 조건을 따져 볼 때 역사의 금일적(今日的) 과정은 혁명의 상승기에 처해 있음이 분명하다.

4. 그렇다면 소련의 대외정책은 적지적중(適地適種)의 혁명을 선동(煽動)하고 보호하되

(가) 미국을 주공목표(主攻目標)로 하여 세계적 독립을 도모하며, 자본주의 국가 상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그들 간의 상호대립을 조성 격화시킨다.

예컨대 영국과 서독관계(西獨關係)를 악화시키며 미국 대 영불관계(英佛關係)를 악화시키며, 유럽 공동시장문제를 위요(圍繞)한 서방분열을 획책(劃策)하는 등등.

(나) 전후신생독립국가의 이익과 독립을 비호(庇護)하는 자는 오직 소련과 공산진영인 것처럼 공세를 취하며, 정력적인 회유책을 다 한다.

(다) 후진지역 국가들에 대하여 직선적인 공산화정책을 강행하느니 보다는 민족주의의 선풍(旋風)에 편승하여 우선 정치적 중립권형성에 주력한다. 그래야만 공산침략에 대한 경계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한 규탄을 모면할 수가 있다. (그러한 구실만이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다.)

(라) 공산주의의 국제적 각종조직망을 발동하여 각처에서 공산주의의 영향을 심화시켜야 한다.

소공당(蘇共黨)의 일반적 정세분석은 개략(概略) 이상의 제점(諸點)으로 집약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세분석에 기초한 그네들의 전략전술문제는 또 어떻게 편성될 것인가.

### 소련을 미국의 우위에 앞하려는 고자세(高姿勢)

금년 한 해 동안의 소련 대외정책의 양상을 검증해 보면 그들이 애써 소련을 미국의 우위에 앞하려는 정력적인 의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계문제의 주도권자가 누구냐의 이니시아티브를 다투고 있어서 미국의 우위를 격하시킨다는 것은 국제적 분쟁의 부전승(不戰勝)을 노리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소련 자신이 미국의 최우위적 강대성을 자인(自認)하면서도 그로 인한 굴복의 결과를 타산하여 억지로라도 미소 대등을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의 힘의 대등, 힘의 균형 또는 포화상태(飽和狀態)라는 말을 채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금제(禁制)하다 싶고 하고 무슨 형용으로도든지 소련을 미국의 우위에 앞하려는 노력을 애써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대한 소련정책가들의 사고방식과 타산에 의하면

1. 지금 소련은 세계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와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나 그리고 세계공업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공산주의의 국가적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또 그러한 면적과 인구는 철의 장막(帳幕)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소련정책가들이 어떠한 주장을 내세우든지 간에 그것 이외의 것은 정당치 않은 것으로 맹신하는 지역과 인구가 그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2. 공산주의의 국제적 각종 조직망은 소련정책가들의 주장을 전달(傳達)하며, 자유세계의 주장을 왜곡, 마비시키는 임무를 담당할 수 있으리만치 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3. 전기 1, 2항의 조건에 의하여 소련이 미국보다 우세하다는 주장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소련이 미국보다 우세하다는 주장을 일반화하여 보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소련정책의 수출과 압도적 지배를 용이케 한다는 것이다.

금년 1월 후루시초프 수상이 소련의 국방력을 도리어 강화하는 조건하에서 140만 감군(減軍)계획을 공표한 사실과 소련의 전파전(電波戰)이 로케 무기의 우세를 굉장히 광파(廣播)하고 있는 사실 등등은 모두 소련의 최강대성을 애써 기성사실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금년 5월 미국의 U-2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소련이 그토록 극렬한 대미도전(對美挑戰)을 감행한 것과 파리정상회담을 사산(死産兒)로 매장해 버린 것도 말하자면 소련의 최강대성을 시위하려는 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금년 UN총회에서 후루시초프의 횡포는 발작적(發作的)인 연기과잉(演技過剩)이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미리 준비된 작전이었다고 보는 것이 손해가 없는 관찰일 줄 안다.

이리하여 소련이 미국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뒷받침으로 하여 소련의 동지 없이는 세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관념을 부식(扶殖)하며, 소련의 반대 앞에서는 미국도 무가내하(無可奈何)라는 패배의식을 비등(沸騰)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정책의 변증법적 운용인 것이다. 즉, 물에다가 100도의 열을 가해 주면 수증기로 비약한다는 식으로 그동안 소련이 백인당중(百忍堂中)에 천신만고(千辛萬苦)하여 축력(蓄力)한 결과는 종전의 미·소 대등의식으로부터 소련이 미국보다 우세하다는 주장으로 비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정말 그렇고 안 그렇고 간에 오늘의 소련정책가들은 모든 국가적, 정치적 활동면에 있어서 이 명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소련의 정치적 공세의 인자(因子)이기도 한 것이다.

### 장기목표의 파종공작(播種工作)

콩을 심어야만 콩을 거두고, 오이씨를 뿌려야만 오이를 먹는다. 농사라는 것은 대개 그렇다.

크렘린의 정책가들이 짜내는 정책의 본질이란 것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계획성을 내포하지 않은 것이 없다.

후루시초프가 금년 UN총회에서 미국을 저돌적(猪突的)으로 공격하면서 세계적인 반미소동의 선두에 섰다는 사실과 시간적인 식민지 전폐안(全廢案)을 내걸면서 아이(亞阿) 및 라틴아메리카제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듯이 작태(作態)한 사실, 그리고 UN의 개편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후루시초프와 그의 동료들은 후루시초프에 의하여 선포된 크렘린의 그러한 주장이 당장에 실현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다.

역대의 공산당 두목들은 시의와 장소를 택하여 폭탄선언을 던지는 것을 행동법칙으로 삼아왔다. 후루시초프도 예외일 수가 없다.

언제든지 자본주의의 현유질서(現有秩序)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활로가 타개되지 않는다는 철칙과 신조의 사람들인지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현상을 동요시키며, 파괴하느냐가 공산주의들의 주안점이다.

미국을 약체화(弱體化)시키는 방법 여하—이점에 관하여 소련정책가들은 현존하는 모든 조건과 조성시킬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세계적인 반미소동을 조직, 전개하고 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것, 사상, 문화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철수와 미군사기지철폐투쟁(美軍事基地撤廢鬭爭), 미국과의 동맹을 거부하는 투쟁, 중립·독립·평화를 표방케하는 중립주의중용(中立主義從湧), 친소친공(親共)의 유익성을 고취하는 캠페니아, 부루쵸아 생활양식과 사상의식에 대한 적개심선동(敵愾心煽動), 민족주의의 활로를 반제투쟁(反帝鬭爭)에 구하라는 슬로건, 미국의 경제정책에 목을 졸라 매이지 말라는 권고 등등 온 세계를 반미소동의 바다로 꾸며대려고 한다.

소련의 이러한 책동(策動)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打勝)하기까지의 장기작전인 바 그러한 작전은 재빨리 아이(亞阿) 및 라틴아메리카제국에 대한 음적, 양적 촉수(觸手)로서 그 전구(戰區)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구들에서의 소련전술을 볼 것 같으면

1. 콩고와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이여 반미·반제(反帝)혁명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라. 만일 미국이 그대들의 혁명투쟁에 간섭하면 소련은 미국의 그 간섭을 방해할 것이다.

2. 쿠바와 중남미주국가(中南美州國家)들이여 반미·반제투쟁을 과감 전개하라. 그대들의 뒤에는 소련이 있지 않는가.

실로 이런 식으로 소련은 점과 선을 확보하며 그것을 다져서 공산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언젠가는 세계제패를 현실하고야 말겠다는 장기파종(長期播種)의 공작인 것이다.

이점을 경계하고 분쇄(粉碎)함이 없이는 자유세계의 안전과 민족국가의 자유, 독립은 말살(抹殺)될까 두렵다.

UN개편에 대한 후루시초프의 도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첫술에 배부르자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파종으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자는 작전이 아니겠는가. 오컨대 그러한 파종공작을 해놓고 누적적으로 자꾸만 보채자는 것이다.

선성탈인(先聲奪人)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먼저 소리를 내어가지고 남의 기를 꺾자는 공세이기도 한 것이다.

<55항(五十五頁)에 계속>

## 관리된 평화를 이룩하는 길

- 우주시대의 각성기(覺醒期)에 있어서 -

J·H·스트로우벨



이 우주시대의 각성기(覺醒期)에 있어서 우리는 아침 안개 속에 떠오르는 여러 새로운 세계에게 매혹당하고 있다.

우리는 외계에—미지의 세계에—뛰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곳은 오래 묵은 여러 가지 문제의 축(軸)을 돌고 있는 세계인 것이다.

그 세계는 인간들이 기술적 업적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상호 간의 관계는 여전히 거칠게 남아 있는 세계인 것이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찾고 있지만 법과 질서의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는 번영할 수 없는 인간들의 세계인 것이다.

우주를 정복함에 있어서 우리의 제1목표는 지구상에서의—관리를 통한—자유 있는 평화를 획득하는데 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우주의 그 광대한 범위는 비단 우리가 정복할 새로운 여러 세계뿐만 아니라—일찍이 지구를 그렇게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주비행은 전자공학과 통신분야에 혁명적 신시대의 문호를 열어 놓았다.

그 결과 우주는 국가적위신을 높이기 위한 선전수단이나—탐험을 위하여 탐험을 하는 미개지(未開地)나—군사작전의 새로운 싸움터 이상의 것이 되었다. 소련과의 이른바 우주경쟁은 올림픽경기 이상으로 군사, 정치, 문화 및 경제적 목적을 위한 과학전인 것이다.

현재까지 전자공학 혁명에서 인지(人智)와 기계두뇌와의 결합은 공포와 파괴를 위해서 우주를 이용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낳았다.

그러면 앞으로 우주를 이용하게 될 무수한 인조(人造)물체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목표를 추구하여 우주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냉엄(冷嚴)한 현실주의와 빛나는 통찰력으로 추구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하늘을 탐험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은 지상에 사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그의 근본의무를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월세계에 로켓을 발사한다는 것은 군비축소와 마찬가지로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의 혹성(惑星) 지구 저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로켓(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고는 추구될 수 없다.

월세계의 저편이 아니라 지구의 저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총포(銃砲)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오직 우주에서만 우리의 새로운 관찰방법으로 기습공격을 효과적으로 경계하기 위하여 전자경보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업은 전자공학에 관하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로켓과 부스터로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과업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 우주경보사명(宇宙警報使命)은 정부지도자들의 새로운 지지를 받고 있다.

아직도 요망(要望)되는 것은 관리된 평화로 이끄는 광범한 우주계획이다.

이 계획은 항시 현대식으로 유지되는 전략공격조직(戰略攻擊組織)이 뒷받침하는 경보정찰 및 통신을 위한 고도로 발달된 우주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에서의 초계(哨戒)는 침략을 저지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국제적 관리와 참가로 모든 국가를 위한 세계적인 경보망의 창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공격조직은 우주경계의 경보로 평화의 파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고도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다음 단계는 세계의 모든 전략공격부대를 국제연합에 의하여 관리되는 세계적 경보망과 연결된 국제강제집행기구에 소속시키는 일일 것이다.

전세계가 침략행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게 되면 각국의 거대한 공격부대는 약화되고 자진하여 군비축소를 하게 될 것이다.

기습공격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이 계획은 결국 군비를 최소한도의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주에서의 위대한 실리적 사명인 것이다.

우리는 월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이 광범한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우주시대의 신세계에서 관리된 평화는 후손들에게 물려 줄 우리의 유산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필자(筆者)는 Air Force 지(誌) 발행인)

## 미·소 우주경쟁의 의의

- 세계적 주도권의 근본심볼 -

조오지 V 알렌



스푸트니크1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전세계에 크나큰 반향(反響)을 일으켰는데 일찍이 그 어느 발견이나 발명도 그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은 별로 없었다. 최초의 스푸트니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거의 세계적인 것이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벽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2, 3년 안으로 이 센세이슈널한 사건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 극적 사건의 요소는 물론 뚜렷이 표명되었다. 이 성공은 일반적으로 신시대 우주시대의 시작으로 생각되었다. 전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 극적 사건에 참가된 것은 충돌의 요소였다. 미국은 1955년 7월 25일에 이미 그 자체의 인공위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것은 현재 뱅가드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미국계획의 진전은 때때로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러나 한편 숨기기 좋아하는 소련 측 발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 중량과 궤도에 관해서 약간 내용을 밝히고 아마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 발표는 일반적으로 거의 주목을 끌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세계의 과학자까지도 그 발표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앞으로 있을 인공위성의 발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이 최초의—그리고 아마도 유일한—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사전에 호언장담함이 없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은 그 업적은 소련의 위신을 크게 높이는 반면에 미국의 위신을 그만큼 떨어뜨리고 말았다. 소련은 그들의 과학적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세계의 기대를 크게 능가하고 있었고 한편 미국은 세계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이 대조를 강조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미국자체내에서의 반향이었다. 미국인들 자신은 그 사태의 발전에 어찌할 줄 모르게 황당하고 동요하였다. 미국자체내에서의 논쟁이 소련의 업적을 더욱 의의깊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문제를 미소의 경쟁으로 몰아넣는데 이바지했던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주문제에 대한 신문 및 라디오의 다채로운 보도는 보다 더 빈틈없는 판단과 보다 더 안정된 반응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환영할만한 변화는 비록 미국의 인공위성이 소련의 그것보다 중량에 있어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연의 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자료를 얻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서 해외의 신문들은 사실을 통해서 미국은 그 성공은 물론이요 실패까지도 세계에 알리는 공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소련은 그 업적은 물론 시도마저도 공표하지 않는다고 그 차이를 지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최초의 스푸트닉이 발사된 후 1년 6개월 동안에 미국의 위신은 착실하게 회복되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소련의 업적에 따르는 위신도 또한 계속하여 올라갔으므로 미국의 위신 회복은 스푸트닉 1호 이전의 그 당당한 위치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게다가 세계는 매우 큰 중량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아야만 중요시하는데 미국은 그 점에 있어 소련과 비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련의 계획을 더욱 인상 깊은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세계의 여론은 일종의 시소게임 즉, 미국이 어떤 주목할 만한 활동을 이룩하면 다음에는 소련이 또 무슨 일을 한다는 식으로 되어가리라고 얘기하였다. 이와 같은 여론에는 위성의 중량, 유도의 정확성 등등에서 미국이 소련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가 따랐다.

그러다가 미국의 실패에 뒤이어 2차에 걸친 소련의 극적이고도 성공적인 달 로켓 발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여론은 미, 소 양국 간의 시소게임은 소련측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말았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결국 미국이 소련을 따라가게 되리라는 해외에서의 희망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한편 이것이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동안에 가능할 것이냐 하는 점차로 깊어가는 의문도 또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주에 대한 세계의 일반적인 관심은 꾸준히 높아졌는데 그것은 진지하고 보다 더 깊이 알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과학과 기술의 모든 면에 대한 관심이 융솟음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유리한 점이 F있다. 즉, 미국의 연구내용은 훨씬 더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은 그 발견한 자료를 기꺼이 남에게 나누어주는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요소가 미국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소련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하여 점고(漸高)하는 억측(憶測)의 소리를 듣고 있다.

최초의 우주인은 소련이 보내게 되리라는 널리 유포된 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인이 월세계에 착륙하면 그곳에 소련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심술궂은 논평이 있었는데 그런 말은 미국에서도 나왔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에서의 미국 업적에 대한 큰 기대는 이제 희미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우주에서의 소련의 주도권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소련이 거둔 성공의 가장 의의깊은 결과는 아마 세계인민들이 소련에 대하여 품고 있던 전반적인 인상이 달라졌다는 것일 것이다. 여론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수정된 소련의 이미지(상)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변화는 우주탐험기술의 분야를 넘어서 소련의 모든 과학과 기술 게다가 소련의 군사력과 전반적인 지위를 망라하는 것이다.

스푸트닉 1호 이전에는 소련이 과학, 기술 및 생산이라는 광범한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유세계의 인민들 가운데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스푸트닉과 루닉은 소련이 모든 그와 같은 분야에서 능히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는 과학과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적 주도권의 근본 심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일부 과학도와 공학도들은 소련에게 매혹당하고 있다. 소련의 기술적 및 문화적 수출은 전세계를 통하여 전보다 환영을 받고 있고 소련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전보다 존경을 받고 있으며, 모두 권위를 가지고 발언하고 있고 듣는 사람들은 보다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주에서 소련이 거둔 성공의 한가지 재미있는 -그리고 아마도 위험한- 영향은 이상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소련의 주장에 새로운 진실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푸트닉 이전에는 소련이 무슨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선전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스푸트닉 이후에 그들의 주장은 훨씬 빈번히 믿어지고 있다.

소련수상 후루시초프는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후 1959년 10월 9일

크라스노이아르스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인들은 이제 그들이 몇몇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소련에게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오늘 나는 메다리스장군(미육군 예비역소장, 전육군병기유도탄사령관)이 언명(言明)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만약 소련이 그 우주계획을 중단한다 해도 미국이 소련을 따라가려면 3년 내지 5년은 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가치있고도 지각있는 자인(自認)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러한 성공이 소련 관리들에게 준 자만의 태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만약에 그것이 단순한 과학적 업적의 경쟁이라면 우리가 소련의 경제적 발전을 시기(淸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부신 성공을 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 발견된 자신감을 시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19세기 전반기에 미국을 방문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미국인의 자신을 엿보았다. 그러나 만약에 이 새로 발견된 소련의 자만(오만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지만)이 국제문제에서 무모한 행동으로 변한다면 세계는 큰 위기에 빠지고 말 것이다.

소련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우주계획을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 하고 있지만 세계의 일반대중의 반응은 우주활동을 군사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은 우주경쟁에 숨은 군사적 위험에 대하여 점고(漸高)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오직 평화적 목적만이 필요하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모든 우주활동은 미소 양국 간의 경쟁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세계는 미국이 소련과 우주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영국이 인공위성을 제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익한 진전이라 할 것이다. 우주에서의 국제적 활동이 많아질수록 그 국제적 관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우주계획은 그 활동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와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관계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우리를 소련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의 우주계획은 만만치 않은 적수와 싸울 우리의 기백(氣魄)과 우리의 능력의 한 척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본받을만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우리의 능력의 한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Air Force 지(誌)에서)

## 소련의 제3차 대전 전략

△제1단계 소련군은 거대한 산개대형(散開隊形)으로 동서남방향으로 전진한다.  
△제2단계 전세계의 육지 및 해상(海上)에서 장기적인 공격 및 반격전(反擊戰)으로 전개된다.

△제3단계 전쟁은 양자(兩者) 공멸(共滅)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중1개국(其中一個國)이 지배자로 군림(君臨)할 것이다.

— 외지(外誌)에서 —



향후 2, 3년내에 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소련이 취할지도 모르는 전략을 검토함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련 정부가 과연 제3차대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의 의견으로는 예스이고 도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추측에 대한 확증은 소련의

사상 자체에서 그리고 그들이 군관이나 인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이론 속에서 얻을 수 있다. 소련은 소련군 군관(장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세계의 정치정세 공산주의 진영에 이롭게 발전됨에 따라서 또 자본주의자들의 시장이 줄어들어 서방측 군사동맹이 와해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영도하는 자본주의자들의 세계는 오직 두 개의 조건 즉 공산주의 진영에게 평화적으로 항복하거나 공산주의의 총본산을 파괴하려는 필사적인 최후의 노력하에 소련방(蘇聯邦)으로 향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투입하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과연 그들의 말대로 믿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말속에서 뜻하는 바를 몇 가지 짐작할 수가 있다.

소련의 사고방식에 의한 또 하나의 제3차대전 발발의 가능성은 국지적인 재래식의 전쟁이 필경에는 핵보유국의 관여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발전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밖에도 소련의 군사전략가들은 지금까지도 1952년 제19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전쟁은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역시 소련방의 개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한 스탈린의 연설을 반복하고 있다. 넷째로 소련이 중공(中共)과의 군사동맹을 이유로 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하여야 한다.

### 예방적인 선타의 관건(關鍵)

이상 말한 대체로 네 가지의 제3차 대전 발발의 가능성 있는 원인들로부터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소련이 서방에 대하여 먼저 공격을 가하여 올 가능성은 적고 모스크바로부터의 정보에 의하여 보더라도 소련이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로서 예방전쟁을 일으키리라는 징후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소련이 먼저 공격해 올 사태가 과연 없겠는가? 5년 전에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이 예방전쟁의 개념에 대하여 저술한 바가 있고 서방진영내에서도 전쟁이 가능한 것이라는 추측하에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론을박하여왔다. 이와 같은 ‘선타(先打)의 이론’은 방위적이고 희생을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상의 적국이 소련방에 대한 핵무기공격을 가하려는 회복할 수 없는 결정을 실제로 행사할 단계에 있다는 정확하고 즉각적인 정보의 입수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선타에의 관건(關鍵)은 소련이 대륙간 횡단 탄도유도탄을 최초로 발사하기 2년 전인 1955년에 제안된 것이었다. 초음속(超音速) 항공기에 의한 공격이라는 상태에서 본다면 방위자는 실제적인 전략적 결심인 예방적인 선타를 위한 경고를 충분히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5년 제안된 사고에 의하면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의 예방적 선타는 성취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장래에 있어서의 기습공격의 양상은 여하한 방위자들에게도 기습에 대항할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러 경우에 방위자는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로 항공기를 비상시키고 유도탄을 최초의 적습정보 입수 직시로 발사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복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코 예방적인 선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 예방적인 선타라는 아이디어와 서방측이 최후의 수단으로써 예방적인 공격을 가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련의 옳지 못한 신념을 결부하여 볼 때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예방적인 선타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의 결정은 다분히 황급하게 수립되는 것으로써 그때 발사될 유도탄의 수는 소수일 것이고 유인항공기(有人航空機)에 의한 일방비행(一方飛行)의 율(率)은 대단히 높을 것이다. 위험한 국제적인 긴장의 시기에 만일 소련의 지도자들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든가 전쟁은 지금 발화점(發火點)에 있다고 결론을 맺게 되면 그들은 이로 인한 희생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하여 예방적인 선타를 가할 것을 명령할 것이지만 이것은 비교적 제한된 군사력이므로 해서 전면적인 예방전쟁과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검토한 것을 간추려 생각해 보면 제3차대전은 국제적인 긴장상태의 변조시(變潮時)에 소련의 오산(誤算)에 의하여 야기(惹起)



될 수 있으며 혹은 소국가의 군사적 충돌시에도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이 많이 내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제1단계 소련군은 거대한 산개대형(散開隊形)으로 동, 서, 남 방향으로 전진한다.

그러면 먼저 제3차대전 시의 소련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현재 핵무기에 의한 전쟁이 발화점에 있거나 혹은 실제로 발발하여 미소 양국과 기타 제국간(諸國間)에 핵공격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전쟁의 초기에 소련의 육·해·공군 작전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먼저 우리는 미국과 소련방 간의 핵무기에 의한 상호공격은 그것이 아무리 심한 것이 될지라도 양 세력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는 없으며 육·해·공군에 의한 전투는 아마도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소련인들의 주장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전쟁의 종말은 양자 중 한쪽이 교전상대국인 다른 한쪽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의 영토를 점령할 때까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소련 군사잡지 Military Thought에서도 인용할 수 있다. 즉 동지(同志)는

“적국의 패멸(敗滅)은 그들 군대의 전멸을 통하여서만 성숙할 수 있다. 다만 적이 저항의 의사를 잃어버릴 때 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저항의 의사는 적군대를 완전히 파멸시킴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사작전의 방향은 적군대의 파괴로 지향되어야 하고 후방지역에 산재하는 전략목표의 파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소련의 Military Herald지(誌)는 1958년 6월호에서 “현대의 제조조건(諸條件)에서 군사적 투쟁의 범위와 그들 군대의 규모는 너무나 거대하므로 전쟁을 단시일내에 끝마칠 가능성은 적다.

심지어 원수폭탄(原水爆彈)의 출현이나 장거리 및 중거리 유도탄으로서도 대규모의 군대를 신속하게 파괴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전쟁의 신속한 종말은 나지 않는다. 사실상으로 이와 같은 대량학살(大量虐殺) 무기의 출현은 전쟁의 신속한 종말보다도 오히려 장기화시킬 초지(礎地)가 된다. 이와 같은 무기의 출현은 여러모로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전쟁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무기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제3차대전 이 야기되는 경우에 전지구 바다와 육지에 확대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소련 지도자들이 정치적 교리에 의하여 이와 같은 논리를 믿게끔 강요당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전적으로 군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만일 2억의 인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소련이 승리할 것이라는 이론을 주입시켜 놓으며 그때 가서 이와 같은 이론을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하룻밤 사이에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시인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사기를 상실한다면 파멸, 붕괴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 최초(最初)의 일격후(一擊後)에 지상전투(地上戰鬪)

간혹 소련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의견을 다만 선전목적(宣傳目的)으로 채택하였을 뿐이며 그들 자신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다고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이 유지하는 군사 시설이나 혹은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서 전쟁은 먼저 핵공격이 있는 다음에도 계속된다는 개념을 강조 받고 있다면 서방진영내의 우리들은 이것을 액면대로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상(敍上)한 바와 같은 이론을 소련이 정식으로 채택한 1954년과 1955년간에 우연히도 소련의 대공방위군(對空防衛軍)의 재조직 기간과 일치하였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소련의 대공포(對空砲), 지대공(地對空) 유도탄 및 요격기대(邀擊機隊)의 일부는 1955년 비류초브가 지휘하는 통합사령부 아래 예속(隸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기관의 설치는 다른 삼군각대(三軍各隊)의 활동이나 혹은 그 밖의 곳에서의 군사 작전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구애됨이 없이 소련영토에서의 핵무기폭발(核武器爆發)이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단독작전(單獨作戰)을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현재 소련 육군과 전술공군(戰術空軍)이 교육받고 있는 훈련방법을 간단히 연구해 보더라도 그들이 장래에 있어서 신속하고 기동적(機動的)인 지상작전을 지향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동독내(東獨內)의 여러 지역에서 소련군의 여러 부대가 실시한 적 있는 제작전훈련을 검토해 보면 전술적인 원자무기(原子武器)의 폭발 뒤에 방사능의 위해(危害)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하에서 기갑부대(機甲部隊)와 자동차로 수송되는 보병들을 탁하(渡河) 시키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만일 전쟁을 일련의 육(陸)·해(海)·공(空)에 걸친 삼면작전을 통하여 아마도 전지구상의 육지와 해면에 파괴될 것이다. 적의 부대를 괴멸함으로써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면 그때는 적의 핵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업 및 인구가 조밀한 밀집 지대가 어떻게 파괴되더라도 소련군 부대만큼은 핵공격에 의한 파괴를

절대로 모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소련군대를 가장 먼 거리의 지방에까지 대규모로 산개(散開)시킴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핵공격을 받은 이후의 소련 영토는 극단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소련의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때를 기(期)하여 방사능 피해 지구로부터 빠져나오는 통로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비록 그 결과가 서구라과(西歐羅巴[서유럽] 내지는 어느 선정된 중동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침투로 발전될지라도 그들은 재래식의 동구라과(東歐羅巴[동유럽] 및 서부소련지구(西部蘇聯地區) 주둔군을 사용할 좋은 시기로 직시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논리를 진행시킨다면 소련군대는 전술적인 원자무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고 서방측의 북대서양동맹 여러 나라에 대한 대규모의 침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일부는 「라인」 강을 도하(渡河)하여 불란서(佛蘭西[프랑스])로 침투하고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로 전진하며 이러한 변란에도 서방측은 북대서양 방위동맹의 여러 나라에 대하여 수소탄을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사용하더라도 다른 준비에 완벽을 기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임시적이지만 소련군은 「NATO」의 여러 나라를 군사 점령 아래에 두게 될 것이다.

### 「NATO」교두보의 점령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요약하자면 핵전쟁의 발발은 동시에 서부 및 남부 구라과(歐羅巴[유럽] 지역에 위치하는 북대서양 방위동맹기구의 교두보를 점령하기 위한 대대적인 침투 작전을 수반할 것이다. 이 작전은 동시에 두 개의 과업 즉 첫째 구라과(歐羅巴[유럽] 교두보 지역에 주둔하는 「NATO」 주동 부대의 괴멸 둘째 소련군 주력부대를 소연방 내부의 핵방사선 집중오염 지구로부터 멀리 격리시켜 안전하게 산개(散開)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비류초브 원수 휘하(元帥麾下)의 방공기구는 핵공격에 의하여 발생된 파괴상으로부터 혹종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군·민간 기구할 것 없이 이 심대한 파괴상을 또 복구하기 위하여 총동원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전략이 비록 논리적으로 정연할지라도 이러한 원칙의 실제적인 응용에는 소연방의 방위 지휘관들로 하여금 후방(병참) 지원 및 군사보안 등을 포함한 실로 광범한 여러 문제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소련 육군이 1957년 이후 후방지원 태세의 완비를 위한 기구를 대대적으로 재조직하여 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소연방의 역사 이래 최초로 이 후방기구가 소련 국방부상(國防副相)의 계급에 속하는 원수급장관(元帥級將官) 즉 바그라미안 원수(元帥)의 지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광범한 군사적 작전상의 경험과 높은 계급을 가진 「바」 원수(元帥)와 같은 지휘관이면 예비적 보급체제의 확립 식량 연료 기타 여러 무기를 원자방사능(原子放射能)이 강화하는 조건하에서 전선으로 수송하는 새로운 혹은 가상적 방법의 창안 그리고 수원(水源)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련군의 일(一) 군관학교의 수령으로 있는 프로츠킨 대장은 군사잡지 Military Thought에 기고한 그의 논문 속에서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현대전에 있어서 광범한 지역에 산개(散開)하여 작전하는 대군을 거대한 양과 종류의 군비를 방해받지 않고 보급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조건에 크게 의존하며 전략적 작전운용적(作戰運用的) 혹은 전술적인 후방지역의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수송문제 즉 전선(前線)을 수송중 혹은 기지보존 중에 보급물자를 멸실로부터 방위하는 문제는 새로운 무기를 대량으로 구사하게 될 장차의 전쟁형태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소련이 이러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경우에 군대 및 보급수송에 있어서 중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 보게 될 소련 민간 항공조직이 최근 새로운 지휘자 즉 소련군 내의 항공작전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로지노브 대장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서방측으로 침투해 오는 소련 육군 및 공군 작전이 취할 전투 방식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작전 상황을 예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련군이 동구라파(東歐羅巴)[동유럽]으로부터 돌파 작전에 성공한 다음 소련군 주력부대가 구라파(歐羅巴)[유럽]에 산개(散開)하여 있는 서방 국가 쪽의 육공군을 파괴하려는 작전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날까지의 개략적인 시일을 예언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어느 누가 전술적 원자무기의 최초의 투하로 인한 효과와 기동성에 관하여 예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필자로서는 소련의 전쟁 계획가들은 (비록 현재 동유럽과 서부 소련지역 주둔군은 어느 범위까지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비록 거대한 손실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NATO」 군을 교두보로부터 구축하고 대서양 연안 지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일단 중심도시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지방에 이미 있는 공산분자들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민간행정기구를 설정하고 전투가 종료하면 그 지역을 떠나더라도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중동 및 극동지역의 전략

그러면 중동 및 극동지역에서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지역에서도 신속히 이동하려는 동기는 마찬가지로 있다. 즉 필요하다면 외국영토를 사용함으로써 작전상의 지상 및 공군부대를 산개(散開)시킨다. 현재 트란스·코카사스 및 터키스탄 군관구(軍管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은 아무런 중대한 저항도 받지 않고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 분산 침투할 수 있으며 전투는 이라크와 시리아로 발전되어 토이기(土耳其)[터키]로 진출할 것인 바 이곳은 서방 측에서 소련 중심부 깊숙이 「IRBM」을 발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향에서의 전투는 소련의 대군 약 30개 사단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그곳에서의 후방지원 문제는 그렇게 복잡할 것이 못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은 완전한 중동 여러 국가를 점령지역의 명단에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풍요한 중동의 일부 지역에 주둔지를 설치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에 처하여 소련이 파키스탄과 인도지역까지 작전 구역을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극동지역에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소련방 내에서 핵폭발하

므로 인한 파괴가 야기되는 때 트란스·바이칼 및 극동군 관구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어느 부대를 만주 혹은 내몽고 지방으로 서서히 이동시키기 위한 모종의 조치에 대하여 소련과 중공 두 정부 간에 어떠한 협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소련은 서방 국가 쪽이 오키나와섬이나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유도탄을 발사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은 특별히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취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지금까지 논술한 바가 모두 동유럽 및 서유럽 진영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 전쟁에 중공은 최초부터 가담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경우에 상당수의 소련군대는 임시적으로나마 중국본토나 외몽고지방에 수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전투행위가 발단된 후 어느 단계에 이르면 소련군은 3개의 대규모 피난 지역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즉 지금 서방 국가 쪽의 「NATO」가 장악하고 있는 서유럽 교두보 중동지역의 일부와 중소(中蘇) 국경 상의 중공 영토 지역 등이 그것이다. 이상 세 방면에 대한 작전의 완성으로 세계대전의 제1단계는 끝나는 셈이며 전쟁의 전략적 이동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제2단계의 소련 전략에는 상당한 미지의 요소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소련방(蘇聯邦), 북미주(北美州), 영국 그밖에 미국의 해외기지의 실제적인 파괴 대전의 제1단계 이후에도 양측 군대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련의 예언의 정확성 혹은 양 교전국이 모두 혹은 그중 일개국이 원자력 혹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것 등이다. 그리고 만일 두 교전국 중 모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재래식 군비에 있어서나 훈련된 인적 자원에 있어서의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NATO」의 교두보를 점령할 때는 소련의 육군 및 전술공군의 최정예부대를 투입할 것이고 또 매우 큰 손실을 받을 것도 당연하며 또 만일 기존하는 「NATO」군이 전면적으로 붕괴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규모로 기동성을 구비한 서구동맹군의 잠재적인 지상군 세력의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명확한 상태에 추가하여 원자력 및 수소무기의 실제적인 효과는 민간인 생활, 음료수 공급, 농지, 폐품의 처리 및 일기예보의 난관 등이 증가될 것이다.

### 제2단계 전세계의 육지 및 해상에서 장기적인 공격 및 반격전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소련의 군사력이 잔존하고 정치적 지도력으로 서방 나라 쪽에 대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또 제1 단계의 전투 시에 소련은 약 100개 사단 병력을 서유럽, 중동 및 북지(중공의 북부) 방면으로 투입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제2단계의 전투는 소련이 과연 서방 나라 쪽의 계속적인 핵무기 공급 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정통한 정보망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받기 전까지는 병력의 보존 문제가 소련 최고사령관의 주목표가 될 것이다. 소련은 그들의 대규모의 지상 및 공군력을 다만 한 개의 목표물 예컨대 영국에 대하여 집중 투입하는





여하(如何)한 전략도 회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의 지도자들이 제1단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방 국가 쪽의 핵무기 저장량에 대하여 확연히 알 수 없는 때에 도버해협을 넘어 영국을 침공하기 위하여 경경(輕輕)히 대량의 병력과 항공기를 이동시키는 모험을 감행하다가는 이러한 병력의 집결처에 대하여 서방측은 일제히 핵무기 공격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련이 서방 쪽 나라의 원자무기 보유량을 파악할 때까지 서유럽 여러 지구에 진출한 소련군은 첫째 서방 쪽 나라 군대의 세력과 전략을 탐지하고 둘째 중립세계를 위협하고 셋째 그들 군대를 기동화시킴으로써 서방측에게 대규모의 공격목표를 제공하는 모험을 덜기 위하여 아마도 북부 혹은 심지어 서부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진출하여 공전의 분산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필자는 또 중동지역의 소련군들도 이와 유사한 작전을 쓸 것으로 믿는다. 말하자면 인도대륙에 대한 대규모의 침공은 없겠지만 그들의 연료와 보급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원거까지 서방측의 전략 탐지와 인근 중립국의 공갈과 그리고 그들 군대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장거리 공지협동(空地協同) 작전으로 원정해 나올 것이다.

<모든 육·해·공에 걸친 전투> 만일 소련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서방측의 원자무기 생산능력이 파괴되었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들은 서유럽 각지에서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리하여 이곳을 기지로 하여 서방측이 보지하고 있는 영토나 전략적 거점에 대한 야심적이고 대규모적인 공격에 착수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투단계는 상당히 오랜 세월, 몇 달에서 몇 년이 갈지도 추측하기 곤란하며 이동한 소련은 서방측이 해상세력

지원을 받아 그들의 잠수함대에 대한 장거리 탐색, 폭격에 나올 것을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련이 어느 지정된 전략적 지역이 이때 서방측의 전체적인 작전 계획상의 이익을 위하여 적(서방측)국에게 이양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와 같은 지역을 영구적으로 점령하고 그들의 전쟁 노력에 일조가 되게끔 공산주의 노선에 따라 이 지역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투지역을 일별(一瞥)하면 소련은 서유럽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에 거점을 갖고 태평양 대서양과 북미대륙의 일부 지역에 기지를 둔 서방측과 대항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일 제1단계 이후에 소련은 서방측에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핵무기가 있음을 궁지(窮知)하였을 때 그리고 만일 서방측 공군이 소련이 강점하고 있는 서유럽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수소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신속히 그리고 의외로 크게 산개(散開)할 것이다. 이때 그들은 서유럽과 북서 아프리카로 분산 침투하려고 기도할 것이며 이것은 그 지역의 점령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 세력이 최후적으로 몰락되고 병력과 사기가 저하될 때까지 그들 군대의 주력부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제2단계 이후에도 양측이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있고 더욱이나 양측이 모두 원자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다시 생각해 본다. 필자는 이런 때에 소련은 방위적인 경찰방범을 취하면서 서방측의 전술을 탐지하기 위하여 서방측이 소련 점령하에 있는 구라과 아프리카 혹은 중동 제지역에 대한 반격으로 나올 때까지 관망상태로 대기할 것이다. 그리하여 서방측의 병력집결이 발전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소련군 측도 역집결(逆集結)을 함으로써 핵무기에 의한 공격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자마자 신속하게 광범한 지역으로 산개(散開)할 것이며 서방측의 집결은 하나의 미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필자가 보는 바로는 다음은 제2단계에서의 몇 년에 걸친 전투의 양상이다. 즉 양측이 그들의 전 지상 및 해상 부대를 모조리 사용하는 일련의 기동작전을 전개하여 보급과 연료를 동시에 수송하고 적을 탐색하며 어디든지 가능하면 손해를 줄 것이나 핵폭격의 목표가 될지도 모르는 집결을 극도로 회피한다. 이와 같은 신속한 합동작전에 관련하여 소련 최고사령부가 추측하는 양태를 소련의 군사잡지 Military Thought에서 인용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공격전략의 형태의 성격은 주야간에 걸쳐 가장 복잡한 조건하에서 정면공격과 반공격·공정대(空挺隊)를 가진 독립적인 공해작전과 바다로부터의 상륙작전·신속한 조건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하에 해안선을 따라 부대를 움직이는 것, 짧은 시일 내에 합동작전을 수행한다는 것들로 분석할 수 있다.

더욱이나 지구의 전 표면의 지상 및 해상에 걸쳐 전개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소련의 전쟁관을 분석하여 볼 때 소련은 3차대전에서 아프리카·인도·파키스탄 등지에 대한 공격전뿐만 아니라 그린란드·북부 캐나다 혹은 신생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견제적 공격도 시도할 것은 명백하며 소련의 최고사령부도 역시 그들 영토의 중심부나 변두리 지역에서 서방측의 공격에 직면할 것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 제3단계 전쟁은 양자 공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한 나라가 지배자로 군림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최후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전쟁은 성공적인 종말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소련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보더라도 필자는 이러한 종말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유라시안 대륙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혹은 인도대륙이나 심지어는 북극 지대까지도 소수군(小數群)으로 분산되어 있는 소련측의 육해·공군부대를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대서양이나 태평양 위를 부유하는 소련의 잠수함 세력을 예측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이 점령한 영토 내에서 그들의 전쟁 노력에 수용하게 하며 또한 파괴된 소련 영토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노선을 따라 그곳의 인민과 자원을 정비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소련 지도층은 많은 곤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필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련 전략가들이 장기간 정체된 산개작전을 중국적으로 전쟁을 종말로 이끌게 함에 있어 일방 혹은 상대방에 유리하도록 어떠한 형태의 결정적인 각도의 우월권을 갖게 하도록 이끌어 전쟁은 끝나되 현시에 있어는 우리들이나 소련방에게 알 수 없는 어떠한 요인의 혼합에 의하여 끝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적으로 말하면 제2단계의 종말에 가면 이미 지구의 전 표면에서 다시 논할 여지 없을 지배권을 확립함으로써 적의 수중에 없는 모든 중요자원을 불인하게 하는 데 충분케 되어 이로 인한 패자는 모든 전투행위가 종식될 때까지 더욱 더욱 허약하게 될 것을 양측이 모두 원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소련 방위지도자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예언한 바와 같이 전쟁을 승리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결말이라도 맺을 만한 신빙할만한 증거를 소련측으로부터 입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논문을 통하여 소련의 전쟁에 관한 고리를 어떤 형태의 실제적인 전략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련과 서방 진영이 발발된 벽두(僻頭)부터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 관하여 고려하여왔다. 그러나 이밖에도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바 필자의 소견으로서는 소련이 이것을 들으면 대경할 지도 모른다. 무엇인가 하면 북경정권 측의 누진적인 오만과 도발행위로 인하여 중공과 미국 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이 미·중공(中共) 간에 발발하면 태평양 지역에 거점을 둔 미국의 기지에 대하여 소련으로 하여금 핵무기 공격을 감행케 하기 위하여 중공·소련 간의 군사협정을 불러 일으킬 것인 바 이렇게 되면 미국 본토의 서부 연안도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모스크바 정권은 보복공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토의 파괴까지 일으킬 예방전쟁과 중공을 원조하거나

혹은 그들 간의 조약상의 의무를 거부하기 위한 견제 작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년 전 말하자면 1958년 가을 중공(中共)이 국부측(國府側)이 점령하고 있는 본토 연안 도서를 포격함으로써 조성된 사태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의 가능성을 목도하였다. 당시 소련의 후루시체프 수상의 반응은 실로 극적인 것이었다. 후루시체프 수상은 자기가 집권한 이래로 가장 난폭하고 도전적인 외교각서를 미국에 전달하였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이것을 일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소련은 미·중공 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이것으로부터 발생될 위에 말한 바와 같은 딜레마를 면하며 한편으로는 북경정권을 견제함과 동시에 서방측으로 하여금 소련이 중공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방향과 방법의 위협과 공갈을 퍼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러한 사태가 발전되었다면 필자의 소견으로서는 소련은 오히려 타협안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중공의 침략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북경정권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방법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추측컨대 그들은 이러한 수단으로 특히 잠수함을 포함한 소련의 태평양 함대의 일부를 중공에게 대여하거나 중공으로 하여금 소련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방측이 대소전(對蘇戰)까지 유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중공(對中共) 작전을 중지하느냐 중에 양자택일케 하여 도리어 미국측에게 딜레마를 강요하였을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특히 만일 미국이 원자 혹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산개전술까지 응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때면 후자의 경우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중공군의 가장 우수한 공군 및 육군의 4분의1 정도의 병력을 소련 영토 아마도 트란스·바이칼 지대로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중공이 설사 미국과의 전쟁을 결심하였다 고 하더라도 중공이 소련의 승낙을 받지 못하는 한 허다한 난관에 봉착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이나 중공 내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영향력은 상상외로 크기 때문에 만일 소련이 전쟁을 원하는 때에는 원불원간(願不願間)에 중공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공을 전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방지시키지는 못할지 모르나 적어도 전쟁의 방향과 기간에 관한 한 지배할 수 있을 것이고 소련의 이익에 필요하면 그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제한전쟁

모스크바 정권으로서는 낱아빠진 전쟁양식이지만 중공에게는 흥미있는 것의 하나다. 이것으로 이 논문의 최후인 제한전쟁에 관하여 몇 마디 적어보자. 필자는 이 제한전쟁이란 모스크바 정권에게는 이미 낱아빠진 술법이지만 북경정권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스크바의 명령에 의하여 이것은 한국에서 1950년 한번 시험된 바 있었지만 적어도 모스크바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진 수단과 방법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다만 대한민국을

공산진영으로 끌어 들어오는 것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또한 공산위성국(共產衛星國) 군대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시범한 하나의 좋은 실례가 되었으며 이어 또 하나의 실례는 헝가리 공산군대가 혁명분자들에게 가담한 1956년의 예를 들 수 있다. 경험에 의하여 소련은 대리에 의한 제한전쟁은 최후의 승리를 확약받을 기회가 적고 군대는 정치적으로 성실치 못하여 또 우수한 무기에만 의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나 만일 패배하는 경우에는 이들 군대는 분해되어 버리며 현재는 공산 치하에 있지만 영토마저 서방측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소련군에 의하여 초래된 여하한 제한전쟁이라도 궁극적으로 전면전쟁을 유발할 것은 명백하며 이것은 소련인 자신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 제한전쟁의 가능성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소련국경선을 한번 보면 소련이 참가한 제한전쟁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서부로 보면 노르웨이·독일·그리스 혹은 터키에 대한 여하한 공격도 즉각적으로 「NATO」의 참전을 유발케 하며 이란에 대한 공격은 「CENTO」(중동방위동맹)와 핵무기보유국인 영국의 참전을 유발하게 되며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길을 횡단할 목적이 아닌 이상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아무런 의의가 없을뿐더러 또한 「CENTO」의 참전 구실이 된다. 한편 극동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경선이 중공과 접하여 있다. 그러므로 소련에 의한 제한전쟁은 극히 드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랍 세계나 이란·인도·파키스탄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선동하여 과거 말레이에서 한 것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지휘하에서 내란을 일으키도록 유혹하는 수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따위의 수법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소련에게 아련 위해도 끼치지 않고 서방측에게는 매우 큰 손해가 되도록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전 세계적인 전략 및 내지 전술에 관한 한 이러한 수법은 소련의 전쟁전략의 본류가 아니다.

한편 제한전쟁에 관한 한 중공에게는 많은 흥밋거리가 되고 있다. 모스크바보다 중공정권이 이것을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소련과 비교해 볼 때 중공은 한국전쟁에서 얻은 바가 많으며 맹공산정권(越盟共產政權)에 대한 원조의 경험은 다른 경우에 예컨대 라오스·캄보디아 혹은 과거의 인도차이나 전쟁을 제한전쟁으로써 승인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중공은 대만해협에서의 제한전쟁을 공언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이와 같은 수법을 1959년에 사용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본다면 중공이 군사적으로는 역시 소련의 제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나 중공이 전투행위를 감행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승인을 받는 것까지는 볼 수 없으며 중공이 때로는 소련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전쟁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스탈린 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는 추세로써 후루시체프 역시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다.

### 결론

이상 말해 온 바를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자신의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소련은 미국세력에 대항하는 전면적인 세계대전을 계수상(計數上)에 포함한 여하한 행동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른바 자본주의자들의 자연적인 멸망의 시대가 되는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공산주의 진영에 항복하기 위한 소극적인 전쟁을 자본주의 측에서 유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원인으로 그들의 독단적인 교리의 착오에 기인한 가공할 만한 오산으로 전쟁은 현실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격렬하고 장기적이며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소련은 믿고 있다.

핵무기에 의한 파멸이 아니라 전쟁은 적의 군대를 멸살시킴으로써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 만큼 이상에서 말한 전쟁의 여러 단계에서 병력을 멸실시키지 않도록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또한 적국 혹은 중립국의 신속한 점령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하에 소련은 그들의 군대를 보호하며 결실되지 않은 어느 최종 단계의 전쟁을 위한 육·해·공 삼면에 걸친 모종의 작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소련의 「군사적 산개의 논리」를 표면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방위 및 역공격에 관한 상황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이인섭(李仁燮) 역〉

### 〈36항에서 계속〉

또한 이것은 UN의 개편이 UN의 현상타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UN의 현상타파는 미국의 기반을 약체화시키자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군축문제란 것은 개념상으로는 세계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대국 간의 문제이므로 금년 6월 27일 제네바 동서 10개국 군축 위원회에서 공산 측이 퇴장 전술을 감행한 이래 소련으로서는 각별한 적극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소국이 많이 집합한 자리에서 제일급적의 문제로 내세워야 하는 것은 역시 미국규탄이라든가, 식민지 전폐안(全廢案)이라든가 또는 개편 문제를 가지고 폭탄적인 선언으로서 선동 전술을 감행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일이라고 타산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면 소련은 또다시 군축문제와 독일 및 백림문제(伯林問題)를 가지고 강압적인 공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UN총회에서의 소련 및 폴란드의 거동을 볼 것 같으면 내년 4월 1일 전으로 군축문제의 협정을 보지 못한다면 즉시 UN 특별총회를 열어 이 문제의 토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후루시체프는 독일 및 백림문제를 명년 봄에는 꼭 해결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년 4월은 또 한번 자유세계로 하여금 중압적 시련을 갖게 할는지 모른다.

〈필자·시사평론가〉

---

〈시(詩)〉

## 천마(天馬)

김종문(金宗文)

만년을 울타리 없는 하늘을 달린다.  
흐르는 시간으로 이름을 씻는 인간의 시선을 모으며  
지상의 온갖 보배보다 희고 아름다운 공간의 곡선,

보다 높은 사랑의 결정,  
보다 힘찬 자세.  
번개를 만나도 폭풍이 일어와도 달린다.  
여사(旅舍) 없는 불굴의 뉘.  
흐르는 시간 속에 이름을 잇는,  
인간의 변화가 투명해지는 조용한 날씨에  
제2의 언어로써 거리없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오늘도 달린다.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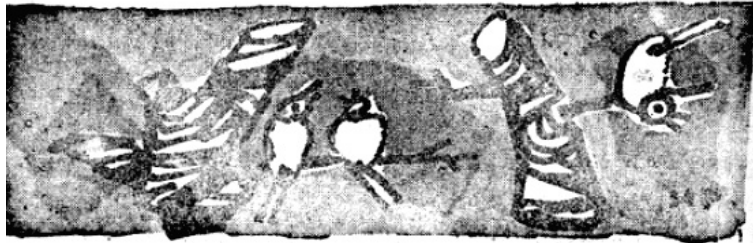
언제나 아침의 나라에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글(送舊迎新頌)—

정공채(鄭孔采)

1

남자들은 여자들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수목조차 팔이 분질러지던 전쟁의 날에  
모두들 청춘을 등지고 그리로 간 것입니다.  
다른나라 같으면 그 청춘들은 꽃으로 피었을 겁니다.  
나비가 뜨고 하늘로부터 따스한 태양이 땅위로……  
그리하여 그들은 그 풍부속에서 인생을 즐겼을 겁니다.



누군들 왜 놀줄을 몰랐겠습니까?  
신의 말씀대로 백년의 열차를 타고  
왜 한 사람의 남아있는 여자를 사랑할 줄 몰랐겠습니까?  
가난한 조국의 물과 쌀을 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거리로 나가고  
남자는 충을 매만지며 달빛 아래서 잠을 자고 태양 아래서 작열해야 했습니다.

2

정신 나간 늙은 태양이  
우리들의 하늘 위에서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던  
늙은 여름날의 세대 1960년의 4월까지

꽃과 같이 사랑하고 아름다워야 할 청춘들은 기막히게도 순간 순간  
꽃잎이 지듯 죽어갔노라. 죽어 갔노라.

생각하면 지나간 날 앓았던 이조(李朝) 때문에  
호랑이의 기개가 우왕거렸던 이 땅이  
이조 때문에 일본에게 토끼의 나라가 되고 말았노라.  
그리고 백성들은 36년이 지난 다음

모두들 하늘 위로 새로운 기를 올린 것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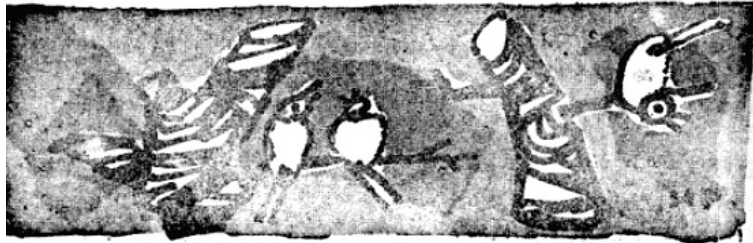
잘못, 그만 늙은 태양을 잔인하게 올렸노라.

그러나 기적과도 같이 사람들은 모두들  
혁명의 이름으로 일제히 거리에서 밀려들 갔노라.  
하늘에서는 그 정신 나간 늙은 태양이 떨어지고……

3

우리들은 혁명의 핏빛 싱그러운 아들을 하늘에 올리고  
젊고 새로운 태양 아래  
기억의 1960년을 조용히 가게 하고  
빛날 1961년의 아침해를 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신이여  
당신께서는 하늘에 올을 새로운 이 젊은 태양에게,  
“지금 너가 뜨는 하늘은, 너가 빛낼 땅은  
세계의 실력 때문에 죄 없는 청춘들이  
실로 무수히 저 이름없는 들꽃과도 같이  
저무는 날 소리도 없이 죽어 간 땅이었노라고”  
신이여, 젊은 당신의 아들 태양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태양의 겨드랑 속에 나래를 주소서.  
그 이름은 자유와



---

또 하나는 평화와

다시 남은 하나는 풍부예의 부강한 나라를 주어  
저 눈을 아직도 못 뜨고 있는 잡초 우거진 휴전선 위로  
다시 종이 울리게 하소서.

자유로운 아침 안개 속에서  
젊은 태양이 평화롭게 빛나 오를 때  
아아, 이 땅 사람에게 마음놓고 논밭을 갈게 하소서.

새해가 뜨는 이 아침  
신이여, 우리들은 그 풍부한 땅 위의 축복을  
당신에게 아낌없이 바칠 것입니다.

언제나 아침의 나라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아침의 나라에서 웃으면서,  
언제나 아침의 나라에서 자유의 잔을 마시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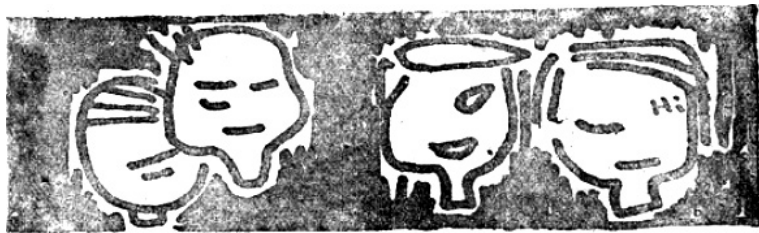


〈시(詩)〉

## 통한(痛恨)

채규철(蔡奎哲)

구차이 이 삶을 지탱해 감은  
기약없이 헤어진 여인을  
다시 만나고자 함만이 아니외다  
피로 물든 조국땅  
패말없는 용사의 무덤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함이외다.



한자루 붓을 꺾어던지고  
한사코 녹슨 칼을 쓸고 있음은  
원수를 치고자 함만이 아니외다

이름없이 쓰러져 간 겨레의  
서릿발 같은 대의를  
날선 칼 위에 삭이고자 함이외다.

실낱같은 내일에 희망을 부침은  
반길 이 없는 북녘 옛 마을을  
못 잊어 함만이 아니외다

화랑도 밝힌 길로  
삼천 마을 골고루 다질 길을  
가슴 읊조려 보고자 함이외다.



〈시(詩)〉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送舊迎新)

주명영(朱命永)

보이지 않는 바람들이  
기를 쓰며 늙은 산과 험은 지붕들을 넘어서다,  
전방의 기수처럼  
시간의 뚝뚝어 죽어 가던 거기.

치리리 묵은 손들이



그제는 애타게 여윈 가지를 흔들다  
덧없이 후방의 노을처럼  
젊은 것들 등 너머로 살아지던 거기.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들 저무는 수역에서  
젊은 손을 잡고 맞바람을 부르는……

오, 지금 여기서는,  
늙은 것들 가슴에서  
젊은 것들이 보채짖는다.





## 미군사력(美軍事力)의 전망

-앞으로 수년이 미국의 위기-

US뉴—쓰 & 월드·리포—트지(誌)에서

박병화(朴秉和) 초역(抄譯)

미국은 소련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소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군 수뇌자들이 앞으로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리라고 예견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연 소련은 미국의 방위망을 뚫고 공격할 방편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은 기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저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미국은 현 보유무기로써 소련의 방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가? 소련이 미사일에 대하여 호언하고 있는 그 내막에는 뭣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미 공군참모총장 토마스D·화이트 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 화이트

장군님, 1961년에서 1963년까지가 미국에게는 위기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뭣입니까?

(답) 나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는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적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사일 경보망을 갖지 못하리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63년까지에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망(BMEWS)이 그린랜드·알래스카, 그리고 영국에서 완전히 운용되기를 우리

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활발한 대탄도「미사일」경보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특히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생각할 때 몹시 근심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963년까지가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소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망은 꽤 훌륭하긴 합니다만 100%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보망이 없다는 사실은 근심스러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 오늘날 미국이 또 하나의 진주만 기습공격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 우리는 적이 지금 당장은 그리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적이 그러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저지할 아무런 방편도 없는 것입니다. 적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적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즉 적이 비록 기습공격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힘이 우세하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적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문) 이 제지력은 얼마나 지속하겠습니까?

(답) 글썽하시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자유 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그것은 적의 군사력과 그리고 적이 우리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문) 미국의 조기 경보망은 무엇에 의지하는 것입니까?

(답) 거대한 레이더—그 안테나가 축구장만큼 큰 레이더에 의지합니다.

(문) 그런 레이더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스크프에 반점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정말 공격해오는 미사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답)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레이더들을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15분 내지 20분 전에 경보를 발할 수 있을 만큼 미리 탐지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레이더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 그런 정도의 경보도 충분하겠습니까? 15분 이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글썽하시다. 우리는 현재 전략공군(SAC)의 약 3분의 1을 지상에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단추만 누르면 15분 이내에 SAC의 약 3분의 1이 출격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문) 이들 폭격기는 무장하고 있습니까?

(답) 그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대기한다는 것을 무의미한 일입니다. 폭격기들은 이륙하여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극 지휘방식(positive control system)하에서 그들은 어느 일정한 공점에 도달했을 때 계속 비행하라는 특별지시가 없으면 귀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이 방식을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 항상하고 있습니다. SAC의 전 부대가 일시에 출동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령이 내린 후 15분 이내에 출격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SAC의 각 부대는 매일같이 어느 정도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문) 지난 파리정상회담 때에 토마스·S·게이스 국방장관이 경계를 내렸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답) 그것은 통신에 환경경계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로 통신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우리 군대의 경계정보망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 그래 그 정보망은 효과 있게 작용했습니까?

(답) 네 물론이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받기 전에 출격하기를 바라다면 이들 정보망은 당연히 작용해야지요. 그 누가 우리는 전 쟁상태에 돌입하였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망(BMEWS)이 적의 공격을 포착한 후 15분 내에 각 전투부대에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데 우리는 15분의 여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 국회가 전쟁상태에 돌입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겠군요?

(답) 안되지요, 물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문) 명령은 누가 내려야 합니까?

(답) 대통령입니다.

(문) 소련은 미사일을 더욱더 급속도로 생산하고 있는지요, 혹은 그것을 누가 아는 이가 있는지요?

(답) 소련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한 생산율은 알 수 없습니다.

(문) 소련은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수개월이나 수년 내에 수백개를 보유하게 되겠습니까?

(답) 우리는 곧 수백개를 보유하게 됩니다. 소련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문) 장거리 미사일 말씀입니까?

(답) 장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합쳐서 말입니다.

(문) 소련은 일찍이 약 450대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약 150대로 감소시켰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 그 숫자는 중폭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소련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약 1,200대의 폭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그중 장거리폭격기는 얼마나 됩니까?

(답) 100대 내지 200대는 우리의 B-52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B-47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 소련은 보다 우수한 형을 발전시키고 있는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항공기는 일종 이상 있습니다. 소련은 또한 하운드·독(Hound Dog)과 같은 공대지미사일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볼트(Skybolt)에 비교할 만한 것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소련은 기술이 허용하는 한 무슨 일이든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문) 스카이볼트란 뭇이지요?

(답) 스카이볼트는 비행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현재 발전중에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문) 그 사정(射程)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 1,000마일입니다.

(문) 정확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 매우 정확할 것입니다.

(문) 하운드·독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답) 하운드·독은 스카이볼트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정이 400 내지 500마일이라는 짧은 것이고 공기를 흡입하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문) 그럼 2차대전 때와 같이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따라서 장거리전투요격기가 활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 우리는 장거리요격기를 필요로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장비한 폭격기에 대해서 아무런 방위책도 없는 것입니다.

(문) 장거리요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발전시키고 있는지요?

(답) 우리는 F-108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산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만약 적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급속도로 장거리요격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 미국의 방공태세는 완벽한가?

(문) 소련의 재래식폭격기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침투해 올 수 있을까요?

(답) 그 중 일부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손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폭격기의 대부분이 할 수 있듯이 소련폭격기의 일부도 확실히 침투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어째서 그런 차이가 생깁니까?

(답) 그건 우리의 방공망이 더욱 우수하고 폭격기도 더욱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특별히 목표에 침투하는 것을 돕도록 되어 있는 그밖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퀘일(Quail)미사일은 사실상 소형비행기인 것입니다. B-52는 이것을 여러 개 장비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적을 피어내는 미끼로서 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항공기 안에 광범위한 전자방해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문) 소련도 그러한 방해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답)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방해에는 상당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SAC와 방공군(Air Defense Command)에 의한 연습성과로 보아 우리는 우리의 장비가 효과 있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안해 낸 기술이 소련에 대하여 성공적이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능히 소련 영공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소련은 미국의 B-70폭격기에 비교할 만한 것을 발전시키고 있는지요?

(답) 내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와 꼭 같은 것은 말입니다.

(문) B-70의 특성은 뭇입니까?

(답) B-70은 초고속도폭격기입니다.

고도 7만 피트에서 시속 약 2,000마일로 항속하게 될 것입니다.

(문) 그건 실현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문) 그럼 현재 그 폭격기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답) 우리는 두 대의 원형 즉 기체와 엔진을 갖게 될 동발전계획(同發展計劃)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B-70을 하나의 무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같은 기기에 장치해야 하는 몇 가지 부수 장비에 대한 발전계획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문) 미사일을 보유하면서도 B-70이 필요한 이유는 뭣입니까?

(답) 그건 간선(干先)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인간조종 항공기는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인간조종 항공기는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미사일과 항공기는 각기 우리의 군사력에 보충적인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 궤변이 나와 있지만 미사일이 행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대부분이 즉석에서 제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편 폭격기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에는 힘을 과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폭격기는 현재의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폭격기는 다수의 폭탄을—미사일의 그 어느 탄두보다도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폭격기를 출격시켰다가도 만약 그 정보가 착오에서 밝혀졌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폭격기를 소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폭격기대의 일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B-70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항공기는 항공학에 있어서의 큰 발달을 대표하는 것이며 또한 나의 견해로는 우리나라가 항공술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현재의 B-52가 B-29처럼 구식 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대신에 가장 현대적인 폭격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B-70이 바로 그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B-70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 폭격기가 더 정확합니까?

(답) 오늘날 우리의 미사일은 대단히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폭격기가 더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격기는 훨씬 더 위력이 강한 폭탄을 운반할 수 있으므로 미사일로는 할 수 없는 목표를 분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몹시 견고한 목표를 완전히 분쇄하려면 많은 미사일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한 양의 폭탄을 실은 폭격기 한 대만으로도 그 목표는 능히 분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한 대의 B-70이 여러 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몇 개의 핵무기를 적재할 테니까요.

(문) 적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 목표의 위치를 모조리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부단히 계속되는 군사 문제입니다. 글썽글썽하다. 적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는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중 일부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으며 또한 그 대부분이 어디 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문)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더욱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곤란해질 게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더욱 곤란해질 것입니다.

(문) 그래도 여전히 자신 있으십니까?

(답)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지요. 난 우리가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 B-70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언제쯤입니까?

(답) 1965년 말이나 1966년 초에는 실전부대로서 최초의 B-70 대대가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그때쯤 최초의 B-70 대대를 갖게 된단 말씀입니까?

(답) 대대편성을 위해서 그것을 생산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연구발전 계획이 있을 따름입니다.

### 우주의 군사적 가치

(문) 현재 준비되어 있는 미국의 미사일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 특히 그 수량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금년 봄에 국회에 출석했을 때 나는 애틀라스가 실전용화(實戰用化)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사일의 수도 현재 더욱 증가되었고 또 증가되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이 약간 지연되어 왔지만 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어떤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보다도 비교적 더 정확하고 또 어떤 미사일은 견고한 목표가 아니라 약한 목표를 위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탄두가 작을수록 미사일은 덜 정확합니다. 미사일이 작은 목표를 공격하게 될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모든 목표 가운데 도시가 가장 공격하기 쉽습니다.—도시를 군사목표로 생각하긴 싫습니다만……. 그러나 도시는 비행장보다도 분쇄하기 쉽고 또 비행장은 100개의 미사일 기지보다도 분쇄하기 쉬운 것입니다.

(문) 앞서 스키야볼트와 B-70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밖에 공군이 앞으로의 신무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 예컨대 우리는 핵추진항공기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의 항공기는 정말 무제한한 체공력(滯空力)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키야볼트의 이상적인 발사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련 국경 훨씬 밖에서라도 이 미사일로 매우 중요한 목표를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공중경계작전을 위해서도 이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지극히 적은 비용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보다 유망한 발달된 연구의 하나는 다이나·소어입니다. 우주에의 진출을 위한 중요한 일보이지요 이것은 날개를 달고 궤도를 따라 돌 수 있는 날뜰입니다.

인간이 탑승하는 비행기와 위성을 겸한 것 같은 이 날들은 초음속으로 날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매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문) 신형요격기나 전투기로서 앞으로 출현할 것이 있는지요?

(답) 우리 공군으로서는 현재 건조중(建造中)에 있는 보다 더 진보된 요격기는 없습니다. F-108이 있었지만 취소되었습니다.

(문) U-2기를 요격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답) 초고도비행을 위해서 건조된 정찰기에는 전투요격기가 가져야 하는 각 장비를 갖추기 위한 힘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 X-15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그 목적은 단순히 대기의 상층부 한계를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문) 군사적 용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답) 직접 군사적 용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 공군은 군사적 見地(견지)에서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답) 네,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답) 우리는 우주를 대기권의 연속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권과 우주를 분리하는 뚜렷한 경계선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어떤 군사적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법에 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면 우주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지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모스 정찰위성은 최소한도 당분간 비행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우스터의 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적외선 탐지 경보장치 미다스는 그 시야 내의 어느 곳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문) 그것이 이를테면 이륙하는 수송기가 아니라 미사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그건 실제 테스트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전자 관측기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명백히 식별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 미·소의 군사력 비교

(문) 달나라에 갈 계획은 있습니까?

(답) 인간은 결국 달나라에 가게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만약 내가 평균수명을 산다면 인간이 달나라에 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화이트 장군님, 세계의 군사력 평형은 여전히 우리 측이 우세합니까?

(답) 여전히 우리 측이 우세합니다.

(문) 우리 측이 크게 우세합니까?

(답) 전보다는 덜 우세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앞으로 3-4년 안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아마 우리보다도 소련에 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공산 진영은 우리보다도 더 군비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답)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동요를 야기하는 일 없이 우리보다 더 주력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치형태 하에서는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한 가지의 무기를 위해서 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민에게 낮은 생활 수준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 그들의 진도는 우리보다 빠릅니까?

(답) 어느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어느 분야에서 말입니까?

(답) 무기의 분야를 나는 생각합니다.—이를테면 원자무기 말입니다. 나는 소련의 군사력에 대해서보다도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비교하려면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항공모함과 폴라리스 유도탄을 장비한 잠수함이 있는 거대한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이러한 주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시키고 있는 징조는 없습니다.

소련은 우리의 것에 비교할 수 있는 폭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B-58에 해당하는 것을 생산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초음속폭격기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핵실험을 해왔으므로 그들이 각종의 폭발력을 가진 상당히 많은 원자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주의 분야에서는 그들이 일부 매우 중요한 첫째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크게 신뢰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노력은 소련의 노력보다 더 의의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그들의 득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일부 분야에서 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소련이 기간 중에도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련정부와 소련제도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 우리는 만약 테스트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병기창(兵器廠)을 개량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이건 순전히 군사적 견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중지하면 진전의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테스트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취한 일에 자신을 갖게 할 만큼 충분한 노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소련은 미국의 방위력에 큰 감명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언하고 있는 것인지요?

(답)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품위를 떨 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그저 큰 소리만 치면서 말입니다.

(문) 소련은 미국이 2등국가이고

자기네가 세계의 영도국이라는 인상을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답) 문제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를테면 후르시초프는 “폭격기는 이미 질 품화(疾品化)했다. 소련은 폭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이 계속해서 폭격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련이 거대한 폭격기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폭격기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볼 수 있는 한 실례인 것입니다.

(문) 소련이 호연하고 있는 것은 실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일부분은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다면 좀 다르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럴 시기가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까닭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 중공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답) 나는 위대한 박물학자의 손자 찰스·다윈 경이 쓴 「백만년 후의 세계」(The Next Million Years)라는 재미있는 책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말하기를 인구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요인이라고 하고, 다른 민족보다도 계속해서 급속도로 인구가 팽창하는 민족이 결국에는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기술적인 면에서 과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소련이라는 일등기술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중공은 언제고 미국은 물론 소련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유사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1854년에 그 쇠국주의에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세계로부터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후에는 1904년의 대마해협 해전에서 당시의 일등국가 러시아를 패배시켰습니다.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기술적 원조없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후 50년도 못가서 일본은 다시 또 하나의 일등국가를 패배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의미심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면에서도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중공은 또한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그들은 일등기술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년 내에 중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전체적으로 말해서 미국민은 공군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답) 현재 같으면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말한다면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민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사실을 지적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민이 이와 같은 여러 문제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는다면 현재처럼 우리가 앞으로 소련보다 훨씬 앞서도록 하기 위하여 올바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 앞으로 우리의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지금 무슨 특별한 것을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노력의 큰 부분을 군사적으로 소련에 대항하는 데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느냐는 그때 그때 미국에 가해지는 소련의 위협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협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살살이 스며들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위협을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우리의 주의를 딴 곳에 쏠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본핵심문제 즉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세계정복에 있다는 것에서 동요시키려 하는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어떠한 수단 방법을 쓰던 간에 그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경계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공군장병에게 보내는 글〉

R파일럿 오빠에게

박해옥(朴海玉)

하늘을 날으는 공군 아저씨에게 위문편지를 써달라는 원고 청탁이 우리 학보사에 왔잖아요.

한 친구가 써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제 차례가 됐어요. 오빠가 파일럿으로 계시다는 것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인가 봐요. 그리고 보면 제게도 실상 비행기를 타시는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흔히 친구들은 오빠가 파일럿이라서 얼마나 멋이 있느냐고 해요. 저두 역시 오빠가 저 푸른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데 무척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남이 쉽게 따를 수 없는 그리고 남이 쉽게 할 수 없는 멋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탄다는 데 말이예요. 화창한 하늘에 비행기가 떠가면 웬지 꼭 오빠가 났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곤 까닭없이 즐거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상 자랑스럽게만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일간신문에 또 어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지 어떤 비행사가 불시착을 했는지 하고 보도되는 날엔 정말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의 전쟁 영화—파일럿이 나오는 전쟁 영화를 저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파일럿 네 명이 모두 장렬하게 목숨 지우면서 어떤 고지를 탈환하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좀 더 남보다 죽음에의 모험을 느낄 수 있다는 데에 그리고 좀 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데에 파일럿이란 이름이 귀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또 재작년 오빠의 친구가—사관학교 시절의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비행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의 오빠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오빠는 며칠을 두고서 슬픈 표정으로 계셨지요. 저두 정말 가슴이 짝 막히도록 기가 찼었어요. 엄만 또 어땠는데요. 한번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하는 정경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비행기란 걸만 들어서 하늘에 띄게 했느냐고 그저 오빠가 비행기만은 타지 말라고 노상 말씀이 그것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군은 오빠가 지원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예요? 오빠 말씀대로 사람의 운이란 게 저마다 지워져 있고 또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길목이 비좁도록 나다니는 자동차 운전수 보담은 충돌할 염려가 없어 안전하다는—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오빠가 저는 그냥 미더워서 좋아요.

오빠, 그러니까 우린 좀 더 알뜰하게

살아가야 하잖겠어요. 살아가는 보람을 좀 더 뿌듯이 느끼면서요.

오빠하고 같은 부대에 계시다는 L중위님 보세요. 얼마 전에 약혼하셨다는 그분은 얼마나 즐겁게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파일럿이기에도 좀 더 멋있는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저는 오빠가 가끔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실 땐 웬지 미안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느 땐 모든 게 맘에 드시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뭐. 그렇지만 좀 더 참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직무에 충실하시고 생활에 성실을 기울인다면 보다 밝은 내일이 오지 않겠어요.

어서 손자 높을 보고서야 눈을 감아도 감기겠다는 엄마 말씀을 오빠도 기억하고 계시죠.

좀 더 의욕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자랑스런 오빠가 되어 주세요.

오늘은 하늘이 몹시도 흐리군요. 이런 날은 하늘이 비행 연습을 못하신다지요. 오빠의 비행시간이 어서 한 결실을 맺기 바라면서 이만 쓰겠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2년)

## 〈공군 장병에게 보내는 글〉

혜성의 용사들께



송영치(宋英治)

크리스마스가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가랑잎 소리에도 가슴을 두근거리리는 소녀의 계절은 지나고 눈보라와 혹한으로 으르렁거리리는 동장군이 제2공화국의 진통 속에 잊지 않고 찾아들었습니다.

푸른 제복의 용사들이시여!

전 민족이 갈구하는 남북통일은 아직도 아득한 채 약소민족의 분함과 서러움을 아직도 다 씻어 버리지 못한 채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제가 열 살 때 터졌던 삼팔선은 지금 제 나이 스물이 되었지만 엉거주춤한 채 더욱 굳어져 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있지만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노리는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 가는 채 변한 게 없군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삼학년 대학입시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히 기뻐합니다. 저는 장래 경제학자가 되려 합니다. 또 문학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렁찬 폭음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갔는가 하면 어느새 산 너머로 사라지는 은기(銀機)를 바라볼 때면 내가 몸만 튼튼하다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저 대공(大空)을 치달리는 것 또한 남아가 해볼 만한 일이라고

## <공군 장병에게 보내는 글>

멋을 아는 공군 장병들께

한혜인



생각하곤 합니다. 다른 군인과는 달라 휴전이건 열전(熱戰)이건 한번 비행기가 오르면 언제나 생명을 노리는 위협과 싸워야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또한 비행기가 십리 아니 단 몇 발자국이라도 제대로 나를 수 있기에는 또 조종사를 단 몇 분이라도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기술자와 과학자의 숨은 노고와 준비가 있어야 합니까? 대공(大空)에서 대공(對共)을 위하여 대공(對空)에 전념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아울러 백만학도의 가슴 속이 또한 모두 저와 같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과의 고향엔 선황당있는 고갯길에도 고목나무 가지에도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 언제나 그림자 드리우는 맑은 샘터에도 참새의 안식처인 초가지붕에도 함박눈이 조용히 내리고 흙으로 다듬은 굴뚝에선 된장찌개와 흰밥을 짓는 저녁연기가 안개처럼 산골짜기를 따라 피어오르는 계절입니다. 산에는 땀이 나르고 마을 앞 텃논의 얼음판에는 겨울의 짧은 하루해가 썰매를 타는 꼬마들의 환호성과 땀방울 속에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키기에 그렇게도 애를 쓰시는 이 나라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아늑하고 또 포근한 강산이 아녘니까?

그러나 수평 저울은 내려가는 쪽이 있어야 올라가는 쪽이 있는 것 같이 저 추위와 나아가서는 저 성업(聖業)을 위한 제 일선에서 용감히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반면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처자와 또한 모든 우리 국민이 안일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 말려 버리겠다던 저 남이장군의 남아다운 의지는 이미 그 시대는 지났건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혈관 속에서 용솨음치고 있습니다. 무제한의 창공을 마치 정원을 거닐듯 하시는 여러분들의 뒤에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강철같은 정의의 팔뚝과 심장을 가진 백만학도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선과 후방에서 이와 같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한 감히 누가 우리들의 팔뚝을 우리들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날으는 비행기를 쳐다본 이외에 비행장 옆을 지나며 내리고 뜨는 비행기 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행기를 결코 한번도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공군 장병들께 이런 글을 감히 올리는데 대하여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며 또 건방지기도 하군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두서 없으나마 제 편지를 재미있게 읽으신 분이 계시면 또 저의 지식과 호기심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한 번쯤 저 대공(大空)으로 초청해 주시겠어요? 잊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의 종소리가 울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 될 수 있으면 조종사 여러분들께 모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의미로 제가 정성껏 그린 것으로 한 장만 보내 드리오니 어느 분이 받으실 줄은 모르지만 반갑게 받으시기 바라며 다른 분들도 이번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함에 더욱 커다란 신의 가호와 영광이 내리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동성고교 3년>

편집자 주—보내온 카드를 여기에 실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얼떨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곤 한 분 없는 공군이니까요. 그러니 이런 편지의 글을 써 주십사 하는데엔 정말 곤란하지 뭐예요. 초등학교 시절—일선에 계시는 국군 아저씨에게 위문편지 쓰던 생각이 나는군요.

—추운 날씨에 공산군 무찌르노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들은 아저씨 덕택에 몸 건강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용감히 싸워주셔서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휘날리게 하여 주세요……그런 류의 내용을 머리에서 짜내노라 꿈꾸거리던 때—그러나 아직 통일은 멀고 오늘 또 저는 다시 공군 장병님들께 드리는 위문의 글을 쓰고.

아침마다 학교로 오는 길에 만나지는 공군 두 분이 있어요. 몇 번이나 꼭 그 자리서 만나지기에 이젠 얼굴도 익었지만 참 멋이 있더군요. 그분들뿐 아니라 공군복을 한 군인은 거의가 멋이 있어요. 예쁘구요. 실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인걸요.

하늘을 난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지난 국군의 날 한강 위에서 배폰 에어·쇼 구경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곤 아주 미더워지더군요. 우리 공군 장병님들이 말이에요.

참 지난번 ‘원한의 도곡리 철교’ 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 파일럿의 생애가 얼마쯤 그려져 있더군요. 친구를 위해서 조금도 주저 없이 자기를 희생하던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따뜻한 여운으로 인상에 남아 있어요.

파이롯트 생활이란 무척 화려하구 매력이 있다구요. 이렇게 구질스럽고 때로는 심심하기도 한 인생에 멋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겠어요. 위장이란 나쁜 친구를 때버린다면 정말 멋이란 게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장병님들이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노력에 대해선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질 못했군요. 자유의 제일선에서 지금도 쉽 없이 근무하시는 장병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올려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하루속히 축복 받은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좀 더 부지런하기로 해요.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이만 줄이겠어요.

60년 12월 말에

(이대 사회사업과 2년)

## 한국한명시역초이제(韓國漢名詩譯抄二題)

### 반속요(返俗謠)

—승(僧)으로서 속(俗)으로 돌아오는 노래

박두진(朴斗鎭)

산윗구름 오명가명  
저절로 머흘에라 뒤에 두고

빈 골을 인적 없이  
풀향기만 휘돌아라

그 구름윗마음 기리 닳귀 사오칠  
고은 님 위하여

그 공은 향기  
자옥마다 젖어들어 설레는 이 내 마음

푸른 골길 홀홀히  
홀로서 내리거니

아, 어쩔고? 어쩔고?  
장차 이 젊은 날을 어쩔고 공은이여!

지금은 아직  
공으신 그대 모습 내 앞에 있지 않고

화운심혜(化雲心兮) 사숙정(思淑貞)  
통적막혜(洞寂寞兮)

불견인요초방혜(不見人瑤草芳兮) 사분은  
(思芬蘊) 장내하혜(將奈何兮) 청춘(青春).

### 추야우중(秋夜雨中)

—비 오는 가을밤에

가을바람은  
외롭고 쓸쓸해라

창밖은 밤중  
찬비는 흐느끼는데

한숨 섞어 홀로  
노래 읊어 보나

먼 만리밖 고향생각  
등불 마저 쫓는다.

구르는 낙엽밖엔  
누가 알리

추풍유고음(秋風惟苦吟)  
세로소지음(世路少知音)

창외삼경우(窗外三更雨)  
등전만리심(燈前萬里心)

최치원(崔致遠)





## 국가와 민족의식의 발단

김계숙(金桂淑)

### 1

현대에 있어서 국가나 민족이라고 할 때에는 고대까지 소급하여 논하기도 하나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할 때에는 근대의 민족과 민족국가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근대 이후 발달한 민족의식과 민족국가의 형성에 국한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근대민족의식이 처음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된 것이다. 물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기에 있어서도 중세기의 분권제도에 의한 봉건국가와 로마교회(羅馬敎會)에 의한 통일정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타났으나 그러나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국가의 형성과 민족통일 또는 국민교회의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근대 초의 자유사상과 함께 민족사상이 발달하게 된 종교개혁 운동 이후 신교의 성립과 함께 국제적인 종교전쟁의 결과였다. 여기에 있어서는 르네상스 시기의 개인의 자유해방의 사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의 자유해방의 사상 즉, 내셔널리즘(Nationalism)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나 민족감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한 민족의 전체적 결합 더욱이 타민족의



Hi.

지배에서의 자유 해방이나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조직 즉, 민족국가를 가지려고 하는 민족의식의 발달은 근대적이었으며 그 전에 있어서는 씨족 사상과 종교에 의한 전체적 결합이 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세기적인 봉건제도에 의한 분권적 조직이 시민적 발달에 의하여 붕괴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중세교회의 세계통일세력도 약화되자 여기에는 자유의 사상과 함께 반항의 분리작용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에 있어서와 같이 개체만의 사상과 개인 대 개인의 사상 또는 개인주의사상이 지배한 데 있어서는 자라나기 시작한 민족적 자각 즉, 근대 개혁에 의한 새로운 운동이 구심력과 전체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민족은 다만 민족의식을 가질 뿐이요, 정치적으로 민족을 기반으로 한 민족통일과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종교개혁운동에 있어서는 근대개혁은 개인의 자유해방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민족의 자유해방에서 완수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종교개혁의 성공은 민족의 자주독립 즉, 근대국가의 형성과 그것의 민주화와 밀접하게 관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르네상스 이후 발달한 개인의 자유와 개성 존중의 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의 자립과 정치적 독립국 즉, 민족적 통일에 의한 국가조직을 중요시하였다. 여기에서 민족의식의 발생은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근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하였던 것이다. 이탈리아와 르네상스의 문화가 옛 유럽사회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고대의 학문과 예술과 문학을 부흥시키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과 함께 이탈리아 민족정신을 고취한 데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의 근대사의 초기에 있어서는 민족자각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을 위한 국가사상과 함께 국민운동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 이후 개인적·사회적 반목과 항쟁 또는 개인적 당파적 권력 쟁탈과 끝없는 이기욕에 의하여 이탈리아 전체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으며 더욱이 각 도시 국가의 왕과 법왕과의 대립항쟁은 그것을 조장시킴으로써 이탈리아의 민족통일에 의한 근대국가의 실현은 곤란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국가는 어느나라 보다는 먼저 학문의 부흥과 문예의 발달을 촉진시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민문화의 철저한 발달과 이탈리아 민족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 도시국가에 있어서의 권세와 명예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자와 예술가들은 궁정에 집중하였으며 그들은 궁전을 장식하며 왕을

위하여 토목건축을 일으켰던 것이다. 초기의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자유와 혁신을 목표로 고대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철저한 근대적 민족의식에 의한 민족통일의 실현, 따라서 근대국가 통일의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고대복귀사상과 함께 근대개혁의 이상 가운데서 더욱이 내부적인 분열과 사회적 반동 속에서 16세기 전반에는 결국 외국세력의 침해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탈리아는 외적의 침입을 당할 때에 비로소 민족통일운동과 국가방어를 절규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다. 이때에 이탈리아 민족통일에 의한 근대국가건설과 조국의 외적침략에서의 해방을 강조한 것이 마키아벨리(Machiavelli, 1469-1527)였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최종의 해는 외적이 로마(羅馬)를 침략한 해였다. 이탈리아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족통일과 함께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한 다른 나라들은 부국강병의 정책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활동에까지 진출하는 국제정세 아래에 있어서 이탈리아는 끝끝내 민족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적은 도시국가들 사이에 있어서의 정쟁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립과 이기적 배타와 개인의 영예를 위하여 싸우다가 결국 근대국가도 만들지 못하고 외적의 침략의 희생이 되었다. 그 결과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도 아랑곳 없이 쇠퇴의 길을 밟게 되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개혁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더욱이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유럽에는 민족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독일 인문주의자들은 이탈리아의 영향과 고전 연구를 통하여 근대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특히 종교개혁과 민족운동으로서 나타났다. 독일 민족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로마교회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인문주의자들의 자유해방의 사상은 부패한 교회와 함께 독일교회를 지배하는 로마교회에서의 분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교리의 새로운 연구는 종교적으로는 국민교회의 설립과 신교신앙의 자유였으나 그러나 그것의 완수는 결국 완전한 민족해방에 있는 것만큼 여기에서 민족사상은 더욱 강조되었다. 더욱이 독일에 있어서의 종교개혁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탈리아의 로마교회에서의 분리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걸친 국제적인 종교전쟁에까지 이르게 되자 유럽에는 각 민족의 발달에 따라서 자주독립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와의 대립도 심하여졌으며 민족사상이 정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사상과

민족의 독립운동은 종교개혁기를 통하여 활발하였는데 종교개혁의 발상지요, 종교개혁운동의 중심인 독일에 있어서는 민족통일과 근대국가의 건설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독일은 루터(Luther, 1483-1546)에 의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유럽의 종교개혁운동의 중심도 되었으며 특히 루터는 신앙심을 절대시함으로써 신앙심 없는 의식은 무용한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승려와 세속인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였으며 또는 로마교회의 부패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로마교회에서 분리된 독일 국민교회의 창설을 독일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그 결과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독일 전역에 파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은 신구양교의 대립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양파의 싸움도 극렬하였는데 그 싸움의 중심도 독일이었다. 여기에서 종교전쟁도 독일이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은 구교대 신교의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민족의 자주독립과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오랫동안 양파의 싸움으로서 독일의 국력은 극도로 쇠퇴하여 새로 근대개혁운동을 일으킨 독일은 근대화의 역사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기를 통하여 발달한 민족사상과 국가사상은 독일에 있어서는 결국 현실적인 성공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독일은 종교개혁으로서는 선봉이며 역사적으로는 유명하였으나 종교전쟁의 결과 근대국가도 건설하지 못하고 외국의 지배 아래에서 수백의 지방 단위로 분열되었으며 독일 제국이 성립된 것은 19세기 말이 가까워서였다. 여기에서 근대민족의식의 발달 뿐만 아니라 민족사상의 성숙과 함께 근대 민족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근대국가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킨데는 이탈리아나 독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였다.

## 2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종교개혁기는 근대사형성의 전야인 동시에 근대국가 발전의 태동기였다. 즉,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형성된 유럽의 근대적 혁신운동은 민족사상과 국가사상의 발달에 의한 근대국가의 형성과 민주개혁의 기반이었다. 그런데 이탈리아나 독일과 같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발달의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형성과 민주개혁의 역사가 중단된데도 있다. 그리고 보면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은 물론이요 민족사상과 국가사상이 발달한 나라와 민족들이 모두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르네상스 운동이나 종교개혁운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사상이나 국가 사상이 발달하고도 근대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말하면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면 민족사상이나 국가 사상의 발달 이외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여서는 안 되는 문제도 여기에 있으며 또 모든 민족은 모두 국가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민족통일에 의한 중앙집권 제도가 성립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는 시민적 발달이 적극적이어야 하며 종교적으로는 법왕(法王)과 왕과의 대립에서 벗어나서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또 민족분열을 저지하며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국군제도가 발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며 현실적 개혁을 추진시킬 수 있는 학문의 발달이 있어야 하였으며 사상적으로는 중세기의 신(神) 중심사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자유주의와 함께 민족사상과 국가사상이 건전하여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구(舊) 사상의 지배에서 속히 벗어나는 동시에 근대적·시민적 발달과 민족적·국가적 발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민족만이 실제로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또 국가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장 노력한 나라가 또 먼저 근대 민주 국가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근대 유럽에 있어서 가장 일찍이 근대 국가를 형성시킨 민족으로서 는 스페인·영국·프랑스 등을 들 수가 있다. 영국에 있어서는 13세기 중엽부터 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농민해방과 함께 자작농제도도 나타났으나 그러나 근대 국가 형태로서의 절대 군주 정치(Absolutism)로서 나타난 것은 15세기 말이었다. 국내의 제후들의 전쟁을 통하여 제후들의 세력이 소모되고 왕권이 확대되며 시민계급의 세력이 강하여지자, 왕과 시민계급의 합작으로 국가 통일에 착수하였다. 영국 왕 헨리 7세는 15세기 말에 귀족의 영지를 몰수하며 봉건 신하 집단을 해산시키며 교회의 특권을 삭제하며 특별 재판소의 설치에 의하여 봉건세력을 억압하며 중상주의 경제정책에 의하여 도시 시민의 진흥을 촉진시켰다. 프랑스에 있어서도 영국에 있어서와 같이 100년 전쟁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국가 통일의 기반이 확립되자 15세기 전반에 샤를 7세는 귀족의 세력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상비군을 설치하며 재정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출발점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 통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의 하나가 신구(新舊) 두 파의 종교적 대립이었다. 즉 종교적 대립에 의하여 국가 통일을 희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대한 것이었으며 독일과 같이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에 의하여 민족 분열로 돌아가는 것은 근대개혁에서 역행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에도 종교전쟁이 내란으로서 일어났으며 대립에 그칠 때에는 프랑스는 신앙에 의하여 양분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앙리 4세와 같은 왕은 심지어 신교도로서 구교도로 개종까지 하면서 국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 생산업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경제적 향상에 주력하였다. 또 이와 같이 국가 통일과 국가 안정을 위하여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것이 근대 국가 초기의 절대 군주 정치의 성립이었다.

이와 같이 성립된 근대 국가는 그 발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왕권신수설과 신분국회의 비근대적 모순,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와 국가간섭,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의 잔재 등 비근대적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여기에서 근대 국가에는 다시 근대적 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혁으로서 시민 혁명이 각국에 일어났으며 여기에서 모든 근대 국가는 얼마나 근대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하는가 하는 분기점에 섰다. 시민 혁명은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러서 유럽의 국가들은 민주화의 절정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유럽은 혁명과 반혁명을 거듭 하면서 민주화에 노력하였으며 따라서 최초의 민족 사상은 다시 국가 사상과 함께 국민 사상으로 발전함으로써 민족의 자유와 국가적 발달은 물론이요, 모든 국가는 전 국민을 위한 민주 국가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끝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민족 의식과 국가의 발달에 대하여 참고하여 보기로 하자.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으로 민족과 국가가 문제가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아시아가 근대화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었다. 더욱이 근대 이전의 노대(老) 중국의 무력과 함께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의한 유럽과 미국의 강력한 세력 특히 극동에 있어서의 일본의 급진적인 근대화에 자극을 받아서 한국도 조선 말의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서 민족 의식은 격양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도 19세기 중엽 이후 민족 사상과 국가 사상이 격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한국은 왜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까지 받게 되었는가. 그 관계는 근대 유럽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민족 사상의 미숙과 함께 대내·대외적으로 근대화를 방해하는 구(舊)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후 민족 운동으로 최고 절정에 이른 것은 1919년의 3·1운동이었으나 그것도 민족 해방에 의한 국가 건설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성취한 것은 1945년의 8·15였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의 역사로서 15년밖에 안 되나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4월 혁명까지 벗어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국가 통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만큼 민족 사상과 함께 국민 사상이 건전하게 발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철학박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인권선언(人權宣言)과 자유권(自由權)

신상초(申相楚)



인권 선언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 인데 1791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채택된 헌법은 인권 선언을 법제화 하였다. 그 후부터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 장전 혹은 기본 인권 조항의 이름으로 인권 선언을 그 속에 내포하게 되었다. 인권 선언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그 내용상에도 변화를 일으켜 왔는데 1948년 12월 10일에는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보게 되어 마침내 인권 선언은 국제적 형식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부르주아 사회 인권의 내용상 기본적 특징은 그것이 근대 자연법 사상에 의해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니 비록 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자연권이 그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인권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법 상의 권리에다 토대를 둔다고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부르주아적의 실정법 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권의 신성 불가침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선언이 채택되는 시기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여러 권리의 경중이 가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부르주아적인 인권 선언에 대해서 대치(對遮)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 선언이라 볼 수 있는 소련의 ‘근로·피착취 계급의 권리 선언’ 이다. 소련 혁명 직후에 발표된 이 문헌에는 자연법 사상이 전혀 없다. ‘프롤레타리아’ 라는 구체적이고 계급적인 인간이 그 억압자인 부르주아를 분명히 계급의 적으로서

의식하고 모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여기서는 개개의 권리가 나열되어 있지 않고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로서의 국가 세력이나 사회·경제적 원칙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르주아적 인권 선언과 프롤레타리아적 인권 선언이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른 것은 그 사상적인 출발점이 다르고 그 발표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사회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전자가 자유권 상의 평등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대해 후자가 생존권 상의 평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렇다 하지만 양자의 대립과 차이를 넘어 계급 여하를 불문하고 또 사회 체제 여하를 불문하고 인간일반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니 두 개 진영의 대표가 한자리에 참석해서 공동으로 작성한 상기(上記) ‘세계 인권 선언’ 은 두 가래의 인권 선언에 있어서의 등질성(等質性)을 추상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원래 인권 선언은 1789년의 프랑스의 선언이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 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선언인 동시에 구체적으로 국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선언이기 때문에 각국의 인권 선언이 공통성을 띠는 면이 있는 대신 국가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회 체제의 차이를 반영하여 특이성을 띠기도 하는 것이니 각국의 인권 선언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계 인권 선언은 포함된 모든 나라의 인권 선언이 헌법상의 권리 규정과 내용적으로는 일치하면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인권 선언에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인권 선언은 원칙상 정치적 효과만을 가지는 선언인 것이요, 각국의 정부와 인민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치적·도덕적 지표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前文)과 전문(全文) 30조항으로 된 세계 인권 선언이 이상으로 보아 반드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금과옥조이면서 세계 각국의 인권 옹호의 실제 상황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 점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예컨대 미국 남방의 여러 주에 있어서의 인권의 대립과 차별이 얼마나 심한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권의 나라’ 로 불리는 아메리카 사회가 그 스스로의 인권 선언과 얼마나 거리가 먼 사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소련에 있어서의 거대한 노예 노동이 목불인견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의 낙원이 무엇이며 그들의 인권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사회·어떤 국가에 있어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법치 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인권이 어느 정도로 옹호되고 준수되고 있는가를 기준 삼아 판정해야 하지 얼마나 화려한 인권 선언을 해놓았으며 인권 선언을 헌법상의 권리 규정으로 준비하게 나열해 놓았는가를 기준 삼아 판정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 ×

이 독재하 한국에 있어서의 인권이란 단순히 말뿐이고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인권 및 인권 존중의 관념이 박약한데다가 독재자 이승만은 1인 정치 유지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을 일상다반사로 알았기 때문이다.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자 '자유 중의 자유'라고 할 정치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독재 정치의 연장에 큰 방해가 된다고 하여 이를 송두리째 말살하여 놓았으니 이 형식적 자유를 통해서 신장할 수 있고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지의 모든 자유가 감히 구현될 수 없었다는 것은 구차스러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체로 자유 국가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인권—구체적인 것으로서 자유권과 생존권을 이처럼 혹독히 유린한 사례는 동서고금에 그 유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자의대로 빼앗는 집권당이 자유당이란 이름으로 다년간에 걸쳐 정권을 잡아 왔다는 것은 자유 및 자유주의에 대한 모독이라 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독재가 전횡을 극해 인권을 혹독히 침범하였던 까닭으로 국민 대중은 혁명권(저항권)을 발동해 기 실력을 가지고 전재자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 전문(前文)에는 인권의 보장이 혁명의 유형을 피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므로 각국 정부가 인권 보장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라는 구절이 있거나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유혈 혁명을 당해 쫓겨나게 된 것이 이승만 정부인 것이다.

4월 혁명 후 독재 세력이 물러감으로써 자유가 소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유는 우선 정치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확립·확장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유가 소생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순위라 하겠지만 새로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도 이 대기간자유(大基幹自由)에 대한 대공(對共) 투쟁의 필요에 따라 약간 제한을 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폭이 매우 넓어진 것만은 혁명 후 혼란을 극한 사회 세태와 더불어 데모의 남발을 자아내고 무책임한 선동 언론의 출현을 가져왔지만 이런 현상은 지난날의 억압과 질식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한다고 하여 기본권의 확대와 확립 그 자체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 정부의 권위가 회복되고 사회의 혼란이 거세지면 4월 혁명을 통해서 얻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민주 국가의 공고한 터전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니 우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단순히 이론적 가치만을 향유하고 있던데 불과한 공소불모(空疏不毛)한 권리와 자유가 4월 혁명의 피를 빨아 우리 국민의 정신적 풍토 속에 확고한 뿌리를 박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서구의 방언에 “자유는 나무는 피를 빨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 유혈로 쟁취된 자유는 좀처럼 후퇴하거나 위축하는 법이 없는 것이니 앞으로는 암우(暗愚) 무지한 독재자가 나타나 이를 빼앗고 싶어도 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고 이 점 4월 혁명은 우리나라 인권사상 하나의 금자탑을 세워 놓은 것이라 할 것이다.

자유권과 생존권은 서로를 뒷받침해야만 산 의의를 떨 수 있는 것인데 후진 사회일수록 전자만이 부당하게 클로즈업되는 대신 후자가 등한시되기 일수라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주로 생산력의 발달이 낮고 정부가 사회보장이나 사회진(社會眞義)의 실현에 대해 정당한 배려를 돌릴 수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지만 자유권과 생존권의 불균형 때문에 인권이 허공에 뜨기 쉽다는 사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자유가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고 생활이 극도로 쫓리는 인간은 자유를 팔고 빵을 사게 된다는 것은 재일교포가 자유의 땅을 버리고 북한이라는 노예사회를 택하는 현상만 가지고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인권이 명실상부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 수준을 고루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 선언일을 맞이하여 필자가 특별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이니 정치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자유 대신에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도록 위정자가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필자=성대교수·경향신문 논설위원>

☆신간안내(新刊案内)

## 정훈(政訓) 포스터

발행처 · 공군정훈감실(空軍政訓監室)

## 프로파간다의 본질과 방법

- 집단심리의 정치적 효과에 관하여 -

김철(金哲)



1

프로파간다(Propaganda)—선전이란 말의 유래는 본래 원예가가 식물이나 야채를 무리하게 번식시킨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이 다시 동물을 인위적으로 번식시킴을 의미하게 되고 나아가서 ‘일반화한다’와 ‘번식한다’의 뜻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한다. 영국의 선전심리학자 두브(L. W. Doob)는 선전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을 총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선전이란 관심

을 가진 일개인(혹은 다수의 개인)이 암시의 사용을 통하여 개인의, 집단의 태도를 통제하고 혹은 그럼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조직적 시도인 것이다. 두브의 정의를 요약하면 선전은 하나의 사회적 통제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선전이란 사상 대립을 선제로 한 사회적 통제 작용이며 또 그 기술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선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피선전자가 그 문제에 관한 시비를 따지지 않고 그저 선전자의 의견을 수용하며 선전자의 의도하는 바 행위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 똑같이 인간의 사고나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그를 통제하는 교육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에게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의 이유를 양해시키는 점과 상이하다.

근대사회의 발전 분화에 따라 인간의 집단생활은 복잡화와 입체화를 결과하고 유동적이고도 자극적인 근대 사회 생활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심리 작용을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주고 말았거니와 대도시 생활은 이 경향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종 집단의 접촉의 급속한 발달은 어떠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집단도 다른 집단을 고려함이 없이 스스로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또 지방 전파 작용의 신속하고도 용이한 발달로(일간신문·영화·라디오·텔레비전의 보급 발달) 어떠한 집단도 그 스스로 고독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복잡 분화한 사회를 조직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데는 인간의 심리 작용을 이용하는 사회 통제 작용으로서의 선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일찍이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기에 걸친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 이전의 사회 사상가들의 주지주의(主知主義)적 경향에 반박을 가하고 주지주의적 사상가가 사회 조직이나 신념이나 행위에서 이성이 끼치는 역할을 설명하려 하였음에 대하여 모든 정부가 이성을 밀받침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우리들의 신념이 로·봉(G. Le Bon)의 이른바 Affective et Mystique의 논리로서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는 인간이 쾌락과 고통에 대한 증권거래소적 계산의 결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 모방 및 충동에 의하여 쉽사리 행위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주지주의적 정치 사상가는 정치 행위가 반드시 수단 목적에 관한 추론의 결과일 뿐 아니라 모든 추론이 다같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정신적 경험의 흐름에 있어서 합리적인 추론과 비합리적 추론과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며 인간이 그에 의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반의미적 과정의 대부분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성의 움직임에 관한 재검토 위에 자기자신의 정치적 사고의 기초를 두려는 자는 누구든지 인간의 지성을 과장하는 자기자신의 경향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고 정치가 주로 습관이나 본능이나 암시 모방과 같은 심리적 과정에 의한 것이며 정치에 있어서의 명칭·상징·소속 당파의 슬로건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던 바 이상의 주장이 인간성의 비합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대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행동이 반드시 순수 지성의 소산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이 지성적 판단보다 우월한 경우도 많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더욱이 이는 군중이나 대중의 심리에 있어 더욱 현저한 바 있다.

이는 설사 교양 있고 훈련된 이성적 인간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들이 군중 속에 있을 때는 감각적 자극에 호소하는 사소한 행동 쪽으로 쉽사리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 지성 면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때때로 동일한 본능·정열·감정을 갖게 되는 것으로 종교·정치·도덕 면에서 뛰어난 인간이라도 이 점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별로 벗어남이 없는 것이다.

인간 심리의 군중 심리적 경향은 이상 사태의 발생 시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경향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의 실천 운동의 성공이 왕왕 이러한 군중 심리의 선에 따른 감정적 인자애의 호소를 주안으로 삼고 대중의 감정을 뒤흔드는 데 성공의 유력한 하나의 인자를 찾음도 이 때문인 것이다.

정서는 마른 잎이 타들어 가듯이 급속히 전파하지만 이념이나 계획은 이처럼 빨리 다수인에 도달하고 침투하지 못한다. 막연한 심리학적 평가이긴 하지만 오늘날 대중의 능동적이고 의식적 분자와

상징적 암시에 의하여 지배되는 수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자의 비율은 1대 10으로서 이 차이는 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부동적인 분자를 수량적으로 획득한 자가 승리를 제하는 것이어서 논리적 의론이나 난해한 설교로써 해서는 대중에게 성공 못하는 수가 많다. 대중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적 분자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근대 정치에 있어서 다수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됨에 있어서라. “선전이란 사실을 있는 바 그대로 알려주면 된다.” 는 말을 듣는 데 이 말은 선전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불충한 것이며 사실을 알려주고 그대로 방치하여 대중의 합리적 추론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반대 사고로 이끌려 갈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사실을 어떠한 모체를 통하여 인간 심리 속에 진실로서 파고들도록 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는 거둘 수 없다. 그러면 선전을 유효하게 하려면 또 어떠한 대중 심리의 파악이 필요한 것일까. 이를 암시·사이비 환경·선입관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3

암시란 하나의 관념이 심의 속으로 투입(闖入)해 들어가는 것으로 그 관념은 다소 그 사람의 반대에 부딪혔다가 드디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무반성하게 거의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즉 그 본질적 성격은 (1) 관념이나 자극이 밖으로부터 온다 (2) 그것이 다소간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며 (3) 사람을 행동으로 이끄는 데 있다.

보통 암시를 나누어 직접암시(시사가 단도직입적인 경우)와 간접암시(시사가 우회적인 경우)로 하지만 선전자의 사고 과정에 암시를 주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는 간접암시를 단기간의 경우에는 직접암시를 쓰는 것이 유효하며 일반적으로는 간접암시를 사용하는 편이 효과가 크다. 예컨대 복권을 사라고 직접 암시하느니 보다는 복권을 사서 당첨되었을 때의 기쁨과 결부시켜서 은연중에 복권의 행운을 인식시킴과 같은 간접적 암시 방법이 유효하다. 심리학의 실험 보고에 의하면 보통의 정신 상황에 있어서 최면과 같은 이상 심리 상태를 제외하고—직접암시의 주효(奏效)가 26.6%임에 대하여 간접암시의 효과는 51.4%에 달하여 약 2배의 성과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각종 요소에 의하여 생긴 피암시성의 결과를 사이디스(B.Sids)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빈번과 최후의 인상	75.2%
최후의 인상	63.3%
빈번	42.6%
공존과 최후의 인상	18.3%
반복	17.6%
공존	6.6%

위에서 기록한 결과에 의하면 ‘빈번’ 과 ‘최후의 인상’ 이 최고도를 표시하고 있는 바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는 이 규칙을 설명할 요소가 많이 있다. 토론에 있어서는 대개 최후의 말을 하는 자가 공중의 눈에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군중 속에서는 최후의 선동 연설을 하는 자가 시민을 감동시키고 또 선동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폭도에게 있어서는 최후로 모범을 보이는 자가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빈번이 ‘최후의 인상’ 다음에 오며 ‘반복’ 에 앞서고 있음은 ‘반복’ 에 있어서는 암시가 너무 과격하고 명백하여 거의 다 표면에 드러나 있으며 그 때문에 심의가 반대로 환기되어 반대 암시가 형성된다. 그러나 ‘빈번’ 에 있어서는 암시가 도중에 중단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명백하지 않고 따라서 반대가 상당히 감소되며 암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예에서 암시의 여러 형태 중에 가장 강력하고 유효하며 성공률이 큰 것은 ‘빈번’ 과 ‘최후’ 의 인상의 교묘한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암시는 그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및 정력의 노비와 설명의 명백성이 흠여(欠如)되어 있다는 폐단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것이다. 다음에 암시의 유효성을 서양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약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즉, 피암시성은

- (1) 여러 현상의 정도에 의존한다.
- (2) 인종과 민족의 성질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북방계의 사람보다 남방계의 사람이 피암시성이 강하고 앵글로색슨족보다 라틴족 쪽이 강하다. 원시인·중국인·미국·인도인이 비교적 피암시성이 강하고 켈트와 슬라브 인은 영국인이 스칸디나비아인에 비교하여 피암시성이 크다고 한다. 일본인이나 한국인도 민족으로서는 피암시성이 강한 편에 속한다 할 것이다.
- (3) 기질에 의존한다. 정서적이고 신경질적인 자는 점액질(粘液質)적인 자보다 피암시성이 강하다. 이는 지성의 작용이 감정적 지배에 비하여 약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 (4) 성(性)에 의존한다. 남성과 여성의 상위(相違)라기 보다 각 성의 대상에 대한 상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의복과 화장품 등에 대한 피암시성은 여성 쪽이 강하고 또 용장한 것에 대한 피암시성은 남성 편이 강하다.
- (5) 연령에 의존한다.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피암시성의 강도가 어릴수록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그리면 불룩하고 오목한 곡선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젊을수록 피암시성이 강하다.
- (6) 피로의 정도에 의존한다. 두뇌가 이상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에 결함이 생긴다. 히스테리 최면 상태에서는 이 경향이 현저하다.
- (7) 조직적 힘의 결합에 의존한다. 암시가 그에 대하여 시행된 것에 관한 화제에 지식과 확신이 없는 경우는 피암시성이 높아진다.
- (8) 암시 발원의 권위에 의존한다. 발원의 인상적 성격이 크게 영향을 끼침은 말할 것도 없다. 보통 사람의 말과 권위 있는 자가 하는 말 사이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없더라도 후자의 경우가 훨씬 암시성이 강하다.
- (9) 우세한 군중 혹은 집단 정서의 정도에 의존한다.

### 4

암시와 동시에 고찰할 것은 우리들의 현상계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즉, 근대의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시간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은 현상의 정확한 영상을 가질 수 없고 인간의 환경의 사정에 관하여 그 인식의 지속에 불구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현상의 영상을 간직하고 있다. 참 현상이란 것은 근대 사회의 복잡화와 확대화에 따라 너무나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변동하고 있으며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로 알 수 있는 세계는 신문·잡지·서적·팸플릿과 같은 인쇄물이나 라디오·방송 등 회화를 통하여 유입해 오는 이른바 사이비 현상으로서 인간은 이 참 현상의 불확실한 영상이라고나 할 사이비 현상(사이비 환경)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에서의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 사이의 사건에 관한 보도는 보도 기자의 주관이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 정서에 의하여 왜곡되고 수정되어 우리에게로 도달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은 전혀 사이비 환경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들은 그 이전에 이미 유럽의 사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바 이 선입관에 관하여 보도는 더욱 수식된다. 따라서 참 현상과 우리들이 머리에 그리는 현상의 영상(Picture)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 되는 수가 많다.

예컨대 A·B 두 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와는 그 자국에 대한 반응의 형태가 상당히 다르다. 또 관심을 가진 자라도 A국에 호의를 지닌 사람과 B국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는 사건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B국에 대하여 유리한 보도는 친 B국파에게는 다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친 A국파에게는 그리 큰 공감을 못 갖게 할지도 모른다. 일(-)은 적극적이고 타(他)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세계의 현상을 관찰할 때 전혀 순백한 마음에 의한 직접 경험에 의해서만 그를 인식하는 경우란 없는 것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전의 경험이나 교육이나 선전에 의하여 영향을 입고 또 착색되어진 주관의 틀이 들어 있는 법이다. 대부분의 인간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이 선입관의 기초 위에 서있다. 우리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의 현상은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세계는 거의 무한대이고 우리들은 자그마한 지식으로 최대한의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를 함에 당하여 아무래도 선입관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의견은 자연히 우리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지역, 오래인 시간, 다수의 것에 걸친 것으로 의견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보도와 자기의 상상과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여기에 여론(Public Opinion) 형성에 대하여 유의할 만한 심리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입관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암시가 주어질 때 그 반응은 매우 신속한 것이다. 마리아·셸은 명연기로 알려진 여배우다. 그가 나온 종래의 많은 영화가 다 예술적 향훈이 높은 명화였다. 따라서 그가 주연하는 영화라면 실사 다른 제작면의 결함이 있어도 팬들은 무턱대고 마리아·셸이란 이름자만 보고 구경을 간다. 보고 난 후의 감상의 호오나 선망은 있겠지만 많은 관중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선입관과 암시를

이용한 선전으로는 성공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5

어떠한 매체를 내걸어 민중의 관심을 그에 집중시키고 그에 의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에 유리한 체제를 만드는 보조력으로 삼는 것은 정치가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예컨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정치가가 노동 계급의 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을 묘사하고 계급 투쟁을 통하여 노동 계급의 적의를 부르주아 계급에게로 집중시키고 같이 나치가 유대인에 대하여 적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자기의 독재주의 체제를 구축하였음과 같이 또 제국주의적 의도를 가진 정치가가 국내적 정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쟁을 야기시키고 같이 혹은 선거에 있어 일찍이 성공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는 모교도(某教徒)라고 지칭함으로써 배교(排某教)적 선입관을 가진 민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대 후보자에 대한 혐오지념(嫌惡之念)을 품게 하여 자기에 유리한 정황으로 끌어들여 성공함과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선전이 사상 투쟁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내보이고 있다 하겠다.

정당 지도자는 당원 및 대중의 의향을 상대 정당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기에 점차로 유리하게 호전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당내에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서는 당내의 결속을 공고히 지켜 나갈 수가 없다. 또 당 외에 대하여 자신의 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도 없다.

선전은 일단 인간의 추리적 관습에 호소함으로써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만약 그가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의 무력한 추리보다도 빨리 행위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전자는 진리 탐구자·과학자·교육자의 보호색을 걸치고 있는 자인 것이다. 인간이 자기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동기에 의하여 주로 행동한다는 일반적 원리는 일반 심리학에 있어서나 사회 심리학에서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선전자는 인간 행동의 참 동기를 발현하도록 노력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응용하도록 애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행동을 촉구하는 참 동기에 암시가 주어진 때 가장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정치가는 대중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듣고서 원하는 것을 들려 주어 야 하는 것이다.

정치 행동 및 정치 현상을 그 기반으로부터 사회 심리적 계기에서 촉구하려는 현대 정치학의 정책적 및 응용론적 변모는 앞으로 선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다하고 다이나믹한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코리아 타임스 논설위원>





## 〈그리운 여인상(女人像)〉

서울. 변화가.  
수많은 발길이 오고 간다.  
지위를, 이권을, 명예를, 허영을,  
그리고.....을 쫓는  
수많은 발길이 난무한다.

× ×

명동. 소공동. 세종로. 종로.....에  
금속성 하이힐 구두 소리가 오고간다.  
그 위에 나일론 양말, 징그러운 엉덩이,

추위도 모르는 파란 목,  
그리고 그 위엔 원색의 조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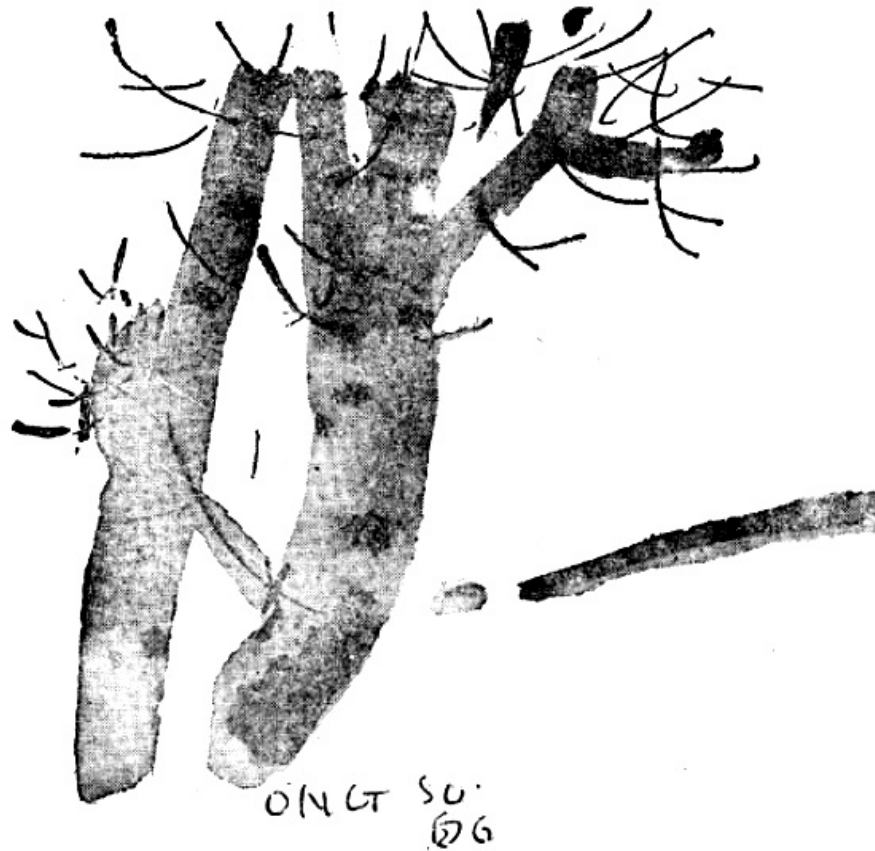
나는 구토증을 누르며  
파이프 연기를 맑은 하늘로 뿜는다.  
제멋대로 선을 그으며  
무한한 자유를 노래하는 연기.  
허나 그 생명이 그리 길지는 않다.

× ×

답답하다.  
그리운 소녀상을 또 찾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그 어떤 소녀상을......

그림·글 이순재(李舜在)





〈들판〉

글·그림 백영수(白榮洙)

눈이 하이얗게 쌓인 들판에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은 한없이 외롭다.

광대뼈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 억센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수절(秀節)의 이모저모가 생각난다.

지난 봄부터 여름 사이에 짝튼



나무가지들은 아직은 어리다. 그래서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있다.

그 부드러운 선과 차차 투박해진 나무가지의

연결은 해마다 나이를 먹는 룬(輪)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따스한 햇빛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날의 즐거웠던 것, 외로웠던 것,

이러한 것들이 송두리채 들어나는

나무들의 모습은 저속히 자연스럽다.

## 《우리 시가상(詩歌上)에 나타난 제야(除夜)의 종(鐘)》

월하(月河) 이태극(李泰極)



우리의 시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민간에 전창되어 왔다. 삼국 이전에 벌써 공후인(공무도하가)이라는 노래가 있어 곽리(霍里)에 사는 뱃사공의 아내가 부른 것으로 되어 있고 백제의 시가라 하여 어떤 행상의 아내가 지어 불렀다는 정읍사(井邑詞)가 있다. 신라 시대에는 유명한 이두표현(吏讀表現)의 향가(사녀가)가 있었고 고려로 들면서 별곡가요(別曲歌謠)가 유행하였었다. 고려 말에 와서 시조니 가사니 하는 이조(李朝)의 대표적 가요가 발생하였다. 이조에 들면서 궁중 음악으로 악장이 발달하였다. 이조 후기에 이르러 잡가니 판소리니 하는 노래도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선민(先民)들은 음악과 불가분의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러한 오랜 가요 생활 중에는 서정적 또는 서사적 묘사 표현이고 간에 우리의 생활의 이모저모가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 향가에서 보아도 순수한 시가적 창작인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작품이 불교적·유교적 또는 무격조 생활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 노래들은 반드시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다. 시조와 같이 수많은 작품을 가진 시가는 그 내용도 다기다양(多岐多樣)하여서 선인들의 생활의 편모라든지 사상의 실마리라든지 풍속의 좌우를 알 수 있다. 한 풍속도(風俗圖)를 연상할 만큼 각 절기와 명절에 대한 묘사 표현이 있는 것이다. 즉, 정월이면 상원일(대보름) 2월의 연등(燃燈), 3월의 한식(寒食), 4월의 8일, 5월의 단오(端午), 6월의 유두(流頭), 7월의 백종(百種), 8월의 한가위(秋夕), 9월의 중양(重陽), 10월 상달의 제천(祭天), 동짓달의 동지(冬至), 설달의 제석(除夕) 등의 의식이 있어 고려의 동동(動動)같은 노래는 이러한 월령체(月令體)로 지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모(歲暮) 즉 납월(臘月)의 행사를 노래한 가요는 그리 흔치 않다.

더욱 제석이니 제야 의식에 대한 것은 있어도 제석타종을 노래한 것은 없는 듯하다. 이 납일(臘日) 자정(子正)에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알리는 종소리를 읊은 것은 전혀 안 보인다. 그러한 타종의식은 벌써 이조 초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말기에는 종로(鐘路) 보문각(普門閣)의 인경을 울렸다. 그것은 물론 제석에만 친 것이 아니고 조석으로 때를 알려 준 것이다. 그 실례로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 보신각종(普信閣鐘)

조종현(趙宗玄) 작

장안이 고요하다 늦은 봄이 밤 깊었네  
지금 이 새로한시 나그네의 꿈이로시  
하마나 첫닭이울리 귀종구어 듣노라

옛날에 이맘때는 보신각 종이 울어  
만호에 잠든무리 깨우셨다 하렸마는  
내일을 가시련이의 길은뉘라 밝히리

이 종이 울어울어 하늘 높이 크게 울어  
3천리 울렸으면 이내마음 시원하리  
애달프다 입을 다물어 몇몇해나 하시고

(1932·동광지(東光誌)에서)

이와 같이 이 종이 울어서 만호(萬戶) 장안(長安)의 잠든 이들을 고루 깨워 주던 것이었다. 비단 제야에만 울린 것이 아니었다. 옛 시조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 수가 보인다.

묵은해 보내올제 시름한데 전송하자  
흰골무 콩인절미 자체술 국안주에 경신(庚申)을 새오랄제  
이우고 자미승(紫米僧) 돌아가니 새해런가 하노라.

이 시조는 형식에서 볼 때 중시조(中時調)에 속하는 것인데 영조대(英祖代)의 가인(歌人)인 백회재(百悔齋) 이정조(李廷調)님의 작품이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고비를 잘 그렷다. 이 초장(初章)에서는 묵은해와 함께 우리의 시름도 다 보내버리자는 뜻을 중장(中章)에서도 흰떡(권무·권무양(拳撫養)·골무) 콩인절미떡과 자체벼(올벼의 한 종류로 상품의 벼·여주(驪州)·이천(利川) 등지에서 많이 산출) 쌀로 담근 술을 국을 안주 삼아 마시면서 경신날을 새우는 장면을 노래하였고 종장(終章)에서는 날이 밝자마자 아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시주를 걷으러 다니는 자미승이 돌아다니며 목탁을 치는 광경이 읊어졌다. 이것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민간 풍속을 사경(寫景)한 것이다. 이 설달 그믐날이면 경신일 때에는 이와 같이 밤을 새운 것인데 우리 어렸을 때에는 설달 그믐날이면 밤을 새워야 한다고 어머니들 만두 빚고 떡 썰는 걸에서 서로 못 자게들 한 기억이 있다.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고 하여

만일 일찍 자면 눈썹에 떡가루를 묻혀 주어 놀리고 하였다. 그런데 이 노래에도 제야의 종소리는 안 그렸다. 고려 시대에는 나례(難禮)라는 궁중 의식이 있었는데 세도 세초에 잡귀와 병마를 쫓기 위하여 행해졌다. 그때는 처용가(處容歌)를 부르며 처용의 탈을 쓰고 나와서 처용무를 추던 것이었다. 이렇게 제석 의식(除夕儀式)은 한 무격(巫覡)적 사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음은 영조대의 유명한 실학자 정다산(丁茶山)님의 둘째 아들 운포(耘浦) 정학유(丁學游)님이 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 연말 풍속을 살피기로 한다.

십이월은 계동이라 소한 대한 절기로다. 설중의 봉만(峰巒)들은 해 저른 빛이로다.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무명 명주 끊어내어 온갖 무색 들어내니 자주 보다 송화색(松花色)에 청화 갈매 옥색이라. 일변으로 다듬으며 일변으로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 하고 햇대에도 걸렸도다.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 작만 하오리라. 떡살은 몇말이며 술쌀은 몇 말이고, 콩 갈다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 빗소. 세육(歲肉)은 계(契)를 밟고 북어는 장에 사서 납평(臘平)날 창에 묻어 잡은 꿩 몇 마린고 아이들 그물 쳐서 참새도 깃어 먹세. 개강정 콩강정에 곱감·대추·생률이라. 주준(酒樽)에 술 들이니 돌틈에 새암소리. 앞뒷집 타병성(打餅聲)은 예도 나고 제도 나네. 새 등잔 새발심지 장등(長燈)하여 새울적에 윗방 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 세배하는구나…….

이상은 12월령의 첫 부분인데 역시 밤 새우는 풍습이 그려져 있고 묵은 세배하는 대목까지 나와 있으나 제야중에 대한 얘기는 없다. 물론 이것은 농촌의 얘기가 농촌에 무슨 종이 있을 리 없다고 보겠다. 어쨌든 그믐날을 마지막 보내는데 한 해 마지막 밤을 이어 새워 새해 새 날을 접속시키자는 의미에서 나온 풍속이라 본다. 새해 새아침에 차례 잡술 제물 작만과 설빔하는 분주한 광경이나 매우 명랑하고 건실한 풍경이다.

우리나라의 옛노래는 무슨 낭만적 서정시라는 것보다는 서사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더욱이 이 농가월령가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이 우세하던 때이고, 그 거두 다산의 아드님이 농가 생활과 농사에 대한 주의와 준비 등을 적은 것이기에 시적 감흥이나 미적 서정은 별반 없는 작품이다.

이상과 같이 이조에 들어와서 시조와 기타 작품에 설을 쇠는 생활이 그려진 것이 있을 따름이고, 별다른 의식이나 행사가 그려지지 않았다.

(필자·이대 교수)

☆북미방공사령부(北美防空司令部)는 미주(美洲)의 방위(防衛)와 자유세계전역(自由世界全域)에 걸친 방위(防衛)의 심장부(心臟部)이다

## 대륙방어(大陸防禦)의 심장부(心臟部) 북미방공사령부(北美防空司令部)의 활동

외지(外誌)에서



적의 공중 기습으로부터 미 대륙을 방어하고 만일의 사태에는 필요하고도 강력한 보복 수단을 감행하기 위하여 오늘날 북미방공사령부는 분과 초를 다투어 가면서 모든 기술과 힘, 그리고 정력을 이에 다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후루시초프가 U-2기 사건을 들고 미국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면서 파리정상회담을 바야흐로 파탄에 몰아넣고 있는 그 순간 콜로라도의 어떤 창 없는 건물 내에는 한 미공군대령이 엄숙히 상황판을 지적하고 있었다. 벽 전체가 상황판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북미대륙을 포함하여 북극해, 소련의 북반부, 극동지역, 대서양 일대 및 태평양 전역에 걸친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밀실에 들려 온 대령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 24시간 동안 29대의 항공기 포착, 그 중 25대는 이상없는 우군기(友軍機)였고 그 나머지는 길을 잃은 소형 항공기임, 그리고 앞으로 한 시간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되며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임, 시베리아 북방 상공에는 비행 물체에 흔적이 없으며 뉴질랜드의 동쪽 해안에 트롤선 5척 증가하였음, 잠수함의 동태에는 변함이 없음.”

이상과 같이 보고하면서 그는 또 오대호(五大湖)를 가리키며 이 시간에 전략 공군산하 B-52기의 비행훈련이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알래스카에서의 육군들의 기상 체크 상황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때 ‘상황변화 직각 보고’의 명령이 밀실로부터 들려 왔다 바로 북미방 공사령부총사령관 로렌스·S·큐타 장군의 목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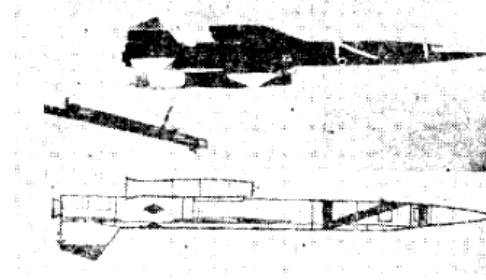
자유 진영내의 1천 50만 평방마일의 방대한 지역과 2억의 미국 및 캐나다인의 생명의 보호를 직접 책임 맡은 큐타 장군은 그 다음 미국·캐나다 및 북극 해역 등의 기상 브리핑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소련 기지에서 비행은 불가능하다는 기상 정보를 듣고 가능한 공격에 대한 방위상의 판단을 스스로 내린 듯 엿보였다.

큐타 장군은 아침의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 캐나다 공군의 로이·스레몬 장군(큐타 대장의 보좌관)과 함께 7백여 장소에 산재하고 있는 미 공군을 비롯한 육·해군 및 캐나다 공군부대 등의 20만을 헤아리는 병력에 대하여 가장 요구되는 훈련과 작전 수립을 검토하는 것이다. 실로 전사상(戰史上)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미중유의 광범위하고도 연속적인 과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말일 소련이 미 대륙에 대하여 일격을 가해 오는 경우 큐타 장군은 이를 공격이나 아니냐를 일시에 판단하여 이에 필요한 직각적인 방어 전술을 마련함으로써 북미 대륙의 핵 공격으로부터의 탈살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미 전략 공군에 대하여 공격 경보를 발하고 소련에 대하여 두려워할 만한 공격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큐타 장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닌 사령관이 아닌가 한다. 매분 아니 매초가 삶과 죽음·승리와 패망의 경지를 다투고 있으며 장군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움을 요청할 시간의 여유를 찾을 길 없으며 뿐만 아니라 대신 누구에게도 그의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는 미공군참모장에게도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의 판단과 임무 수행에 대하여도 다만 미 연합 참모 본부와 캐나다군 총사령부에 이를 보고하면 되며 나아가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방공사령부야말로 한없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보복력을 가진 최초의 단일방어기구라고 할 수 있다.

감시망의 경이적인 총동원과 모든 방어무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 기구는 적과 조우하기 시작하여 불과 2분 30초 이내로 다시 말해서 적이 발사한 모든 폭탄이 미국 인구의 중심부를 때리기 이전에 적지의 대부분의



〈보마크탄의 모형도〉

지역에 대하여 두려워할 만한 공격세례를 퍼부을 수 있는 것이다. 탐지는 북극에서 벨링해 그리고 북태평양지구 일대에 연하여 하나의 장역을 형성하고 있는 듀우(Distant Early Warning) 라인(조기 경보망)에서 담당하고 있다.

듀우 라인의 대양 감시 활동은 대서양 및 태평양의 한복판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레이더화된 미 해군의 정찰선을 포함하여 양 대양의 방벽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수한 장비와 훌륭한 레이더를 지닌 이동 함대가 배치되어 있어 각종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듀우 라인 다음에 캐나다와 레다·라인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밑으로 광대한 레다 경보망이 북쪽 변두리를 도망고 있는 파인—트리·라인이 미·캐나다 국경 지대를 따라 뻗어져 있는 것이다.

수많은 정찰선과 항공기 그리고 해군 함대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서양 및 태평양 가운데 이 방벽과 아울러 뉴화운드랜드로부터 사바나에 이르는 일백 마일에 걸친 대서양 상의 감시대는 일명 텍사스·지휘소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 텍사스·지휘본부는 또한 멕시코만에 이르는 모든 탐지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체계가 바로 오늘날 북미대륙의 모든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탐지망인 것이다.

북미방공사령부의 임무는 매일 20만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용 내지는 민간 비행기를 체크해야 하며 매초마다 식별을 서두르는 것이다.

모든 정보는 즉시로 작전기 밀실에 보고되고 여기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진행된다.

큐타 장군은 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명하고도 빈틈없는 판단을 내야만 한다.

인간 전자 기계에 의한 광범위한 이 방공경보망이 예상되는 제반 사태를 식별하는 동안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어떠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금의 여유를 주고 있는 한 큐타 대장은 스스로 이에 필요한 결정을 즉각 내려야 하며 대전 발발의 상보(詳報)를 즉시 미 전략공군사령부에 통고하는 것이다.

만일 소련 측의 전략 공군 사령부의 움직임이 미국 측에 대하여 공격의 징조가 보일 때 지체 없이 북미방공사령부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공격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요격 전투기를 불과 2분 30초에서 5분 사이에 전투태세에 돌입시킬 수 있는바 이때 동원되는 항공기는 최소한 1백 대 이상이 된다. 1시간 이내에 북미방공사령부산하 60개를 헤아리는 미국 및 캐나다 공군의 비행 대대가 전부 공격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두려워할 공중 보복력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막강한 공군력의 삼중매에 걸친 탐지 내지 방어에도 불구하고 북미방공사령부는 적의 폭격 편대가 전혀 침투할 수 없다고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여 북미방공사령부는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을 움직이고 있다.

공군의 보마크 탄은 침투해 오는 폭격 편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며 육군의 나이크·허큐레스 탄은 핵탄두를 달고 무서운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북미방공사령부는 그야말로 철통같이 짜여져 있는 것이다.

큐타 대장은 “만일 어느 나라가 공중력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해로운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방공사령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 정신적으로 우리를 약화의 위협에서 구제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공중 방위의 이러한 방법은 공격자의 의사를 미리 좌절시키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항공기에 의한 폭격의 위협은 점차로 제2차적으로 떨어졌으며 절실한 것은 여하히 대륙 간 횡단 유도탄을 막을 것이나 하는 데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북미방공사령부의 제반 탐지망은 단지 적 폭격기에 대한 것만을 찾아내게 되었을 뿐이지, 그것으로 대륙 간 유도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충분한 경고를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머지 않은 장래에 북미방사는 이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탐지망을 스스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알래스카를 비롯하여 그린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등지에 걸쳐 3개의 거대한 레이더 시설이 현재 공사중에 있다. 앞으로 유도탄 조기 경보망이라 불리울 이 레이더는 소련 기지에서 발사되는 모든 대륙 간 탄도탄에 대하여 발사 즉시로 이를 포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15분 이내에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고를 해줄 것이다.

즉 이 15분의 시간은 이러한 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미 전략 공군의

강대한 보복 공격력 특히 폭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북미 방공사령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많은 경험과 재능을 가진 큐타 장군이다.

레리·큐타는 잡화상 지배인의 아들로 1905년 일리노이 록크워드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가계는 현재까지 6대에 걸쳐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초부터 하늘의 조인(鳥人)을 꿈꾸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하나의 기계 공학가로서 입신할 것을 원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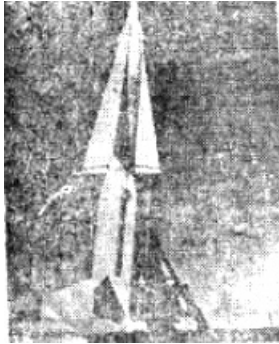
그가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젊은 레리 자신의 희망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훌륭한 지휘관으로서의 선천적인 요소를 발견한 그의 선생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그는 생도 가운데서 가장 숙성적이고도 모범이었다. 1927년도 408명의 졸업생 가운데서 44석을 차지한 큐타는 그때까지도 분명히 자기가 군대 생활을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짓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졸업 후 포병장교로 복무할 것을 지원하였었다. 2년 후 그는 육군 항공대로 배속되었는데 특히 하늘을 날겠다는 의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며 포병장교로서 가장 효과적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서였다.

어느날 그가 공중 관측사의 보고를 받아가며 어떤 목표에 포문을 집중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그는 생각하길 만일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포병대를 직접 지휘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곧 비행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고, 1930년 6월 그는 조종사가 되었다.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그의 생애는 조인으로서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는 유능하고 분명한 항공사로서 인정받았다. 3년 간 B-9형기를 조종한 큐타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폭격술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만큼 훌륭한 비행 생활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군 최초의 특수 비행쇼 팀의 일원으로 비행술에 있어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것이다.

장래가 유망하다고 인정된 큐타는 항공 전술 학교에 입교되었는바 여기에서 1935년 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교관으로서 4년간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중 큐타 교관은 비행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공의 역사와 장래를 생각하면서 항공기가 단지 적군 사력에 대항하여 이를 막아만 내는 그런 소극적인



〈허큐레스 탄의 모형도〉

무기가 아니요 보다는 이는 이러한 경지를 넘어서 적의 생산 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전력을 총망라하는 전략적인 무기라는 것을 강조 하였던 것이다.

조지·마샬 장군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1939년 7월 1일 당시대위였던 큐타는 다른 8명의 젊은 장교와 함께 참모총장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9명의 장교들은 일반 참모진과 함께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이 유럽 전쟁에 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 마샬 장군은 새롭고 사 고력이 깊은 것을 원하였으며 이런 것은 다만

젊은 청년 장교로부터 기대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옳았다. 항공대 전쟁 기획처에 배속된 큐타는 당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전쟁 기운에 대비하는 공군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던 것이다. 그가 맡은 계획은 진주만이 기습 당하기 5개월 전에 완성되었고 이는 2차 대전을 통하여 거의 틀림없이 맞아들어 갔던 것이다.

큐타의 이러한 탁월한 역할은 그로 하여금 우수한 전략 계획가로서의 이름을 떨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불과 10개월 밖에 안된 소령이었으나 그는 36세의 약관(若冠)으로 이로부터 불과 2개월만에 윌리엄·셔만 장군 이래 미 육군에서 가장 젊은 — 나이로서 장군(준장)으로 승진되었으며 이는 당시 조지·마샬이 지휘하는 육군 내에서도 가장 젊은 장군이었던 것이다.

항공군의 참모 부장으로 임명되어 그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유럽 지역으로 1942년 가을 배치되었다.

4개의 폭격 비행 전대를 직접 지휘하는 일방 영국지구(地區)의 작전을 도맡아 본 큐타는 기술적으로 이를 통합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화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동시에 목표에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이점을 만들었으며, 또한 한 목표의 공격에 있어 두 번을 되풀이할 필요 없이 유효한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많은 시간을 워싱턴에서 주로 전략 계획 수립을 도모하는 데 보냈으며, 1944년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그의 의견은 퀘벡이나 카이로 혹은 런던 등지에서 개최되었던 연합군 참모총장 회의에서 크게 반영되었던 것이다.

중전 후 큐타 장군은 현재 미국의 국제 항공 협정을 준비한 회담의 미국 측 대표로서 특명을 받아 파견된 바도 있다.

1948년 그는 미 공수부대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냉전 상태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임무 즉 베를린에 있어서의 디렘마와 한국 동란(動亂) 시에 유감없이 그의 책임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1955년에 이르러 미 공군의 인사 참모와 미 공군대학장의 자리를 거쳐 4성장군의 명예를 차지했고 미 극동 공군 사령관으로서 일본 동경에 주둔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는 태평양 공군 사령관의 직을 거쳐서 작년에 퇴역한 페트리 쿨 장군의 뒤를 이어 북미 방공 사령부(NORAD) 총사령관으로 취임된 것이다. 공군 당국에서는 방공 사령관을 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인 공격 방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구했던 것이며 레리·큐타가 바로 이러한 정세의 요구에 적응된 것이다.

방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가진 큐타 장군이야말로 비범한 인재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는 현재에 있어서도 전쟁의 승리는 공격에 있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군의 예산도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공격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략 공군 사령부나 포라리스 유도탄으로 장비된 잠수함대 등 보다 기동성 있고 훈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오늘의 북미 방공 사령부는 전 서구 세계의 군사적 안전 보장의 키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만일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나아가 평화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그러한 상태로 이끌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핵의 힘으로 인한 멸망의 상태에서 구제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고 그는 믿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끌고 나가는 북미 방공 사령부는 지금도 조금의 여유 없이 매분 매초 자유 진영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전선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조기성(曹基成) 역(譯)〉

## 〈후의 평화적(平和的) 공존론(共存論)과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의 본질(本質)〉

유완식(兪完植)



소련이 ‘평화적 공존론’ 과 ‘전쟁가피론’ 을 문헌으로써 세상에 내놓은 지도 벌써 5개년이 가까워졌고, 사실상 그것을 정책으로 표방한 것은 마렌코브의 거세에 따르는 후루시초프 불가닌의 집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여튼 평화적 공존의 표방은 소련의 외교 정책에 일대의 전기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1956년 4월의 제네바 동서 네 열강 정상 회담 그리고 그 후에 연달은 동서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에 의한 국제 냉전의 완화는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

존 정책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서 후루시초프의 파리 정상 회담의 일방적 파괴, 제네바 10개국 군총 회담에서의 소련 대표의 일방적 퇴장 또는 쿠바·콩고 중 근동(近東)에 대한 소련의 집요한 세력 침투의 술책 등 일련의 심상치 않은 국제 긴장이 조성되어 후루시초프의 대외 정책이 스탈린 시대로의 복귀와 같은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존론’ 을 다시 음미해 보는 것은 소련의 변전(變轉)하는 대외 정책의 밑바탕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1. 평화적(平和的) 공존(共存)과 전쟁가피(戰爭可避)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

1956년 2월 11일에 열렸던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소련 수상 후루시초프는 회의 보고 가운데서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몇 가지 원칙적 문제’ 라는 표제하에 ‘여러 나라들의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형태’ 라는 이론적 명제와 함께 ‘평화적 공존’ 및 ‘전쟁 방지의 가능성’ 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명제들은 1957년 11월 사회주의 여러나라의 공산당 및 노동당 회의에서 채택된 소위 ‘모스크바 선언’ 으로 모든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이해시켰다.

그런데 이 명제들은 모두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비하여 스탈린 시대의 악명 높은 폭력 외교 또는 긴장 외교를 지양하고 새로운 대외 정책상의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및 군사 분야에 관한 국제적 여러 조건의 격변에 대한 고려 없이 구태의연한 스탈린 식의 정치, 외교 방식으로서 는 도저히 세계 적화(赤化)의 복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그러면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존’ 과 ‘전쟁 방지의 가능성’ 은 어떠한 이론에 근거하는가?

먼저 ‘평화적 공존’ 에 관한 이론을 본다면은 자본주의 여러나라의 발전은 불균등적으로 수행된다는 이론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얻고 있다. 즉, 모든 자본주의 국가 간에는 자체의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자본주의의 발전 템포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내의 모순의 양성과 그의 발로 정도도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의 성숙도도 각각 다르게 되어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 제국의 동시적인 사회주의 혁명의 폭발이란 있을 수 없고 결국 한나라 혹은 몇 나라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정권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 개 또는 몇 개의 나라가 사회주의화된 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될 때까지의 일정한 기간은 불가피적으로 공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 체제 사이의 공존은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또한 이 평화적 공존은 평화적 경쟁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적 경쟁이란 양 체제 사이의 경제력의 향상, 이데올로기의 경쟁을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전쟁 방지의 가능성’ 에 관한 그들의 이론을 본다면은 자본주의 제국은 공업 생산품의 과잉으로 인한 판로의 추구, 군수품의 수요 증대로 인한 독점 자본가들의 초과 이윤의 획득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본질상 전쟁을 원하고 있는 것이나, 사회주의 제국은 그러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역사가 가장 오랜 소련은 항상 전쟁을 반대하여 왔으며, 침략을 감행하여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원하고 있는 자본주의 진영과 전쟁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이 현존하고 있는 현 국제 정세하에서 전쟁 방지의 가능성은 양 진영이 모두 핵무기와 유도탄 등의 대량 살육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의 대수 인민이 전쟁을 증오하며 평화를 위하여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진영 측에서 감히 전쟁을 야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한다.

## 2. 평화적(平和的) 공존론(共存論)과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에 은폐(隱蔽)되어 있는 침략성(侵略性)

공산주의 이론의 원천은 물론 마르크스·엔겔스의 학설이다. 현 세대에 있어서 후루시초프를 비롯한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이며 레닌주의자로 자처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산국가의 정치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된다.

과연 마르크스·엔겔스의 학설은 당시 즉, 19세기 중엽에 있어서 산업 혁명으로 초래된 경제 제도의 격변, 정치 관계의 과도기적 동요 등에 의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를 분석하고 그 사회적 부정을 갈파(喝破)하였다는 면에 있어서는 역사적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며, 많은 사회층이 한때 그것에 호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유럽과 미국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 및 노동 입법에 의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 이룩되기에 이르러 마르크스·엔겔스의 과격한 계급 투쟁론이라든가 사회혁명에 관한 이론은 새로운 사회적 조건하에서 벌써 의의를 상실하게 되고 마르크스·엔겔스의 지지자들도 격감하여 버렸던 것이다.

그러한 사정 밑에 러시아에서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10월 혁명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풍론적 사회 발전 법칙이나 노동 계급의 사회주의적 의식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 아니고 소수 마르크스 주의자—볼셰비키의 영도 아래 제1차 세계 대전의 와중에서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러시아 제정 정권을 자유와 빵을 갈구하는 러시아 민중을 선동하여 타도한 것이다.

레닌을 비롯하여 오늘날 후루시초프에 이르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러시아 10월 혁명을 사회적 발전 법칙에 따르는 필연적 소산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세계 공산화의 효시로 삼으려는 데서 논리적 모순에 당면된다.

러시아·볼셰비키의 지도자였던

레닌 자신도 마르크스 주의를 마치 성서(聖書)의 교리(敎理)와도 같이 도처에서 인용하면서도 그 이론과 모순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빈번히 당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르크스 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어구 밑에 그의 도피로를 찾으려 하였다. 즉, 레닌은 마르크스 주의의 명제와는 분명히 배치되는 이론을 전개하면서도 견강부회하게 ‘마르크스 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하여 마르크스 주의의 파산을 방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레닌의 모든 혁명 이론은 마르크스의 세계관 또는 역사관에서 있는 것이므로 그에 의한 마르크스 주의 명제의 부정은 결국 자신이 전개한 이론의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기적적으로 성취한 러시아 10월 혁명에 대한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한 필연성의 이론을 내동댕이치고 마는 것이 되며, 그 결과는 그들의 세계 혁명에 관한 전략 전술에 치명상을 주기 때문이다.

레닌이 그의 1916년 저작 「제국주의론(帝國主義論)」에서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발전의 불균등성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 것도 사실은 마르크스 주의의 명제에서 이탈된 것이며 마르크스 주의 명제에 충실하고 러시아 혁명 수행에 암으로 되어있던 프로쓰끼의 「영구혁명론(永久革命論)」—세계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만 그 혁명이 승리할 수 있으며 그의 객관적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혁명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즉, 레닌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먼저 수행하겠다는 야심에 불탄 나머지 마르크스 주의의 명제를 저버리고 억지로 머리를 짜낸 것이 상술한 「세계(世界) 자본주의(資本主義) 발전(發展)의 불균등성(不均等性)」과 「일국사회주의(一國社會主義) 혁명(革命)의 가능성(可能性)」에 관한 이론인 것이다. 그랬으면서도 레닌은 이 경우에도 역시 마르크스 주의의 명제와의 상반성을 지적한 대신에 마르크스 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 하여 마르크스 주의의 생명을 옹호하려 들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레닌이 또는 그 후 스탈린이 자본주의 여러 나라 사이의 발전의 불균등성을 논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문제를 이론화하는 데에 의도가 있는 것이었고, 결코 오늘날 후루시초프가 말하는 ‘평화적 공존’을 명제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레닌은 그의 저서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스탈린의 마지막 저서(1951년 저술) 「소련에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經濟)의 체문제」에서도 역시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레닌의 자본주의 제국 사이의 발전의 불균등성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존’ 이론은 일방으로는 레닌의 자본주의 제(諸)국가간의 발전의 불균등성과 유기적 관련하에 있는 전쟁불가피론에 의해서 결국 부정되고 만다. 이렇게 고찰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의 명맥을 이루고 있는 레닌의 이론적 명제에 중요한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존론’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은 자명지사라 할 것이다.

후루시초프는 자신도 그러한 점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부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종처(腫處)가 꼬집어질 것 같으면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상투적 용어로 연막을 치고 마는 것이 일수로 되어 있다. 후루시초프가 공산주의(共產主義) 이론(理論)과 정책(政策)을 기초(基礎) 지어주는 세계관(世界觀) 즉, 유물변증법(唯物辯證法)과 유물사관(唯物史觀)을 마르크스·레닌 주의 의에서 얻을 수만 있다면은, 오늘날의 국제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의 수립에 벌써 일부분이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버리고 만 마르크스·레닌 주의 이론을 헌신짝 같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사정에 있기 때문에 검은 뱀보가 들여다 보이는 기만적인 논리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데에 그의 커다란 고충이 깃들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은 평화적 공존론의 성립에 불가결의 요건으로 되고 있는 평화관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제국, 특히 소련이 어느 때나 평화를 원하였으며, 또한 침략행위를 한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고 한 것은 공산주의자들 치고는 너무나 서투른 거짓말이다. 1917년 11월에 소비에트 러시아가 형성된 이래 끊임없이 침략을 감행하여 인근 지역을 병합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1939—1940년 사이에는 바르트 연안에 있는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한 엄연한 침략 사실을 묵살하고, 그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원하였기 때문에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 염원을 실현시켰을 따름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실로 언어 도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소련은 헝가리 의거의 유린, 한국 전쟁의 사주 등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나라가 전쟁을 활력소로 삼는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벌써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1898—1900년 미서(美西)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의 효시로 규정하고, 그 후 1905년의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1935년의 이탈리아·에치오피아 전쟁들을 들어 제국주의에 내재한 모순의 산물로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전쟁을 자본주의 국제 관계의 필연적 소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전쟁에 다소간 침략성이 내포되고 있는 점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결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역사 발전의 필연성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전형으로 규정짓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예에서만 보더라도 이 전쟁의 발발에는 경제적 인소(因素) 즉, 식민지 획득, 상품 시장의 팽창욕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빌헬름 2세의 정치적 모험심, 민족적 편견 등의 관념적 요소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빌헬름의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능히 그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쟁이 자본주의 제도에 따르는 필수적 산물이라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9년의 세계적 대공황을 전후하여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보았을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계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평화주의를 일관하게 주장하여 왔다. 미국은 세계전쟁의 발원지인 유럽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럽 내의 세력 균형을 조정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열강이 과거에 식민지로 얽매어 있던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해방시키고, 민족자결을 보장하여 온 역사적 사실들은 제국주의 팽창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비난을 뒤집어 엮을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의 서방 열강의 그와 같은 평화 노선은 그들의 민주주의 또는 국민민주주의의 발전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즉, 이 나라들의 정치가 공산주의자들이 증상하듯이 소수 특권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방대한 공업 생산력은 보다 광대한 상품 시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써 전쟁의 불가피성을 운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 미국의 실례를 본다면은 국민의 구매력의 향상 저개발 국가 또는 민주 우방에 대한 원조 등에 의하여 격별한 난관 없이 생산과 소비 간의 조절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생산력이 부단히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전쟁없이 자본주의 발전의 길이 작작(綽綽)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1951년 소련공산당 19차 대회(스탈린을 대신하여 말렌코프가 보고)와 스탈린의 저서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제(諸)문제」에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제국(諸國)은 초과 이윤의 추구라는 모순된 자본주의의 경제 법칙하에서 생산이 부단히 담보 침체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후루시초프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스탈린의 그러한 현실 왜곡을 비난하고 최근 수십 년간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부당한 생산 발전을 인정한 것은 하나의 연극과도 같은 일이다.

요컨대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존’ 과 ‘전쟁 방지의 가능성’ 에 관한 이론은 엄밀히 검토된 과학적이론이 아니며, 레닌주의라는 이름 아래 현 국제적 조건하에 세계 적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 전략 전술을 짜내기 위한 날조된 이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즉, 핵무기 유도탄 등의 대량 살육 무기의 발전, 중립 주의 국가 및 신생 독립 국가들이 광범히 등장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는 스탈린 시대의 폭력 및 위협 외교보다는 평화를 표방하고 미소를 지우는 것이 세계 적화에 보다 효과적이며, 소련의 침략적 본질을 감싸는데도 유리하다는 모략적 견지에서 유출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적 공존’ 의 간판을 메고 나선 후루시초프의 그간의 모든 평화 유린과 음흉한 공산 팽창의 길은 그 이론의 기만성을 행동으로서 보여 주었다 할 것이다.

### 3. 평화적(平和的) 공존론(共存論)과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을 위요(圍繞)한 소련(蘇聯)과 중공(中共)의 대립

소련과 중공이 모두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가졌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그 정책의 지침으로서 표방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회주의 체제가 각기의 역사성,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그의 시책에도 다소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자 자신들이 인정해 왔다. 그러나 그 시책의 차이점은 본질적이 아닌 점에서 그렇지, 본질적 면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타협하지 않는다. 그 실례로서는 유고슬라비아 문제를 들 수 있다. 스탈린은 1948년에 유고슬라비아의 부농 옹호 정책 및 공산당의 영도성에 대한 격하 등이 사회주의의 본질에 배치된다 하여 공산권 내에서 추출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 특히 자유 진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한 걸음도 이탈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의하여 크렘린에 연결된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국제 외교의 총 노선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공은 공산권 내의 그와 같은 엄한 규제를 대내 및 대외 정책의 양면에서 범해왔다. 중공이 유고슬라비아의 전철을 보기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돌된 나머지 감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공산권 내에서의 그의

비중이 큰 데에 유래된다.

다시 말하면 공산권 내에서의 중공의 이탈은 공산 진영에 치명적 타격을 가져 올 것이므로 소련은 유고 슬라비아를 버리듯이 가볍게 중공을 버릴 수 없고 다소의 양보를 하더라도 중공과의 유대를 유지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공은 독자적 견지에서 소련의 비위에 거슬릴 망정 배짱 있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적 공존’ 과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에 대한 중공의 반대는 그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명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보다도 도리어 중공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벌써 세계의 광대한 지역을 석권한 소련은 현 국제 정세하에서 전쟁보다도 평화의 슬로건이 소련의 팽창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만은 중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중공이 초미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대만의 강점도 결국 무력적 방법에 의하여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침략적인 중공은 평화주의에 얽매인 국제 관계의 현상유지보다는 국제 긴장의 양성에 의한 세력 팽창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하였으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공이 현상에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종래 대내적 안전 및 공고화에 만 주력을 돌리다가 최근에 겨우 대외적 팽창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주관적 조건과 아시아·아프리카에 수많은 신생 독립 국가의 탄생과 그들의 중립주의에 따르는 동요 등의 객관적 조건은 중공의 침략적 본성을 고무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현상 유지 즉, ‘평화적 공존’ 이 가져오는 현상유지는 중공의 그와 같은 침략 야욕을 조절시키는 결과가 되며, 또한 중공이 소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동유럽 위성(衛星) 여러 나라와 같은 예속적 지위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중공 자신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평화적 공존’ 을 반대한 다른 인민 공사(公社)를 비롯한 과격한 사회주의 정책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인민의 시선을 국제 긴장에 돌리려는 데 있다. 중공도 소련의 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명제는 자체의 사회주의 정책을 뒷받침하여 주는 한 그것을 강조하여 왔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말로 회피하여 버린 것이고, 그 이론과 명제가 어느 때나 자체의 독자적 노선을 규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모택동의 지난날의 사회주의 정책이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중공의 부농에 대한 점진적 개조정책, 상공업에 대한 공사합병

및 국가 자본주의 정책 등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택동은 사실상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신축성 있는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 온 것이다. 그러한 중공이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존론’ 과 ‘전쟁가피론’ 에 대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정이라 하여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이론상이라기보다도 정략(政路) 상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공이 소련에 대하여 정략 상으로 보다도 이론상의 뉘앙스로써 도전을 표면화시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중공의 그와 같은 정략은 침략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골화시키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가져올 것이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적 이론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침략성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불과하다.

오늘날 소련 공산당 간부회의에서도 수스로프를 중심으로 하는 일파가 소련의 과감한 팽창 정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평화적 공존론’ 을 반대하면서 후루시초프파와 맞서고 있는 실정은 저반(這般)의 사정을 더욱 똑똑히 하여 준다.

하여튼 후루시초프 자신이 중공의 그와 같은 이중적 심산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정략 상으로 중공에 대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의 명제를 가지고 표면상 대결하고 있는 것은 연극성을 띠고 있으면서 한편 양자 간의 견제와 반발의 암투이기도 한 것이다. 중공은 1957년 11월 이른바, ‘모스크바 선언’ 을 기초할 때에도 ‘불화적 공존’ 과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6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렸던 9개국 수뇌 비밀 회담을 전후하여 그 문제를 둘러싸고 소련과 중공의 대립이 노골화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쿠레슈티 회담에서 후루시초프는 중공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전쟁불가피론은 현 정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해석에 있어서 소련이 지도적 입장에 서야 함을 시위하였던 것이다. 후루시초프는 또한 “만약 레닌이 지하에서 되살아난다고 하면 그들의 귀를 끌어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암암리에 중공 지도자들에 향하여 독설까지 퍼부었던 것이다. 이때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과 위성 여러 나라의 대표들은 후루시초프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하였음에 반하여 중공 대표 팡진(彭真)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침략전쟁의 욕도는 남아 있다고 응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직후 중공의 북경일보 사설에서는 딱 짝어서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크렘린 지도자들을

가리켜 마르크스·레닌주의 명제와 상치되는 현대 수정 주의가 나타나 제국주의와 타협하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난 6월 23일 소련의 커뮤니스트지는 역시 뚜렷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평화적 공존, 군축 정책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후퇴라고 보는 정치지도자는 독선주의자요, 좌익 종파 주의자이다.” 라고 단정하였고, 그 후 푸라우다지에는 「현대의 좌익 소아병」 이라는 논문까지 실리기에 이르렀다. 지난번 북경에서 열렸던 세계노련이사회(世界勞聯理事會) 석상에서 중공 전국총공회(全國總工會)의 유녕일(劉寧一) 주석과 유장승(劉長勝) 부주석은 평화공존과 전쟁 방지의 가능성을 비판하는 연설 가운데서 “모든 전쟁을 모두 다 방지하고 회피함은 과오이다. 전쟁에 대한 성질을 구별하여 이에 대한 태도를 정하여야 한다.” 고 하였고, 또한 “현재 일부 사람들은 (후루시초프 등을 지적인 것임) 전면적인 완전한 군비 철폐안이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실현된다고 하며, 이러한 제안에 의거하여 전쟁의 위험이 근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고 반박하였던 것이다.

서상(敍上)과 같은 소련과 중공 간의 설전은 최근에 이르러 행동상으로 표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소련 공산당이 세계의 「모든 공산당에 반 중공선언문」 을 배포함으로써 공산 세계에 대한 소련의 영도권을 반항하는 중공 측의 도전적 태도를 집단적지지 밑에 규탄하려 하고 있다는 점, 중공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인 기술자가 현재 매주 100명 이상씩 철수하고 있다는 점, 중공이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중·소문화회의를 보이콧했고 소련은 중·소 우호 관계를 위한 두 잡지 두루즈바(우정)·기다이스키(중국)를 중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4. 평화적(平和的) 공존론(共存論)과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의 장래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존론과 전쟁가피론은 공산주의자들의 교리로 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를 두는 일관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현 국제적 조건에서 세계 적화의 변종된 전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장차 국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지양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핵무기·유도탄 같은 대량 살육 무기의 동서 양 진영에서의 보유는 후루시초프로 하여금 “평화 공존은 이미 소련 외교 정책의 기본입은 물론,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확립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인 만큼 동서 양 진영 간의 힘의 균형이 쉽사리 깨어질 것 같지 않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후루시초프의 평화적 공존론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나 만약 동서 간의 균형에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평화적 공존론도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평화적 공존론 밑에서도 소련의 세계 적화 정책은 그들이 공언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유출과 흥정 외교에 의하여 집요하게 존속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하면, 평화적 공존을 표방하는 소련의 외교는 서방 측에 대한 힘의 득승을 위한 간계(奸計)이며 한편 무력 침략의 가능성을 얻기 위한 흉책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적 공존과 군비 축소는 유기적 연관성을 띠는 것이며, 군비 경쟁의 지양이 평화적 공존을 뒷받침 할 것인데 원래 소련의 평화적 공존론이 평화 애호의 정신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서 양 진영의 군축 달성은 지난하다는 것이 식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되고 있다. 소련이 현재 군축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감시와 사찰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서방 측의 합리적인 군축 제안을 반대하고 하등 실현성이 없는 전면적인 완전한 군비철폐안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저반의 사정을 입증하여 준다 할 것이다.

소련과 중공 간의 평화적 공존과 전쟁가피성을 둘러싼 대립도 그것이 양자의 세계관에서 오는 본질적 차이에서가 아니라 각기의 세력 팽창상의 이



유엔을 통째 삼키려는 후루시초프의 망상

해 관계에 기인된 정략상, 또는 전술상의 알력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유대의 최종적 결렬을 상호 두려워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어떠한 폭발점에까지 도달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소련과 중공은 조만간, 후루시초프·모택동 회담을 거쳐 쌍방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 데에 힘쓰리라고 예측된다.

(필자·공군 대학 강사)

## 소련의 위협정책과 자유진영의 과제

W.W. 로스토우  
이인섭 역



현 세대에 있어서의 소련의 위협 정책의 진수를 이해하려면 사실상 소련은 이것을 경쟁적 공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분석하여 나가서 그들의 이른바 궁극적인 경제적 과업이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소련 정책의 목적이 근본적으로는 군사·정치 및 심리학적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소련으로 하

여금 공업 기술의 완숙에의 도달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또한 소연방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광범하고 다양한 군사적·경제적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과 공업 기술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전 직후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붉은 군대의 힘의 과시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두려워할 만한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에서 제라식인 보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력의 스펙트럼을 남김없이 지배할 뿐 아니라 그 위에 또 하나의 지원병이라는 무기를 지니고 있다. 약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현재 소련이 실시하고 있는 만 큼 대규모의 기술 원조 계획이나 무역 및 신용 거래 행위를 예상할 수는 없었다. 현재에 있어서는 소련이 선택만 하면 이와 같은 행위를 정기적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명백한 사실이다.

먼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소연방의

성장률의 상세한 면모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예컨대 소연방의 국민 총생산량의 6% 증가는 다시 말하여 소연방 정부가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이든 원하거만 하면 미화 12억불에 해당하는 물자를 매년 처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미국의 총 생산고가 소련의 그것보다 배액을 넘는다고는 하지만 평균 3%의 경제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약 15억불의 증액분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뒤에서 이와 같은 증액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상이하는 절차의 함축성에 대하여 언급하겠거니와 앞으로 언급할 소련 정책의 특징적 스케일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것보다도 훨씬 적은 연 증액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의하여 부여되는 능력과 융통성의 광범한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다.

### 전면전쟁(全面戰爭)의 위협(威脅)

소련 정책의 중점이 비군사적 투쟁이라는 말로 소련 인민 자체와 전세계 인민들에게 선전되고 있으나 사실 그들의 군사적 노력이 감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만일에 미국의 보복력을 일거에 격파하기 위한 핵무기로써 충분한 수확을 올렸다고 소련이 수립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소련 정치 제도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행동을 억제하는 요소가 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만일의 경우 군사역량의 불균형에 기인한 균열 상태가 그들에게 서술한 바와 같은 사고 방식을 택할 기회를 주는 때에도 미국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도 없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미국인들이나 자유 세계 인민들이 소련의 정책 수립자들로 하여금 인간이나 신의 앞에서 이러한 가능성으로 유혹할 권리를 포기하게 할 것을 맹세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나 앞으로 수년 동안 우리가 고도로 훈련·분산된 방위 체제를 완성시킬 때까지 이러한 행위의 진로를 꺾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소련의 유도탄 공격에 대하여 우리의 폭격기대들을 즉각 비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기 경보를 발하는 능력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안전이 매어 있는 이러한 가느다란 선이 소련의 위협을 재래식의 경제적인 용어로써 분석하는 위협을 설명하는 것이 되고 있다. 특히 1953년 이래 로켓 탄두에 핵탄두를 장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로 명백해짐에 따라 소련은 이러한 특수 무기의 중점적인 발전에 뛰어 들어갔던 것이다. 미국 군사 정책의 위협성은 근년에 이르러 미·소

양국 군사력의 전체적인 비교에서 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분야에서 소련이 성취할 수 있는 비교적 협소한 분야로부터의 이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비록 소련 정부가 유사시 일격으로 미국의 보복력을 파멸시키기 위한 역량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확실성 내지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그들 군대 내에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공군력을 포함한 군사적 목적과 군사적 교리의 배치는 그들이 세계적 우월을 달성하는 공존 혹은 비공존을 향하는 여러 개의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바 유도탄 발전에 전적으로 치중하고 있다.

### 제한전쟁(制限戰爭)의 위협(威脅)

서상한 바와 꼭 같은 이유 아래 전면적인 원자 전쟁에 이르기 몇 발자국 앞에서 무력을 사용한다는 소련 군사적 교리와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력의 배치가 폐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반면에 소련이 그들의 군대로 하여금 재래식이건 전술적 원자무기이건 간에 전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지상군의 현대화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확증이 있다. 더욱이나 1955년의 제네바 회담이 이집트에 대한 분열적인 체코슬로바키아 무기의 공급을 유치한 것과 같은 이유로 현재의 군비 감축 내지는 제한의 가능성을 위한 탐구는 중공군의 남방 여러 나라의 국경 침범이라는 사건을 유치하였다. 이렇게 활발한 위협은 미국과 소련 경제의 비교학적 경제 분석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자유인민들은 과분한 조건일지라도 제한된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문제의 입안에 최대의 흥미를 가져야 한다.

첫째로 1947년 이래 즉 희랍(그리스)나 토이기(터키)에 대한 위협에서 금문(金門)·마조조(馬祖島)에 대한 최근의 공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전략적 공군력의 사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제한된 대책을 황급히 동원하는 제한된 침략에 직면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현실이 한쪽에서는 외교 정책상의 이론과 예산의 할당에 있어서 핵무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스러기가 떨어진 다음의 우리의 정책 간에 언제나 불균형이 있어 온 것이다. 만일 우리의 상대방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때 제한된 침략전을 걸어온다면 제2차 대전 종결 이래의 휴전선으로부터 약간의 침식을 받았음을 보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량 무기의 중점적인 연구는 과거에 있어서 제한 전쟁을 유혹하였고 앞으로도 다시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유럽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제한된 전쟁의 위험이 상존(尙存)하는 정세를 받아들일기를 날로 싫어하는 하나의 경향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은 소련의 유도탄이 그들에게 분명히 압도되는 환경 하에서 핵무기로 반격하리라는 사상에 의존하고 미국이 이 때에는 직접 공격을 할 것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사려 깊은 유럽인 중에서 동지역에서의 안정은 증가되는 비핵무기적 힘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끝으로 아마도 이상 말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일 핵무기의 국제적 관리를 향하여 전진하려면 우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선택적인 재래식 기초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장구한 시일에 걸쳐 착실한 걸음으로 우리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대단히 낮은 수준의 각종 군비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정에서 핵무기를 중립화시킬 수 있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어떤 형태의 방위 체제를 쌓아올리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과 안정을 갖고 협상할 수는 없다.

간단히 말하여 핵무기의 관리로 향하는 일보 또 일보의 전진에 대한 하나의 확고한 제안을 제시하려는 소련의 도전을 포함하는 그들의 전체적인 공세의 성격상 우리가 과거 15년 간에 걸쳐 우리들이 취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제한된 형태의 침략을 저지하는 문제를 다루기를 요청하고 있다.

### 외교적(外交的) 협박(脅迫)

1956년 초 이래 백림(伯林=베를린) 위협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련은 수많은 사태에 처하여서 그들의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도탄의 능력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가하여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학적 분석에 관련하여 정의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위협인 바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단순한 신경과 의지에 대한 시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저개발(低開發) 지역에 대한 정치적(政治的) 침투(侵透)

소련의 대 아시아·중동지역·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정책은 경제 공세라는 표제 하에 날이 갈수록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미·소 양국의 원조를 양적인 면에서 비교·검토하려는 복잡한 노력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자유 세계 내부의 저개발국에 대한 소련의 기술적·경제적 원조 뿐만 아니라 소련의 통상 정책이 세계의 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러한 지역에 정치적 영향과 동정을 싹트게 하는 현저하고

의의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낮은 범위에 한정된 분석은 가끔 소련의 위협 정책의 주요점과 기본적 성격을 간과하기 쉽다. 공산주의 사상·문서 혹은 정책에서 본다면 아시아·중동지역·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그들의 목표가 1927년에서 1949년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에서의 역사의 반복이라고 믿고 있다. 소련의 분석가들은 현대화 및 경제적 성장 문제를 파탄과 내부적 교란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들 전통적인 여러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수락하게 될 방향으로 해결시키는 것과 같이 된 이 지역에 있어서의 비 공산주의 정권의 소위 진보적인 실패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므로 저개발 여러 지역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중심적인 도전은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기술적 원조 내지는 차관을 어느 정도 앞질러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이 이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공세는 실로 이들 전통적인 여러 사회가 그들의 독립권을 상실함이 없이 또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가능성을 폐쇄함이 없이 현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 한도로 공여하도록 계획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성취하는 과제는 미국과 자유 세계의 자원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다. 소련의 원조 및 통상정책은 이러한 공세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모스크바 정권이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배로 향하는 길을 크게 경계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도전과 흥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소연(驟然)한 협박을 이용한 접근을 포기하고 문제를 똑바로 관찰함과 동시에 이들 전통적 사회의 현실적인 제문제(諸問題)를 통찰함으로써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 심리학적(心理學的) 환상(幻想)

소련 정부는 마치 서유럽의 여러 국가 상호 간에서나 또는 서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 진영 내부에서의 분열 상태의 발전의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동·서 양 진영 간의 통상 제안 역시 소련 정책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무기는 모스크바가 동독을 지배하고 그럼으로써 독일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식의 군사적·정치적 및 심리학적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주요 노력은 다만 미국과 소련의 성장률에 비스듬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새로운 미국의 소비보다도 서구 동맹국 내에서의 그들은 대단히

부유하다——새로운 제도상의 협정이나 사상에 근거한다.

세계의 정복을 위한 돌과 작전을 준비하고 또한 성취하기 위한 각종 각양의 노력을 지지함에 있어서 소련방은 전혀 특별한 환상을 외부 세계나 소련 인민들 사이에 주입시키기 위한 현저하고 명백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환상은 열광적이고 정력적이며 기술적으로는 경쟁적인 상대자로서 그 자신의 문제마저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선주자들을 뒤따라 가면서 그가 그의 위치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욱 근접해지는 어떠한 형태로 나가려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환상을 외부 세계에 설득하는 데 있어서의 허다한 미국의 공헌을 차지하고라도 이 운동은 소련 정책의 입체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 경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의아스러운 숫자 상의 접근으로써 소련 경제의 높은 능력과 공업 기술상의 완숙에 결코 뿌리박고 있지 않은 것과 유도탄 기술(군사적 및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소련의 과업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지도자로서의 소련의 간극적인 성공적 계획 등이다. 국내적으로 미국의 생활 수준과 미국의 수준을 추월하는 목표를 위요한 소련의 정책 수립은 소련의 사회를 통합하는 데 지극히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소련의 공세의 범위에서 소련 경제의 높은 운동량은 어느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말할 것 없이 그들 공세의 순수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자유진영(自由陣營)의 과제(課題)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미국 내에서나 전세계적인 무대에 있어서의 우리들 사회의 여러 목적에 비추어서 다각적인 소련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행동 노선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일 있다면 효과적인 미국의 반응을 표시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이며 성장률과 경제 정책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미국의 효과적인 군사 및 외교 정책의 요인은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명백히 알려져 있다. 우리들 군사력의 배치에 따라서 어떠한 전면전쟁이나 제한된 전쟁이라도 공산주의자들에게 하나의 효과 없는 불안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아시아·중동지역·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로 하여금 독립을 유지하며 그들 자신의 사회를 위한 민주적 혁신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 현대화로 달리는 지난한 변천을 통한 전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경제적 자원, 우리의 정치적·인도주의적 통찰력을 아낌없이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창조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소생하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관련성을 맺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공고한 자유 세계의 기반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군비의 효과적인 국제 관리로 향하는 운동의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소련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끝없는 외교적 이니시에이티브와 무한한 동시의 대화를 교환하며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 개의 범주에서 미국의 대외적 경비의 지출을 요구한다. 첫째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소련의 유도탄 우월 기간에 처하여 있는 동안에 해외에 있는 미국의 기지를 강화한다. 둘째 제한전쟁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수 능력을 준비한다. 셋째 저개발 지역에 대한 국제 원조 계획에 있어서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나는 이상의 세 가지 범주를 커버하는 데 충분한 미국의 대외 지출액의 규모에 대하여 추산한 바는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액수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만 말하고 싶다. 미국이 적당한 국민적 노력에 대한 청구서의 금액을 지출할 수 없을 만큼 빈곤하거나 혹은 예컨대 앞으로 10년 내의 미국의 성장률이 커다란 지장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은 절대로 명확한 것이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니 우리들 마음의 태도에 있고 대외 목적을 위하여 배당하는 자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상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려는 방법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미국(美國)의 잠재력(潛在力)

앞으로 10년 내에 이루어질 미국의 성장의 가능성은 만성적인 완전 고용 문제나 국민 총 생산량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연 3%의 평균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게 될 성장의 소용돌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증가를 이룩할 것이라는 데는 약간 회의적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고 이용된다면 4%의 증가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현재 미국의 경제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계의 강력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첫째 인구의 증가, 둘째 연구 발전에 대한 박차, 셋째 사회 총 자본에 대한 사회의 대량적인 수요 등이다. 국민 총 생산량의 4% 증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억 불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고도의 성장률의 성과는 결코 자동적인 것도 아니며 보증받는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여야 하며 생산 증가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철저히 이용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민주적(民主的)인 방식(方式)이 이러한 제문제(諸問題)를 해결(解決)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에서 보아 온 제문제(諸問題)를 해결하는 데 민주적 방식으로 충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민주적 사회가 과거 많은 시기에 이상의 제문제(諸問題)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를 상실함이 없이 많은 경우에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47년에서 1948년의 미국의 마—살 계획은 미국 군사 작전의 자극 없이 성취된 것이며 대외 예산의 대량 증액을 얻는 데 성공을 제래(齊來)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에 힘 입은 바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실을 다만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유추의 기초 위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시대가 다르고, 국가도 다르며 문제 역시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소극적으로 우리들은 근대사상 가장 커다란 네 개의 실패가 모두 우리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포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다. 이를테면 1929년에 사상 최대의 디프레션 당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자체에 수락될 수 없는 커다란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다는 공화당 행정성의 오산을 들 수 있다. 또한 히틀러와 당시의 추축국들과의 타협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구조를 영원히 해치지 않고는 협상할 수 없다는 당시 양당의 고립주의자들의 신념이라든가 혹은 1950년 6월 이전에 우리 사회가 군비 예산으로 15억불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는 민주당 행정성의 오산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독립 이래 175년 간의 경험을 통하여 미국인들은 미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방식은 언제나 완고하지만 곧잘 회복되었고, 역사의 흐름이 우리의 과제를 대신할 어떠한 문제도 취급할 능력이 있을 확신하게 하였다.

**결론**

후루시체프의 소련이 공에 기술적 완속에 도달할 최초의 국가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과거 일본과 독일의 역사에서 보았다.

과거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몇몇 국가들은 세계가 그들이 생각한 바와 같은 조개(貝)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만 전면전쟁에서 패배당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된 뭇을 하게 만들어졌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 있어서 전면전쟁은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때의 구 세력들이 전면전쟁을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유도탄 분야에서의 일시적인 낙후기에 있어서 취약점을 필요 이상 보임으로써 그네들을 유혹하지 않은 이상 그들은 전면전쟁을 야기하여 힘에 의한 대결을 무모하게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의 세계 정복 계획이나 지도 이념 속에는 주로 민주주의 원칙이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데 있다. 소련 내에는 지구의 남반구와 또 미국과의 대결에서 후루시체프마저 무색할 만큼 원자무기에 고도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중공 등 새로운 국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탄한 방법으로 주위의 제문제(諸問題)를 확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후루시체프가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는 수단이 과연 어디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도탄을 이용한 일격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개발 여러 나라에서의 음폐된 위험한 투쟁을 통하여서인지 혹은 소련이 그들의 운명은 하나의 강대국가로써 수락하는 평화를 통하여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와 같은 제문제(諸問題)에 대한 답은 과연 자유 세계가 앞으로 10년 내에 무엇을 얼마만큼하며 무엇에 실패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써 크렘린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평화적 공존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소련의 위협 정책에 반응하는 우리의 힘과 효과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결정적인 시련은 반드시 닥쳐오야 말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오직 의지와 기능과 재능의 자원을 목적 수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동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유 진영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표지설명(表紙說明)〉**

겨울날의 하늘은 회색에서부터 시작된다. 허나 내일을 기대하는 불변의 태양과 그 아래 가늘핀 과목들의 인내는 새로운 싹의 의미, 열매를, 한 개의 꽃을 저 두 줄기의 비약들은 얼마나 힘찬 생의 약동이요 서광(曙光)인가. 그리고 조용한 종언의 그늘에서 송년(頌年)의 불꽃들은 쉬지 않고 타오르듯 미지의 한 해 속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다.  
이희세(李喜世)



## 공항(空港)에서 느낀 공한(空恨)

정병욱(鄭炳昱)

〈서울대학교 문리대(文理大) 조교수(助教授)〉



얼마 전에 국제 학술 회의에 참가차 떠나는 몇 분 학자를 전송하기 위하여 김포 공항에 나간 일이 있다. 우리와 같은 가난뱅이를 위하여 마련된 합승 택시의 신세를 지고 김포 가로(街路)를 달리면서 무언지 호젓한 감회를 누르지 못하였다. 국가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일행이 떠나는데 일찍이 이렇게 쓸쓸한 가운데 그 대표단을 전송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만 내려누르는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부 고관의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운동 선수단, 심지어는 미스코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출국이 아무튼 잔칫집처럼 떠들썩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일국의 학술 대표단이 떠나는데는 이렇게 적요해야만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부질없는 원

망 비슷한 불만을 누를 수가 없었다면 분에 넘치는 욕심이라고 책망할 사람도 있을 법한 세상 꼴이 메스껍기 짝이 없다. 찢줄기로 얽힌 가족 몇 사람에게다가 반도 호텔 앞까지 나갔던 제자 몇이 하도 쓸쓸한 그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휴강을 무릅쓰고 따라나선 것이 곧 이 대표단의 전객(餓客)의 전부였던 것이다.

출국 절차를 다 치른 대표단 일행이 고작 찾아간 곳은 구내 식당이었다. 보아하니 공항 건물 속에 소위 귀빈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속에는 얼마나 귀하신 손님이 들어 계신지는 몰라 그러되 한 나라의 학술을 대표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박사님들이 자국 공항 건물의 귀빈실에 들 자격이 없는 것일까 생각하니 진정 한심스런 조국이기도 하다. 언젠가 정부의 모 각료가 해외로 떠날 때에 송영 타일이 좁아서 대혼잡을 일으켰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그 각료가 해외에 나가서 올린 성과와 이 학술 대표단이 국제회의에 나가서 거둔 효과를 비교하여 봄직도 할 것 같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오묘하고도 조출한 이 일행의 행색이 오히려 호감이 안 가는 배는 아닐 것 같다. 사실 학문하는 사람치고 흰소(喧騷)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문하는 사람이 명예나 지위나 물욕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학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마련인 것이다. 밤이 깊도록 깊은 사색에 잠기고 자료를 뽑고, 글을 쓰는 생활의 연장이 곧 해외여행이라 친다면 굳이 잔칫집 마당 같은 전승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일이기도 할 것 같다. 그러나 떠나 보내는 사람으로는 아무래도 밤에 비단옷을 입고 산길을 걷는 것 같아 먼구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일인(日人)의 이른바 교육 칙어(勅語)를 능숙하게 읽어내던 그 입으로 훈민정음 서문을 제대로 읽어낼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그 입으로 제법 만만년 빛나는 역사니, 우리는 찬연한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 민족이니 하고 떠벌리는 것이 누구의 덕택인지 짚음

생각할 법도 한 일이다. 학자를 학대한 민족의 말로가 어찌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칠 일이다. 더구나 학문의 권위가 권력과 금력으로 팔려 넘어가는 날 겨레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 정녕 암담한 노릇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학자 학대의 비극의 씨가 일찍이 뿌려졌던 일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오늘날 학술회의의 참가 학자를 냉대하는 데 대하여는 자유당 시대의 문교부가 그 책임의 일부를 지야할 것 같다. 즉 해외에서 무슨 학술회의의 초대가 있을 때에 해부문(該部門)의 학술 단체가 권위 기관에 일인반구의 상의도 없이 일토 당도 않은 인사를 임의로 지명하여 쑥삭해버린 일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름도 성도 모를 인사가 대표로 떠나는데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런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멸시 비슷한 감정까지도 품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래서 학계가 성의가 없으니 사회에서도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쑥스러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한 준비 기간을 가진 연후에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몇몇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한나라의 학술계를 대표하여 보내는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많은 나라의 학자가 모여서 진리를 위하여 토론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일종의 전투이기 때문에 전투에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 치밀한 전략을 책립하기 위하여는 국내 학계의 총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학술회의에 상정될 주제를 공개하여 국내에서 각 부문 별로 공개 발표회 내지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충분한 검토와 비판을 받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결론을 얻은 연후에 적당한 인사를 선정하여 대표로 파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가 싶다.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분외의 우대를 사회로부터 받자는 욕심이 아니라 학자를 대접할 줄 아는 겨레의 장래가 행복한 보장을 받으리라는 신념을 전제로 부질없는 녀두리를 늘어놓아 보았다. 그리고 냉대받는 이유의 하나로 지난날의 폐단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학계 자체가 좀 더 의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밟아서 국제적인 학술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제야(除夜)의 시(詩)

임인수(林仁洙)  
〈아동작가(兒童作家)〉



하루 하루를 의미없이 보내다가도 어찌다가 문득 자기의 존재상을 살펴보며 뉘우쳐 돌아보는 때가 있다.

이것은 아마 인생이 필시 자아 실존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로서 어느 자각된 시간의 잊을 수 없는 실상이리라.

흔히 말하고 있듯이 인간이 생명체로서 만유(萬有) 위에 뛰어난 영성을 띠우고 설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자각적 존재로서 형이상적 사유의 세계를 전개할 수 있다는 데 인생 본연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해마다 찾아오는……또는 되풀이 되는 듯도 싶은

제야의 종소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감각이며 감동을 마음속에 깃들여 볼 수 있던가.

나는 서양에 있어서의 제야의 종소리를 아직 맛볼 기회가 없었다. 단지 그런 의미의 종소리라면 오히려 우리 생활에 곁들여 있는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여기 대신하여 상기해 본다.

혹은 회오(悔悟), 혹은 환희, 누구에게는 평화, 누구에게는 슬픔 혹은 눈물, 혹은 웃음 영광의 찬미가 할렐루야로서 장식이 되고 세상 위에 외쳐볼 만한 자랑도 된다.

묵은 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울려들이자. 기쁜 종을 울리자. 눈 별판 건너로 해는 가련다. 가려거든 가거라. 거짓은 울려 보내고 참것을 울려 들이자. 시인 테니슨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맑고 깨끗한 제야의 종소리는 이미 서양에서 뿐 아니라 동양의 깊은 하늘에서 더욱 맛볼 수는 없었던가 하는 사실이다.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종을 쇠북이라 하였다. 물론 지금 통하는 말일 수 있다. 종은 쇠북입에 틀림없다. 북치고는 아구리가 툭 터진 현대적인 북이라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의 어원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인경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오늘날 인경이나 쇠북이라면 아무래도 불교적이요, 깊은 산 절간(山寺)에 가야만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역사의 유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멀리 고려나 신라 시대를 위시하여 이조 시대에 이르는 동안 불도는 서울과 저자 근처에까지 전파되어 흥성거리게 되었다.

지금이라고 못 듣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독교, 신교 전래 이래 거리에는 보다 더 교회당 종소리가 요란스레 그 쇠북의 은은스럽던 음향을 거의 삼켜버리다시피 독점을 하고 만 셈이 되어 미안한 느낌이다.

나는 잠시 자세를 바로 하고 자리를 고쳐 앉는다. 비록 여기가 심산유곡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문명의 고된 피로에서 내내 잠들었던 심령을 다시금 생신 발자(生新潑瀾)하게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의욕에서이다. 한밤중 고요 가운데 눈뜬 한 개 허무의 입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전통에서 깨어나 볼 수는 없을 것인가.

동양의 영혼이나 서양의 정신이나, 그것이 바로 바탕할 자리란 곧 이 시대에 틀림 없는 것이며, 유유자적한 경지에서 우리들의 세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생명을 마땅히 호흡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일력(日曆)을 살펴본다. 어제까지는 아니 오늘까지는 1960년으로 마지막 날 짜를 계수하는 것이며, 내일부터는 벌써 까마득한 옛날로 넘겨버리고 말 순간이다.

라디오를 틀어 놓는다. 땡, 땡, 땡……기동 시계가 열두 시를 알리고 있다. 그리고는 안으로부터인지 밖으로부터인지 요란스런 종소리가 한데 어울려 그 유중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제야—할 수 없이 또 맞이하게 되는 제야의 소리침이 시작되는 것이다.

격동하는 세월, 물결치는 희비예락을 잠깐이라도 고이 잠재우려는 듯 지금 종소리는 땅과 하늘 사이를 맞받아 울고 있다.

신비로이 명상하는 이에게는 신비로운 그대로, 광란을 치며 돌아가는 무답 회중(舞踏會衆)에게는 광란하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시간만이 말없이 흐르고 있다.

이때 나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고독에 지쳐 돌아와 앉는다. 이제는 다시 헤맬 곳조차 없는 탕자(蕩子)가 되어 기쁨도 울음도 마지막인 채 내가 누울 자리를 살펴본다. 황황히 비치는 등불 아래 어둠은 어둠은 밖으로 쫓겨오고, 왜 눈송이는 소리없이 또 고즈넉 이 마을을 한 빛으로 덮어버리는 것인가…….

종이여, 몸부림쳐 올라. 제야의 종이여—어서 네 고장의 썩어가는 영혼들 위에 깊이 잠들은 영혼 들 위에 골짜기에 마을마다 온갖 사람들의 뜯 시름 위에 현 모자 위에 구둣발 위에 미투리 위에 사뿐사뿐 내려앉는 함박 눈송이처럼 조용조용히 내려와 앉으라.

거기는 내 옛 고향이 머물러 등불 가리고 어둠 속 새까만 어둠을 헤쳐 새로이 동터 오는 산굽이마다 기쁜 빛 환한 얼굴로 날개를 치며 일어서는 마을이 있으려니 노래를 잃었던 한 시인이 이윽고 눈을 떠서 제야의 종소리인 양 선포하는 나라 우리들 만유가 반기는 공화의 터전!

진리여, 자유여 생명여!

생명이 생명들로 더불어 화하여 대답하는 나라.

그 때문에 밤이면 해를 거듭하여 들려오는 제야의 종소리가 있고, 우리들 참회가 있고, 고백이 있고, 예시가 있고, 내 새로운 전망의 회구에 머물지 않는 영원, 기도의 창조적인 발음이 있지 않던가. 아무래도 좋다. 이 해도 저무는 지금 나는 나대로의 너는 너대로의 제야의 종소리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보지 않겠는가?

누나야, 종소리가 들리지 않나……이 해도 저물었다 성탄 종이 우는데 아기 잠드는 조용한 밤을……. 눈은 온다.—안데르센 나라의 색시들……은빛 옷깃 새까야만 눈동자 흰 눈 사락사락 발자취소리. 먼 동이 틀 무렵. 누나야, 꽃버선을 집지 않나. 이 노래는 이 노래대로 저 노래는 저 노래대로 각기 제야를 밝히고 있다. 하나가 보다 의욕적인데 비하여 후자는 정서적인 안착감과 풍토적인 시대성을 점치고 있다.

동양이여, 서양이여, 이곳 제야에 한데 합쳐 오늘의 정신적 정수를 빛나게 울리라.

1960년 불광동(佛光洞)에서

## 크리스마스

김요섭  
〈소년 한국일보 취재부장〉



12월에 들어서면 거리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상인들이 꾸민다고 한다. 극성스러운 상인들이 있는 제주를 다 부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써 크리스마스 대목을 한번 단단히 보자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거리의 쇼·윈도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좋다. 그러나 올해의 서울 거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하는 데 시무룩하다. 신문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왔다고 수선을 떨었으나 카드 가게 앞에 가보면 작년에 팔다 남은 것을 다시 꺼내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빛깔이 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기도 하다.

분명히 슬픈 일이다.

어느 친구가 아무 말 없이 같이 걸다가 물었다.

“어떻게 재미있게 살 수가 없을까.” “날마다 재미있게 살려니까 세상이 재미없지! 일년에 하루쯤만 재미있게 살려고 생각해 보시오. 왜 재미 없을라고” 얼른 이렇게 대답을 했으나 나 자신이 일 년의 하루쯤 재미있게 살아본 것 같지가 않다.

일년에 하루쯤은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때 나에게 다짐하기도 하였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길을 걸다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고 산타클로스를 보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재미있게 지내야 하겠다고 베풀기도 하나 사실 크리스마스를 지내 놓고 보면 멍멍하게 지나쳐 버리고 만다.

이튿날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아슬아슬한 무용담도 있고 얼굴에는 상처도 있다. 어떤 친구는 외투를 내 벗어 버리고 갑작스레 스프링 코트를 어색스레 입고 나왔다. 알고보니, 외투를 빼앗긴 것이다.

주정과 소란의 하룻밤이었다. 어젯밤에 일찌감치 집에 들어간 것을 은근히 마음속으로 다행하게 생각하기로 하였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저녁만 되면 거리가 흥성거리는 것이 싫어서 어느 조용한 양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얼른 들어갔던 것이다.

무슨 못된 심보일까, 모든 사람이 즐거워서 야단칠 때, 오히려 비뚤은 생각으로 조용하게 하룻밤을 보내는 데 더 기쁨을 느끼게 되니 말이다.

이것이 이미 노경에 든 사람의 심정이라 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아직 새파란 나이에 이런 생활 태도는 나 자신이 싫어지지 않을 수 없다.

4·19 때만 하여도 반성할 일이 많다. 군중은 미친 듯이 거리를 노도처럼 흐르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통신마저 밤을 새어 전파를 타고 펄펄 뛰는 활자를 보내왔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였던가, 군중의 물결을 하나의 커다란 바위처럼 바라보고만 있었다.

남들이 흥분하고 신바람 날 때, 같이 흥분하고 신바람 날 만한 정열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채 알지도 못한 딱딱한 문학을 가지고 밤을 새워 친구하고 다투던 밤도 일찍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신바람나는 밤이면 오히려 피해서 조용한 자리를 찾아가게 되니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흥분을 다시 불태울 길은 없다.

크리스마스는 오히려 내 어린 날의 추억 속에 눈 속의 촛불처럼 타게 하련 된다.

이미 나는 크리스마스에 아무런 흥분을 느끼지 않아도 좋다. 즐겁고 신바람 나는 크리스마스는 어린이에게 독차지하여 주고 싶은 생각이다. 그러나 거리는 이상하게 불경기 속에서 음산하다. 극성을 부리고 크리스마스 대목을 한번 단단히 봐야 할 상인들도 별로 크리스마스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쇼·윈도 속의 크리스마스 구경도 못하고 미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축복의 밤이다.

그러나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있어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축복을 받아 왔을까?

오히려 해마다 불행과 더 가까워가는 이 나라 어린이들에게 그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쇼·윈도도 사라지는가.



### 『목석한(木石漢)』

박찬홍(朴贊興)



사람의 손버릇이란 비단 곤궁한 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빈부를 막론하고 선천적인 손버릇이 있고 교양의 여하로서 손버릇이 생기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남이 보지만 않으면 손을 대고 싶어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요 그 충동은 억제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자제하는 것은 교양의 소치라 할 것이다.

만일에 선천적으로 남의 물건에 손대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교양까지 없다면 필경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 손버릇 나쁜 사람이란 무엇이거나 남이 보지만 않으면 본성을 나타내고 만다.

거기에 무슨 이해타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손이 끌려서 못 견디는 모양이다.

수백 수천만의 재산가의 자제가 무엇이 그리우리오마는 흔히 남의 안 하는 것을 저지르곤 한다.

가령 요릿집에 가서 실컷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하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술병이나 술잔 또는 은수저 등 무엇이든 한 가지씩 감춰 가지고 나와서 자기 책상에다 진열해 놓고 오는 사람에게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것이 값으로 쳐서 몇 푼 값이나 되며 무엇이 그리 진기한 것 있는가? 다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게 말하자면 장난꾸러기라 할 것이나 나쁘게 말하자면 지극히 야비한 악습·악취미라고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거기에 무한한 쾌미를 느끼는 모양이다.

남이 앓는 것을 하는 것을 했다는 것 자기 도술이 묘하다는 것 등에 유열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것이 교양이 없는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랴?

교양이 있다면 자기 도벽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한 물건쯤이야 가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재력이 있지 않은가  
또 어떤 사람은 공원이거나 남의 집 정원 같은 데를 가면 기어코 꽃 한 송이나  
무엇 한 가지라도 주인의 눈을 피하여 꺾고야 마는 사람이 있다.

꺾기는 쉽지만 그것을 가꾸는 사람은 무한한 노력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러한 것을 무자비하게도 따버리면 그 주인 된 사람은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그런 것쯤은 전연 머릿속에 두지 않는 몰풍정한(沒風情漢)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계절이 가을이라는 데서 생각 키우는 것이 하나 있다.  
나의 집 대문밖에는 6, 7평쯤 되는 공지가 있고 벽돌담이 둘러싸여 있다.  
그 공지에다 감나무(柿木) 한 그루를 심었다.  
나무는 대개 이식을 하는 해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고 달리더라도 떨어져 버  
리고 마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이 감나무가 이식 후 착근이 잘 되었는지 제법 무성하고 제철에 꽃  
도 피었다.

감나무에 꽃이 피자 집안 식구들과 이웃 친지 여러 사람들의 의론이 분분했다.  
한편에서는 아무리 꽃이 피었어도 금년에는 과실은 먹지 못한다 하고 한편  
에서는 정성만 드리면 많이는 몰라도 몇 개쯤의 수확은 볼 수 있다거니 서로  
들 다투었다.

이윽고 감나무는 꽃이 지고 수십 개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  
집안사람들과 이웃 친지들의 눈은 그곳 즉 감나무로 모였던 것이다.  
그것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계에다 짙어지고 다니는 어린 감나무  
를 사서 심은 것이 그렇게 무성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니 신기해  
서 그랬으리라.

나는 맺힌 열매가 다 떨어지려나 몇 개나 남으려나 심심하면 한 번씩 살펴  
보곤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씩 둘씩 매일같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아마도 시원치 않은가 보다! 하고 모두가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최후로 열세  
개 남았다.

이것도 떨어지지 않으려나 하고 하루 이를 사흘 나흘 일주일을 두고 보아도  
이것만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달려 있다.

이것이 주위의 사람들의 고심의 결정이라 하겠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돌아와 열매는 차츰차츰 붉어지기 시작했다.

서리가 날리어 나뭇잎이 다 떨어진 후 피 벗은 나무에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은 얼마나 보기 좋은 운치일까!

이것을 연상하면서 그의 성취를 기다렸다.  
또 감나무 옆에는 동이에다 심은 석류나무가 있었다.

석류 열매는 모두 일곱 개나 붙어 있었다.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보기 좋게  
꿍어서 가을로 접어들자 제법 어린아이 주먹만큼씩이나 커졌다.

이것 역시 여러 사람의 충애를 받았다. 어느날 아랫집의 아이놈이 울상이 되  
어 들어와서 말하기를 밤사이에 석류 세 개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른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아이들의 장난이 아닐까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할 때 결코 어른애들 장난이 아닌상 싶다.

도대체 집에는 그것을 딸만한 소견 없는 어린아이는 없고 또 어른들의 주의  
가 엄해서 평상시에 꽃 한 송이, 풀잎 하나 손대는 일이 없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한꺼번에 뺏다면 어른의 눈에 띄어 야단이 났을  
것은 뻔한 일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이번에는 주의가 감나무로 향해지게 되었다.  
'저 감도 필연코 손대어질 것이다.'

이것이 걱정이었다.  
석류나무는 동이에 심은 것이니 안전지대에 피난시킬 수 있지만 두 길이나  
되는 땅에 심은 감나무는 피난도 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밤이나 낮이나 지킬  
수도 없는 일이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에게 도적맞는다는 말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난 후 하루아침에 감을 해해보니 밤사이에 네 개가  
없어졌다. 이것이 밤에 없어진 것인지 낮에 없어진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  
여간 손버릇이 나쁜 친구가 저지른 것은 확실하다.

주위의 모두가 분개하고 애석히 여기지만 한번 따간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요  
나머지 아홉 개나 잘 보존했으면 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바랐다.

그러나 도둑질하려는 놈에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며칠이 지나고 나니  
또다시 두 개가 없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후 두 개가 없어지고 이제는 두  
길이나 되는 상상지(上上枝)에 다섯 개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것만은 높아  
서 손이 닿지 않기 때문인지 제법 오래 수명을 유지했다. 그동안 모진 서리에  
일사귀는 다 떨어지고 벌거벗고 말라빠진 나무에다 다섯 개밖에 안 되는 감  
이지만 빨갭게 달려 있는 것이 매우 좋은 운치였다.

아침저녁으로 드나드는 나와 지나는 길손들도 모두가 한번씩 쳐다보는 것이  
었다. 이렇게도 못 사람들에게 귀염을 받던 다섯 개의 감이 하룻밤 사이에 흔  
적이 없어지고 꽤 벗은 나무만이 살풍경을 띠고서 있을 뿐이다.

도대체 이따위 짓을 하는 군자에게 묻고자 한다.  
무슨 심리로 이것을 따갔을까?

비록 다섯 개의 감이지만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완상가지로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나무에서 따고 보면 따는 그 순간부터 100환에 열 개짜리 아  
무 가치 없는 감이 되고 말 것이다.

100환에 열 개 하는 그것을 욕심나서 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따다가 집  
에 두고서 혼자만 완상을 하자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비뚤어진 심리  
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못 사람이 보고 즐기는 그것을 그렇게 손쉽게 따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몰취미·몰지각한 목석한(木石漢)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옛사람은 필신기독(必愼其獨)이라고 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아무것이나 하다가는 양심에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필경에는 남보는 데서도 못할 짓을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詩)>

<장갑>

푸리이드릿히·쉴러 작(作)  
정찬조 역(譯)

사자의 광장을 앞에 하고 투기를 기다리며 푸란쓰 왕은 앉아 있었다 고관대작이 그를 둘러싸고 높은 발코니를 뺑 둘러 귀부인들은 화환을 이루고 있었다.	갈기털을 흔들고 사지를 쭉 뻗고선 길게 땅 위에 누웠다  왕은 또다시 손짓하였다 두 번째 문이 재빨리 열렸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사납게 성내며 뛰어 나왔다 그는 사자를 발견하고선 어흥, 포효하고 꼬리를 휘흔들면서 성나서 빙빙 돌고 있었다 헛바닥을 내밀며
이윽고 왕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하니 커다란 우리의 문이 열리고 유연히 나타났다  한 마리의 사자가 묵묵히 주위를 살피며 빙빙 돌았다 천천히 큰 하품을 하곤	

먼 발치로 원을 그리며  
사자의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러나 기가 죽은 듯  
호르렁대다  
사자 옆에 몸을 눕었다

왕은 다시금 신호를 하였다  
두 곳의 우리 문이 열리더니  
한꺼번에 두 마리의 표범이 뛰어 나왔다  
투쟁욕에 넘치는 표범은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호랑이는 무서운 발톱으로 콧 잡았다  
사자는 포효하며 곧장 일어섰다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들은 원이 된 채  
살기가 등등하여  
흉포한 짐승들은  
서로 노려 보고들 있었다  
이 때 발코니의 한 끝에서  
아름다운 손으로 장갑이 하나  
호랑이와 사자 사이  
한가운데 떨어졌다

기사(騎士) 데로오게스를 향하며

쿠니군트 회(姬)는 조롱하는 듯 말했다  
“기사님, 언제나 제게 맹서하시듯  
당신의 사랑이 열렬하시다면  
저 장갑을 집어다 주세요”

기사는 재빨리 무서운 투기장 안으로  
뛰어 내렸다  
그리곤 침착한 걸음걸이로  
맹수들 한가운데서  
용감하게 장갑을 집어 들었다  
  
주위의 기사와 귀부인들은  
감탄과 경악으로 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태연히 장갑을 가지고 돌아왔다  
입마다 찬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쿠니군트 회도 상냥한 사랑스런 눈초리로  
머지않은 행복을 약속하며  
데로오게스를 맞이하였다  
이 얼굴에 그는 장갑을 내던졌다  
“아가씨, 저는 치하를 받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부터 여자와 손을  
꿴었다

Der Handschuh, 1797

Good-bye

Wel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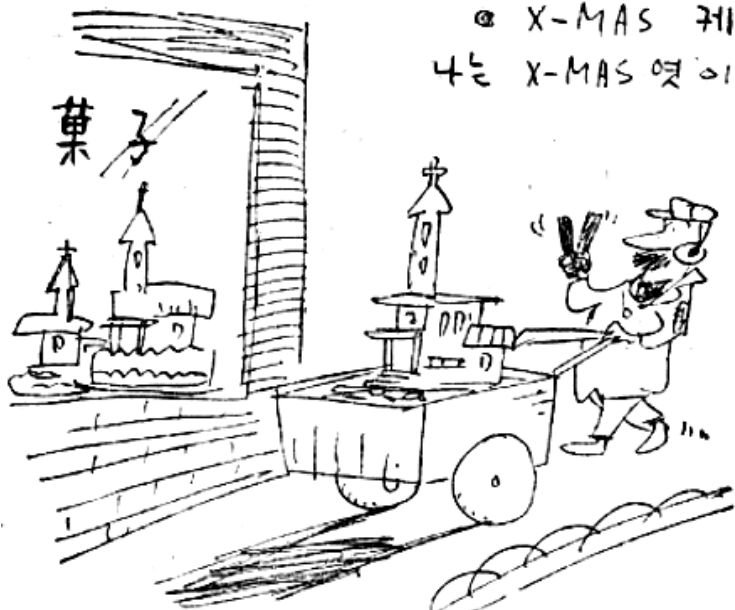
庚子! 辛丑!

⇒ 金庚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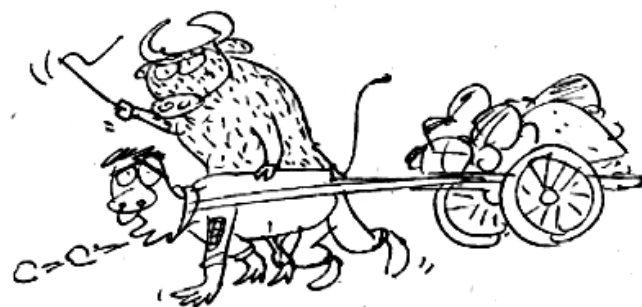
◎ 굿바이 쥐해 ◎  
來年부럼 攻毒한다 나~옹!



◎ X-MAS 케이크 ◎  
나는 X-MAS 옛이다



◎ 1961년 소해 ◎  
올해는 인간을 부려먹자



◎ 12月31日 밤 12시 ◎  
送年記念으로 意氣있는  
넘버의車를 선택해서 다자



空軍아저씨 새해福 많이 받으세요-  
받아라!!



THE COMET MANWHA



李在奎

새해福 많이 받으세요!



이제야 샀군!



3

흥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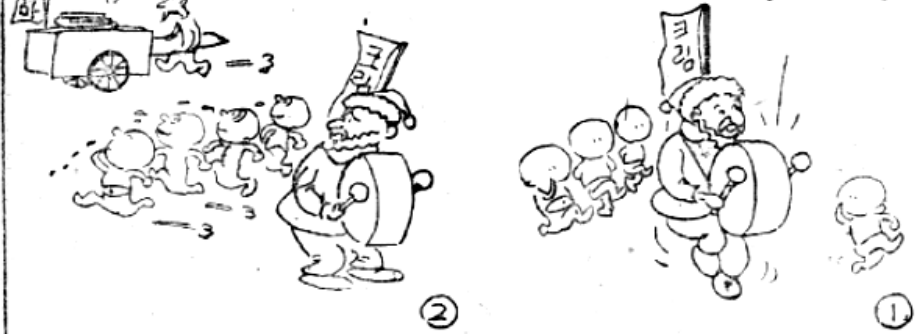
고래참과 풀犬

아- 추워-



1

慶子들이 잘가거라! 空軍아저씨 새해福 많이 받으세요  
童心



2

1

金日成과人民



2

1

그러기에 대합실이 있거. 제 시간에 오면 고양이 낮잠 자라고 대합실을 두어?



제기를 기자는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춰오는 일이 없으니 이런 패단이 있당?



3

2

대합실의 필요성



1





# 바둑이

連載漫畫

고대지



**나는 직공(職工)이었다.**  
크라이슬러가 자동차왕(自動車王)이 되기까지

(1)

기계(機械) —아버지가 승무원으로 있던 증기기관차— 그 덕분에 아버지는 나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본능도, 소질도 또 받은바 훈련도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나에게 어떠한 성질을 주고 타오르게 하였으니 그는 곧 무엇이든지 기계만 보면 그 구조나 작용을 철저히 알아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격렬한 욕구이다.

우리 일가(一家)는 캔사스 주의 작은 도시 에리스에 살고 있었다. 초원 한복판에 딱 떨어져 고립해 있는 이 도시는 동쪽으로 멀리 한 줄기의 철도를 통하여 문명과 접촉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교외에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고장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입김을 느끼게 해 주었다. 기슭에는 초원의 야수들이나 때로는 인디언들이 출몰하였으며 주민들은 아직도 마음 놓이지 않는 변경의 불안 속에 떨고 있었다. 그곳 북방에서 카스타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피격된 것은 내가 한 살 때 일었고 내가 세 살이 된 1876년에는 사이엔족이 이웃 군내에서 백인들을 학살하였다. 이러한 이야기가 난 로를 둘러싸고

밤마다 마실꾼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곤 했던 것이다. 다섯 살이 되면 나도 꽤 일 페이스(창백한 얼굴이란 뜻으로 인디언들이 백인을 이렇게 불렀다)로서 머리 가죽이 벗겨질지도 모를 위험을 각오해야만 한다. 다행히 인디언에게는 불들리지 않고 무사히 지냈지만 다섯 살 백인인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늘 타이르고 격려하셨지만 홀로 어두운 침실에 들어가는 것이 편이 나 무서웠다.

나의 어머니는 변경의 개척지에 사는 몸집이 큰 살림꾼이었다. 어머니는 대평원개척 전의 1870년대에 네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그 셋째 번이었다. 우리 사내자식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머니는 야우(野牛)고기를 자셨다고 한다. 이러했던 어머니의 눈매를 나는 내 손자 중의 한 놈에게서 발견하고는 짐짓 놀랐다. 그런 어머니가 가정의 지배자였던 우리집에서는 사내아이는 일을 하기 마련이었다. 어머니 자신이 무섭게 정력적인 분이어서 하루종일 일이었다. 일가가 아침에 오트밀의 죽을 먹는다고 하면 그 한알 한알이 재배로부터 재료에까지 모두 어머니의 노동의 결정인 셈이다. 어머니는 옥수수도 손수 키우셨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조발(鬍鬚)도, 면도도 손수 하셨다. 아버지는 우리집 부엌 이외의 이발관에 가본 적이 없었다. 우리집 안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쓰지 않도록 거의 무엇이든지 자급자족했던 것이다.

집이라고 온통 뚫어진 데가 많아서 겨울이면 눈이 사방에서 새들어왔다. 그래도 어느 사람들은 들소의 마른 똥을 연료로 쓰고 있었음에 비하여 우리는 아버지가 철도국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석탄을 사 올 수 있었다.

아버지 헨리 크라이슬러의 이름은 기관구(機關區) 유일의 기관차 운전수로서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구석구석까지 알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가끔 나를 기관차에 태워 주었다. 동요가 심한 기관차의 좌석에 매달려 뜨거운 화통(火筒)의 연기를 쏘이면서도 나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타고 있는 동안 어찌나 웃어댔던지 내려서서도 숨이 찼다.

12세 때 나는 처음으로 돈벌이를 했다. 꽃무늬가 있는 작은 인사장(人事狀) 카드를 팔았던 것이다. 그러자 은기관매인모집광고(銀器販賣人募集廣告)를 보고는 상흔(商魂)이 들먹여 그에 응모하였던 나는 검은 가죽 상자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그때의 여자들은 먹는 것보다 그것을 담는 은그릇을 더 탐냈던 모양이어서 장사가 꽤 잘되었다.

한동안은 우유 장사도 해 보았다. 우유 짜는 것을 비롯하여 소 외양간 치다꺼리며, 여물 장만이며, 도망간 소를 찾아내는 일까지도 혼자 했다. 거기다가 큰 양철 바스켓에 우유와 크림을 넣어 집집이 팔러 다녀야 했는데 1 кварта(1.14리터) 당 5센트 중 1센트는 내 수입이었으나 당시는 누구나 급료일(給料日)이 아니면 지불치 않았으므로 수금도 그날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읍내에서는 아이들을 나쁜 길로 빠뜨리지 않게 하려면 무슨 일이라도 시켜서 어느 정도 정력을 소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심하게 굴지는 않았으나 우리 부모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아이들은 뻔뻔히 놀려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래서 형인 에드가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기계공장직공이 되었을 때

나는 고교생이었으나, 여름방학이 되면 헨다슨 식료품점의 배달원이 되어 월급 10불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일했다. 그러나 기계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이 내 희망이었다. 고교를 나오자 아버지는 나를 상급학교에 보내려 했으나, 나 자신 대학에 갈 마음이 없었으므로 아버지에게 자꾸 반대하였다. 아버지는 드디어 뜻을 굽히고는 한마디 내뱉었다.

“너 같은 것이 기계에 관해서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말 안 들으면 견습공(見習工)도 못 된다. 어디 한번 원대로 해 보렴…”

어쨌든 나는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기계공장에 취직하는데 성공하였다. 단, 소제부(掃除夫)로서다.

기계공장의 바닥은 기름이 배어 미끄럽고 먼지투성이었으나, 나는 그것을 놀랄 만치 깨끗하게 닦아내고 또 닦치는 대로 잡역도 하였다. 급료는 하루 10시간 노동에 1불이었다. 기관차를 볼 때면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계공이 부러워지기도 했다. 여섯 달 하고 나서 공장(工場)인 에드가에 스타부룩쿠에게 어떻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월드, 견습공이 되고 싶은가? 거참 훌륭한 생각이군. 지금까지 군소리 한마디 없이 그 일을 해 왔으니, 어디 한번 말해 보지.”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대답하였다. 공장의 설득으로 아버지도 승낙하였고 그리하여 나는 기계견습생활로 들어갔던 것이다. 급료는 처음 1시간 5센트로 소제부 시대의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얼마나 내가 대망(待望)하였던 기회인가?

## (2)

당시의 숙련공은 흔히 자기 손으로 만든 공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내가 자체(自製)의 공구(工具)를 사용한 데는 보다 불가피한 이유— 돈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가 있었다.

처음으로 만든 공구는 10센치의 측정구(測徑具)이었다. 남들이 우수한 공구에 비할 때 아주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다.

후년(後年) 내 자체의 공구는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 72호, 전망대의 유리 상자 속에 진열되게 되었지만 이 현 공구통을 들여다 봄으로써 구안지사(具眼之士)는 전망대보다 더 많이 미국에 관해서 살필 수가 있을 것이다.

공구 이외에도 내 스케이트며 엽총(獵銃), 기관차—아버지가 운전하던 것의 모형—도 만들었다. 어느 조각가도 나 이상의 애정파 예술적 양품을 작품에 쏟아 넣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28시까지 기관차가 완성하자 나는 선로를 만들어 뒷마당에 부설(敷設)하였다. 작은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그 기관차가 달리는 것을 보고 문득 기쁜 웃음을 지우시던 아버지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느 날 밤 나는 기관차 밑에 들어가 아서 다링의 일을 거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노인의 조수이어서 그에게는 진심으로 경복(敬服)하고 있던 터이다.

“나는 읍내에 가 놀다 오겠어” 하고 그가 귀뜸을 했다. “고만 드시는게 좋을텐데. 들키시면 파면이야요” 하고 말렸으나, 그는

끝내 발브의 정비를 나에게 맡기고 나가 버렸다.

기관차의 견인력은 발브의 조정 여하에 달려있다. 지금도 나는 밤중 자리 속에서 멀리 기관차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 발브가 잘 조정이 되었는가 여부를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 같은 지식이나 기타 기계, 금속, 인간 같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은 것은 다 이 기름투성이 노인의 덕택이었다.

그 후로 몇 달동안 그는 발브의 조정을 거의 전부 나에게 맡기게 되었고, 나도 정식직공이 된 기분으로 일할 수 있었으므로 그의 태업(怠業)을 숨겨두었다.

이윽고 미국철도에서는 공기제동장치를 채용하게 되었는바 당시 이미 나는 그 신장치의 기관차장착방법을 습득하고 있었으므로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제동기 교환 시 우리 기관구의 일은 내가 도맡아서 했다. 그것이 5년에 걸친 견습공 생활의 마지막 해로써 한 시간 15센트의 급료를 받고 있을 때이었다. 그동안에 데라 휘카라는 좋아하는 여인과 약혼도 했다.

이미 나이 스물둘, 결혼도 하고 입신도 해야겠는데, 월급도 적고 에리스시(市)로는 뜻에 안 차는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나는 좀 더 큰 애처로 진출하기를 결심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만류도 나의 젊은 뜻을 꺾지는 못했다. 나는 드디어 아는 사람에게 샤프트씨라는 기관구공장에게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캔사스주 웰 링튼의 신타 휠 철도공장을 향하여 고향을 등졌다. 어머니는 긴 기차 여행을 위하여 바스켓 가득히 먹을 것을 담아 주시면서 나를 전송해 주셨다.

(3)

샤프트씨는 내 소개장을 읽더니 말하였다. “자네 썩 젊어 보이는데 몇인가?”

“스물셋입니다.” 나는 한 살 늘여서 대답했다.

“그럼 별 경험은 없겠군. 어디 발브 조정은 할 수 있나?”

“네, 발브는 꽤 합니다.”

“슈우즈나 웬지 칠도 할 수 있나?” 이것도 기관차의 수리나 오바홀에서 힘든 일이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2주일쯤 일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급료를 정할 수 없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고급료가 아니면 일할 생각 없는데요!”

“건방진 청년이군!”

“아니 그저 제가 재간 있는 기계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고 나는 말했다.

샤프트 씨는 웃음을 그치더니 직장인 빌 하아트에게 가라고 했다. 하아트는 애 인상이 좋지 않았던지 “무어 발브를 만질 줄 안다구?” “어디 하나 해보실까?” 하며 한 대의 신행기관차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나도 처음 손대 보는 것이었으나 곧 일을 시작했다. 먼저 피스톤 간(桿)부터 조절하려니까 그것을 본 하아트가 기름투성이 손을 저으면서 “어이, 그런데는 내가 어저께 했으니까 만질 필요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을 도사리고 증기실의 카바를 베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하아트씨 발브를 조정하려면 역시 피스톤 간도 자기

손으로 매만져야만—” 이는 바로 아서 다링 노인의 교훈이기도 했다.

하아트가 뿔이 나서 사라지자 곁에 있던 젊은 조수가 나에게 살짝 일러주는 것이었다.

“왕치가 자기 손으로 하려다가 못 한 거야 그래 자네 골탕을 먹이려구 떼어 맡겼지” “그래”

나는 그 기관차를 조사한 결과, 승무실의 수증간(遂楫桿)에 붙어있는 프라그가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프라그를 갖다가 소정의 자리에 붙이고 발브를 검사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그대로 놓아두고 동륜(動輪)을 로라에서 벗기고 나는 방긋 웃었다. 그리고는 하아트에게 가서 그 일은 끝났으니 다른 일을 시켜달라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빨리 그 발브 조정을 했어? 좋아 크라이슬러. 만일 그것이 증기를 넣어도 제대로 돌지 않으면 너는 볼 장 다 본다” 고 큰소리를 질렀다.

증기를 넣자 기관은 스무스하게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있으니까 샤프트씨가 나를 불러 그 기관차 일을 물어보았다. 하아트에게는 잡잡고 있었지만 공장인 그에게만 프라그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한참 웃더니 나에게 브레이크 계로 고용하고 약속대로 최고의 급료를 주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 젊은이의 득의(得意)의 흥분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자유의 매력도 점점 시들해졌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는 어머니의 가정요리 솜씨에 심한 향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양친이 있는 가정과 데라 휘카에의 그리움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이 웨링튼의 생활은 그 후 수년간에 걸친 던버, 샐이엔, 라라미, 로린즈 기타 철도의 거리에서 철도의 거리로로의 방랑의 제일보였다. 그동안 수중(手中) 무일푼으로 끼니를 여원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직업을 찾아 이지방 저지방 헤매어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종내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최후로 1900년에 덴버와 리오그란데 웨스턴 철도의 소트 레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어 거기에서 1년간 일하여 돈을 모은 다음에 방랑 생활에 중지부를 찍기로 결심하였다. 구슬픈 기관차의 기적을 들을 때마다 빨리 고독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다. 그리고 데라만이 내 고독감을 물리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둘은 충실이 편지를 주고받고 했으며, 내 방랑이 두 사람의 장래를 위한 내 야심 때문임을 알고 있었던 데라는 떨어져 있는 동안이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나는 귀향하여 데라와 읍내의 교회에서 조출한 결혼식을 올렸다. 내 나이 26, 식을 끝마치자 나는 데라를 데리고 소트 레키로 돌아가 60불의 돈을 밀친 삼아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무렵 나는 1시간 30센트의 기계공으로 하루 열 시간 일하여, 3불 벌이를 했다. 시간외근무가 있으면 운이 좋은 편이다. 그해에는 작고 초라한 셋방에서 여름을 보내고 얼마 후에는 이웃에 생긴 테라스 하우스 중의 한 채를 채 완성도 되기 전에 빌리고 170불분의 가구를 일부(日賦)로 살림을 차렸다.

그즈음 나에게 행운이 닥쳐왔다. 어느날 원형 기관차 안에서 내가

통신교육의 기계공학을 하고 있자니까 공장인 존 헉키가 한통의 전보를 들고 직장(職長)의 스미스에게 허둥지둥 달려왔다. “스미스, 45호 기관차가 특별시 운전 중에 후부 시린다 대가리를 날려버렸어!”

“덴버 열차를 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차지요?”

“그래, 그러니 그 시간까지 수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야!”

“글쎄요, 여기 유능한 젊은 직공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내가 수리를 부탁받았다. 일을 시작한 지 2시간 40분 만에 나는 스미스에게 큰 소리로 수리 완료를 보고했다.

“아니, 정말이야, 크라이스레!” 그도 놀란 모양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쯤 지나 공장은 나를 불러 원형 기관차의 직장에 임명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내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벽에 뚫린 적은 구멍에 불과했으나, 그래도 전화와 작은 사무책상이 있었다. 이리하여 나는 약 90인의 공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첫 아이인 딸 딸 텔마가 세상에 나온 것도 마침 그때이다.

나는 스물일곱이었고, 아내와 아이가 하나 있었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처는 나의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도록 식사나 세탁, 소제(掃除)며 어린애 돌보기에 바빴고, 우리들은 월 90불의 수입으로 꾸려나가는 살림을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무엇 때문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나는 공장으로부터 퀘책장(愾責狀)을 받은 적이 있다. 하여튼 나는 그것을 읽자 화가 나서 나대로의 반박장(反駁狀)을 써내고 말았다. 그러자 3, 4일 있다가 공장으로부터 호출이 왔다. 공장실로 가는 석탄투성이 골목을 걸으면서 나는 사나흘이나 있다가 호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어깨를 딱 버티고 공장실의 문을 열었다.

“야, 윌트 지금 새 기관차의 설계도를 보고 있던 판이야!”

공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화제를 늘어놓았다. 그는 한참 내 일솜씨를 칭찬하고 나서 내 기분이 풀어진 다음에야 충고를 하는 것이었다.

“윌트군, 자네는 장래 유망한 사람인데 더러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경솔히 굴어서야 되겠나” 하면서 그가 데스크에서 내 답장을 끄집어내자 내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다.

“이 서랍은 이런 편지를 넣어두는 장소일세.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3, 4일 넣어 두는 곳일세. 자네도 나처럼 했다면 그렇게 격한 편지는 하지 않았을걸세” 나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절대로 편지 답장을 쓰지 않기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당히 화가 치미는 편지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들은 늘 데스크의 맨 아래 서랍에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헉키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진정이 된다.

그후 나는 콜로라도와 사진 철도회사의 트리니타드 공장 총직장(總職長)이라는 좋은 자리로 옮겨 한 1년 있자 당시로서는 매우 고급(高給) 140불의 공장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아직 30 미만에 승무원이나 직공을 합쳐 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밑에 거느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승진을 시켜준 조지 카타가 휘트 와스, 덴버 철도의 총지배인이 되어 나에게 그 사(社)로의 전직(轉職)을 청해왔다. 당시 아직 황원(荒源)한 한촌(寒村)에 불과했던 텍사스주 차일드레스에 새 공장을

건설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려는 것이었다. 나한테는 더할 나위없는 자리였으나, 페인트칠도 안 된 코딱지 같은 시골 오막살이로 어린 것을 끌고 가자는 말이 데라에게 떨어 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한번 말이나 해 본다고 한 것이 그녀는 뜻밖에 “여보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당신만 성공하실 데라면 어디든지 갑시다” 하고 쾌락(快諾)하는 것이었다. 내 생애를 통하여 기계공 시대에 데라가 나에게 보여준 신뢰만치 내가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 것은 없다.

차일드레스에 신공장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시카고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의 아이오와주 올웬 공장의 기계공장(工長)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의(提議) 전보가 날아 들어왔다. 카타도 권하고 해서 나는 그리로 갔다.

이 올웬에서 나는 취임 후 15개월이 못 되어 총기계공장이 되고, 다시 3개월 후엔 동력(動力)부장이 되었다. 그것은 철도의 기계 관계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이어서 월급 350불을 받았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여러 가지를 배웠고 또 의심이 불타올랐다.

#### (4)

1908년 —그것은 나의 생애에 큰 전환기를 가져다준 해였다. 그해에 나는 시카고 자동차 전시회에서 코코모빌차를 보았다. 그것은 차체(車體)를 상아색으로 콧송과 변두리는 빨강계 칠해 있고 답태(踏台)에는 훌륭한 공구상자와 헤드라이트용의 가스탱크가 붙어있었다. 나는 나흘 동안을 마치 마녀의 노랫소리에 홀린 뱃사공처럼 이 차에 매혹되어 전시회장을 떠나질 못했다. 가격표에는 에누리 없이 현금불로 5천 불이라 적혀 있었고 내 주머니 속엔 겨우 7백 불이 있을까 말까였다.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요모조모로 궁리를 해 보았다.

다행히 어느 은행의 부두취(副頭取)인 랄프 환 벡텐이 내 친구였다. 나는 철도직원이 잘 가는 카페에서 그를 찾아내 가지고는 담판을 했다. 나에게서는 담보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차에 워낙 열중해 있었으므로 온갖 피를 다 부려서 4천3백 불의 차금(借金)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전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차를 갖게 되면 미국의 모양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따위의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드디어 환 벡텐이 말했다.

“자 윌트 누구든가 담보를 가진 사람을 잡아 오게나. 그러면 빌리도록 할테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빌 코지는 어떨까?”

코지는 당시 시카고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의 기관구 지배인으로 나와도 환 벡텐과도 친한 사이였다. 드디어 그가 협력을 약속해 주었고 나는 소원이던 자동차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타고 돌아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조를 알고자 하는 일념(一念)에서였다.

후년 환 벡텐은 윌리스 오베랜드 자동차회사에의 응차 오천만 불이 연결이 되어 그의 해결을 위하여 연봉 백만 불로 나를 위한 썬디케트 은행단의 일원이었지만 “그때 자네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잘했네” 하고 슬회(述懷)한 적이 있다.

차를 입수한 나는 올웬의 집안 곡간을 수리공장으로 개조하여 토, 일요일은 물론, 밤마다 그 안에서 자동차의 해체조립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했다. 그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나는 테라에게 “자, 나오신다” 고 보고하였다. 그때쯤 이미 내 차의 엔진소리가 근처에서는 소문난 것이었으므로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차 둘레를 에웠다. 크랭크를 돌리고 엔진을 걸고 차 핸들을 쥐고 기어를 넣자 그 커다란 동치의 차가 처음으로 안장을 놓인 야마(野馬)처럼 뛰어올랐다. 그리하여 구경꾼들의 환성 속에 펄쩍 튀어 달아나 이웃 도랑 속에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는 말을 몇 마리 빌려서 겨우 그것을 끌어내었다.

내가 두 번째 스타트를 걸 때는 구경꾼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기어를 탐으로 넣어 달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시내를 벗어났고 수백 미터 앞에 웬 소가 한 마리 어슬렁 -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 나는 그저 핸들만 잡고 조바심을 했는데 다행히 소와의 충돌은 겨우 면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32키로의 속도로 뱅뱅 돌아 올 웬 시내로 돌아온 나는 전신이 나긋나긋하도록 피로했었고 자꾸 떨리기만 했다. 이웃 사람의 힘을 빌어 차를 곳간에 집어넣고 나자 옷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운전을 배웠다.

그 무렵 나는 벌써 7년간이나 통신교육으로 기계공학의 공부를 계속해온 참이었으나 서른넷이 된 나는 가끔 나의 철도원으로서의 도정(道程)이 거의 종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철도의 급료는 짙고 철도에서는 기관차 관계의 사람은 절대라고 그래도 좋을 만치 고위경영진에 승진되지를 못했다. 내 생각에는 그러했다. 거기에는 아이가 붙어서 셋이나 달렸다. 그러던 판에 사소한 일로 철도회사장과 나는 다투게 되어 그길로 그 회사를 사직하였고 다시 철도로 돌아가려니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5)

이윽고 나는 친구인 아메리칸 기관차 사장 월드 마샬의 알선으로 동사(同社)의 피츠버그 공장장으로 입사하였다. 소년 시대에 물건 만드는 것에서 찾았던 즐거움은 이제 어른이 되어 만들어보니 백배나 더한 것 같았다. 무엇을 제작하는 데에는 시인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창조의 환희가 있다. 내가 들어가 고부터 공장에는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 3년간 결코 없었던 이윤이 올라간다는 신사태(新事態)였다. 나는 1년 만에 회사의 공장지배인으로 승진하였다.

어느 날 동사의 자본주며 취체역(取締役)인 제임스 스트로씨가 나를 뉴욕으로 불러냈다.

초대면(初對面) 인사에서 말하기를 “아아, 자넨가. 우리 사의 피츠버그 공장을 적자기업으로부터 후자기업으로 일변시킨 것이!” 그리고 대뜸 나에게 자동차 제조에 다소라도 관심을 가진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거기에서 내가 과거 5년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노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상의를 해 볼까” 하고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제네럴 모터스의 재무위원장이네 만약 자네가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미시건 주의 빅크 자동차회사공장의 지배인이 되도록 추진을 할 테니 어떤가? 자동차의 장래는 양양(洋洋)한 바 있네. 지금이 적재(適材)의 인사에게는 절호의 찬스일세”

그리고 일주일 후 빅크 자동차의 사장 찰즈 닷슈씨로부터 나는 후린트 공장 참관의 초대를 받았다. 아메리칸 기관차의 부사장은 어떻게든지 나를 붙잡으려고 당시 동사가 나에게 주었던 연봉 8천 불을 단번에 만2천 불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나의 호기심과 정세는 결국 그것을 뿌리치고 닷슈씨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하고 말았다.

빅크 공장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개선할 점이 무수히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만일 여기 주인이라면 큰일을 할 수 있을텐데!’ 하고 나는 흥분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튿날 닷슈씨는 나의 결심을 구하였다.

“닷슈씨, 나는 여기서 일해 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공장에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가 받고 있는 봉급액이 나오자 갑자기 닷슈씨는 흥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만한 봉급은 못냅니다” 고 그가 말했지만 그것은 결코 깎으려는 수작은 아니었고 1911년 당시 그 고장에서 만2천 불은 확실히 많은 액수였던 것이다.

“그럼 닷슈씨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내 질문에 그는 잠잠하고 있었다. 끌어내려면 응당 지금보다 더 많은 봉급을 주는 것이 상식일게다.

“크라이스러씨, 우리는 연봉 6천 불 이상은 못내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해 보지요” 나는 선선히 받아들였다.

그는 입을 딱 벌리고 나를 바라다보았다.

벌써 넷째 번 아이 차남인 작크가 피츠버그에 낳았다. 그런데 나는 자기 가족을 지금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안락한 생활과 사회적 지위로부터 끌어내려 아직 유치하고 신통치 않은 신흥산업으로 끌고 들어가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경개척이 내 조상의 피를 끓어오르게 한 것과 같이 새로운 가능성이 내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자동차 산업에의 전향은 시기적으로 보아 행운이었다.

그해에 찰즈 케타링이 처음으로 자동차동장치를 카달락에 설치하였다. 전기에 의한 시동, 조명, 점화장치를 실현한 가지가지 신발명은 자동차 공장계의 의욕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의 값은 너무나 비쌌다. 그래서 나는 빅크 공장의 낭비를 없애는 데서부터 출발하고자 전례에 없었던 능률 지불을 강행하였다. 다음에는 금속재료를 마치 목재처럼 남용하는 제작공정을 긴축시켰고 나아가 전공정에 걸친 개량을 가한 결과, 일산 45대로부터 75대로 생산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후에 대량생산방식이라고 불리게 된 유동(流動)작업방식으로 공정을 개혁하여 일산(日産) 2백대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헨리 포드가 유명한 연쇄유동작업대를 고안해낸 것은 우리의 유동공정이 완성된 이후의 일이다.

어언 빅크에 온 지도 3년이 지났다.

그러나 내 봉급은 한 푼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낫슈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에게 답판을 했다.

“차아리 내 연봉을 2만5천 불로 올려줘야겠오” 하니까 그는 “윌터” 하고 부르면서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사뭇 비명에 가까웠다.

“지금껏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이상 참을 수는 없네.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만 2천 불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일을 6천 불로 맡았는데, 아직 그대로요 2만5천 불로 승급(昇給)을 시키던지 아니면 사직하겠오”

“윌터 그건 사장과 상의를 해야지 나로서는 결정할 수 없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수일 후 스토르 재무위원장이 오자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다. 나는 사장실로 불려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자, 마음 폭 놓게나” 스트로씨가 말했다. “자네 요구대로 2만천 불로 승급시키겠네”

“네엣?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년쯤에는 5만 불을 요구하겠어요” 하고 나는 얼결에 큰소리를 쳤다.

그때 내 나이 40,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참, 당신도 여간 아니군요!” 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내의 이 기쁨, 그 오랜 고생 끝에 온 기쁨을 더불어 나누어준 아내의 그 한소리 - 그것이 내가 듣고 싶었던 전부였던 것이다.

(6)

1915년이란 해는 제네럴 모터스에 있어 다사다단(多事多端)한 해였다. 사회를 창립한 천재아(天才兒) 윌리엄 듀란트는 일시 회사의 지배권을 잃고 다른데 나가 있었으나, 1915년의 주주총회에 나타나 다시 회사의 지배권을 쥐고 복귀를 발표했다. 낫슈는 사직하고 듀란트가 사장의 의자에 앉았다. 어느 날 사장이 내 방에 와서 말하는 것이었다.

“크라이슬러군 당신을 빅크의 사장으로 앉히고 싶은데?”

“실인즉 저도 현재 어떤 계획을 누구와 교섭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되면 저도 이곳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시 낫슈와 스트로와 셋이서 팍카드 자동차회사를 매수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중이었다.

“글쎄, 헌데 우리사(社)에 남아준다면 연봉 50만 불 내겠오” 하고 듀란트 사장이 말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50만 불이란 터무니 없는 액수는 곧 나의 거취를 결정케 했다.

계약서의 문면(文面)을 보면 기간은 3년 매월 1만 불은 현금으로 주고 1년마다 잔액을 현금 혹은 회사의 주식으로 준다는 호조건이었다. 나는 늘 주식으로 받기로 했다. 1차대전 후 사장과 의견충돌로 동사를 그만두기까지 이미 자동차 공장은 눈부신 산업계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45세의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얼마든지 은퇴하려면 할 수도 있었으나, 본래 놓고먹는다는 것은 내 성격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다시 뉴욕으로 나아가 쓰러져가는 윌리스 오우버랜드 회사를 재건하는데 힘을 도왔고 막스웰 자동차회사를 맡아 내 머릿속에 그리던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를 만들어 내어 성공을 거두었고 이 후자는 곧 크라이슬러 코퍼레이션

측 내 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1927년에 인기상승 일로의 크라이슬러는 19만 2천 대가 팔려 업계 제5위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1929년이 되자 나는 자식들에게도 무엇인가 사업의 책임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빌딩을 하나 지어주자는 것이었다. 유럽 여행 도중에 본 에펠탑을 연상하고 나는 건축가에게 “그 집을 에펠탑보다 더 높게 해 주게” 하고 부탁했다. 이리하여 77층짜리 크라이슬러 빌딩이 생겼고 준공(竣工)되자 아들 윌터에게 경영을 맡겼다.

“이 빌딩은 네 것이니 네가 알아서 잘 움직여봐라” 윌터에 이르자 그는 “아버지, 무엇보다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다.

“먼저 지하실에 내려가서 마루 담기부터 사무실의 청소,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허드렛일부터 해보아야지”

윌터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고 드디어 한 사람의 손색 없는 빌딩 경영자가 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초기의 불경기에는 물론 우리 사회도 쓰라린 일을 많이 당했다. 수요저조로 말미암아 6할 조업단축을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하였고 모든 경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쪼들려도 조사연구부의 예산만은 절대로 깎지 않았다. 이 암담한 시기에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성과가 1936, 37년이 되자 큰 보람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산업에는 돈과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곧 사람이다. 1937년 크라이슬러 회사의 급여 대장에는 7만6천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나는 이들 여러 사람에게 지고 있는 부채와 은의(恩義)를 잊을 수가 없다. 사업이 내 이름 크라이슬러를 간판으로 내걸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내가 했노라고 뽐낼만치 나도 어리석지는 않다. 우리 회사의 기계기술면이 타사를 능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계부장과 그 부하의 덕택이고 해외 수출이 증가했다면 그것은 부사장의 공이다. 어떠한 대회사라도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풀(집결되는)되는 많은 두뇌와 재간(才幹)과 헌신적인 근면에 의해서만 비로소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데트로이트의 회의실에서 12명의 젊은 중역들과 책을 둘러앉을 때는 이 사실을 통감한다. 나는 여러 사람의 이를테면 아저씨 - 취체역회장이다. 그러나 나도 작업복에서부터 몸을 일으킨, 아니 아직도 마음만은 그것을 걸치고 있는 노동자인 것이다. 날 때부터의 중역이나 사장이 세상에 어느 천지에 있을 것인가?

<황대진 역(譯)>





## 상송의 유래와 노래한 사람들

이호로(李胡露)

상송에는 프랑스인의 체취와 생활감정이 다각도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상송은 다른 나라의 유행에선 찾아볼 수 없는 예술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상송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필자 자신도 의문이 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상송이 풍성하니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일부잡지와 중복되긴 해도 여기 수록해 보았다.

### 1. 상송(Chanson)

상송이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또 노래된 것은 이력저력 약 40년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가 일제의 쇠사슬에 얽혀 신음하던 1920년대부터 상송은 거센 양풍(洋風)에 휩쓸려 들어와 당시 신사나 학생들이 하나의 멋으로 휘파람도 불고 혀를 꼬부러가며 안다는 위세를 부렸던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 되자 미국의 가요가 판을 치게 되어 맛으로 즐기던 상송은 은근히 푸대접을 받게 되고 상송이 노래된다고 해도 미국으로 흘러들어 갔다가 다시 흘러나온 미식 상송이 우리 귀를 즐겁게 해 주는 정도였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상송은 다시 지식층에 인기를 불러 넣어 맛으로 즐기던 상송이 멋으로 발전하고 그 멋이 일반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상송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상송(Chanson)은 프랑스의 노래 또는 유행가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송이 지닌 그 무드를 용어 자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저 원어 그대로 상송이라고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제는 용어 자체에 관한 해석보다는 상송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상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짧은 서정적인 작은 시의 일종으로 보통 마음 가벼운 주제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 즉, 권태로울 때 혼자 있을 때 만약 가난한 사람이라면 위안의 노래로 부르는 것이다.—

이상은 문호(文豪) 장 자크 루소가 내린 정의인데 이것만으로 설명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송은 직업적 가수만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이 그들 생활 속에서 언제나 손쉽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상송은 단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사와 멜로디가 극히 단순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품위가 낮은 노래가

되어서도 안 된다. 상송은 감정에 호소하는 동시에 지적요소도 있어야 한다. 가사 역시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어려운 문자나 용어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사가 문학적인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내용도 중요하려니와 말이 지닌 색과 음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사의 구성은 한 편의 시라기보다는 한 편의 드라마이다. 보통 가사의 제1절이 이야기의 예비설명, 제2절에서 제3절까지가 사건의 발전, 제4절이 해결이란 순서로 되어 있으며 대개는 제3절로 설명·발전·해결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 그저 있는 감정만을 노래한다던가 어떤 정경(情景)을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즐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노래하는 데에 상송의 특징이 있으며 친근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3막물(三幕物)의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상송의 역사

처음엔 상송이라하지 않고 샹이란 것이 있었다. 샹송이란 이름은 중세기부터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세의 문학은 이른바 구송(口誦)문학이란 점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민중의 대부분은 글을 쓸 줄도 또 읽을 줄도 모르는 문맹이어서 보통 경업사(輕業師) 유행시인들이 나타나서 노래로 전해주는 순업자(巡業者)가 성행했다고 한다. 이들은 음유시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대개 연애를 주제로 한 것이 많았다고 한다. 서정적인 연애를 그린 이 노래들은 단순하고 애뜻하며 일종 민요 같은 것도 있었으며 세련되고 복잡한 노래도 간혹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상송이란 문자가 즐거리를 가진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상송 아 페르소나지(Chanson a Personnage)는 인물의 상송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야기의 상송 무용가 극적인 상송 등이 14세기에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더 발전해서 궁정시(宮廷詩)란 테두리를 갖춘 상송이 나타났다. 이의 중심주제는 연애였고 이를 노래하는 가수는 덕망이 높은 여성이 뽑혔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송을 말함에 있어 19세기에 와서 민요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작사가나 작곡가의 이름도 모르며 무명의 작자 즉 어느 민중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소 변화도 생겼으나 이들 민요는 지금도 단순하고 자연적인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양있고 세련된 텔리케이트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갖게 한다. 왜냐하면 민중적이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시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하다. 그리고 그 소박성과 우아성은 예술적이며 완전한 시의 아름다움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인 것, 전설적인 것, 역사적인 것에서부터 사랑의 출생, 연애, 결혼, 죽음 등을 주제로 한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19세기의 카페 콘서트(Cafe Concert)는 상송의 온상지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20세기 초에 와선 뮤직홀을 위해 발전적인 해소를 하게되나 카페 콘서트가 현대 상송을 위한 다리 구실을 한 사실은 특기할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온상으로서 카페를 들 수 있는데 샹송의 역사와 그 기원은 별로 흥미가 없는 것이어서 이만 그치고 다음은 샹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 3. 샹송의 종류

#### 1. 샹송 리얼리스트(Chanson Realiste)

샹송 리얼리스트라는 것을 직역한다면 ‘현실적인 샹송’ 또는 ‘사실적인 샹송’, ‘현실과 샹송’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괴로움, 슬픔 등을 주제로 한 샹송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로 빈민가나 뒷골목의 비극과 비애—가난과 굶주림뿐만 아니라 절망, 실연, 이별, 자살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간의 번뇌를 주제로 하고 있는 샹송을 통틀어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달콤하고 감상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퇴폐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격정적인 호흡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도색적(桃色的)인 꿈을 노래하지 않으며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지 않는다. 비극과 비애에 가득 찬 노래를 공감을 갖고 정열적으로 덧없이 호소하듯 울부짖듯 노래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명인 것이다.

샹송 리얼리스트는 대개 파리의 빈민가나 뒷거리에서 태어나 가난과 싸우고 굶주림을 견디어 나온 이른바 생활전선의 절실한 경험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절규하는 노래가 곧 인생이요 생활인 것이다.

#### 2. 샹송 판타지스트(Chanson Fantaisiste)

샹송을 크게 분류해서 민요와 현대적인 샹송으로 나누고 현대적인 샹송을 3분해서 현실(실존)파, 공상(상상)파, 그리고 감상파로 대분(大分)한다.

샹송 판타지스트 즉 이상과 공상을 중심으로 한 샹송은 요컨대 사람들이 미처 생각도 못하는 기상천외의 일, 재미있는 일거리를 생각나는 대로 불러제기는 것이다. 모리스 슈발리에가 그 대표적인 가수라 하겠다.

#### 3. 샹송 센티멘탈(Chanson Sentimentale)

샹송 센티멘탈을 ‘감상적인 샹송’으로 번역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색취미의 노래이나 사랑 노래에 한정된다. 실연의 노래도 있으나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었어도 눈물만을 흘릴 뿐 곡상(曲想)은 달콤하고 어디까지나 감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는 대개 목소리가 달콤하고 아름답다.

#### 4. 샹송 드 트루펠(Chanson de troupiier)

트루펠이라는 것은 병사, 그래서 이것은 ‘병사의 샹송’을 뜻한다.

프랑스에서는 군대의 내부생활을 재미있게 꾸며서 무대물로 취급하는 전통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병사의 샹송이란 장르를 형성한 것인데 상관에 대한 야유 또는 낭랑한 모습을 군복을 입고 농조(弄調)로 불러제기는 것이다.

#### 5. 샹송 모놀로그(Chanson monologue)

모놀로그란 것은 독백을 말하는 것이니까 혼자 연기를 하며 노래하는 샹송이 된다. 보통 연극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대화로 엮여지는 것인데 샹송 모놀로그는 독백을 노래하며 극히 간단한 어구를 구사한다. 그러나 이 샹송은 노래하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만큼 이 점을 잘 살려야 하는 것이다.

#### 6. 샹송 리즈널(Chanson regionale)

샹송 리즈널은 ‘지방의 샹송’을 말한다. 프랑스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지방에서 만들어진 샹송인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잘라서 민요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 7. 샹송 드 장르(Chanson de genre)

직역하면 ‘풍속적 샹송’이 된다.

이른바 세태와 인정을 그린 샹송인데 이것을 가볍게 풍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 8. 샹송 아부아(Chanson a voix)

지금도 피서지 또는 피한지(避寒地)로서 이름이 있는 도뷰일에선 매년 샹송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때에 콩쿨의 샹송 분야에 샹송 아부아(Chanson a voix)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목소리의 샹송’이다.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저 아름다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식 미성—즉 소리가 우렁차고 커야 하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것이 샹송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본 것이다. 이밖에도 멜로디라는 특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뜻 그대로 선율이란 것도 되지만 이 경우엔 이른바 예술적 가요곡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멜로디란 것은 시 역시 예술적인 것에 노래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보통 피아노로 반주되며 독창을 한다. 한편 최근의 샹송은 시대와 더불어 흘러서 변천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할 것은 재즈화하고 있는 점이다.

하기야 샹송이 미국의 대중적인 가요에 영향을 준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샹송의 입장에서 볼 땐 미국의 재즈 송이 프랑스에 흘러들어 와서 유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이거니와 제2차대전 후 미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가 본격화해서 은연중 샹송이 재즈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 못 한다.

### 4. 샹송을 노래한 사람들

#### ○티노 로씨(Tino Rossi)

부인이 티노 로씨의 노래에 너무 열중한다고 병적인 질투를 일으킨 남편이 라디오 앞에 앉아 있는 자기 부인을 권총으로 쏘아 죽인 사실이 일어날 만큼 그는 화제의 인물이다.

지나치게 목소리가 달콤하다는 약점이 있긴 해도 미남으로도 한몫 보고 있다. 각계각층에 대단한 인기를 불러 넣어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제2의 발렌티노라고 격찬한다.

1907년 4월 29일 코르시카에서 양복점의 아들로 태어났다. 8인형제

의 다섯째로 아버지의 일은 도와주지 않고 노래만을 부르며 성장했다고 한다. 스무 살 때 병역을 치르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마르세이유로 떠났다. 그러나 직장은 얻지 못하고 카페에서 코르시카의 민요를 노래하게 되었다. 하루는 음반에 노래를 불러 넣어 그것을 듣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치던 신사가 발을 멈추었다. 레코드 회사의 남부지방대표였다. 행운은 찾아와 티노 로씨의 곧 파리로 향하게 되었다.

파리에 나오자 근사한 용모와 미성으로 해서 영화가 끌어당겼다. 마리넬라가 바로 그것이다. 때는 1935년이 영화가 성공을 거두고 주제가인 마리넬라도 그의 명성을 얻는데 결정적인 히트가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티노 로씨의 지위는 굳어져 간 것이다.

로씨의 첫 부인은 음악가였고 1951년 첫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장 가뱅의 페페 르 모꼬 <망향(望郷)>에도 출연한 바 있는 미레이유 바랑이 불의 키스를 촬영 중 티노 로씨에게 열을 올려 부부가 되고 말았다.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마치 여인의 귀에 불어 넣듯 노래하는 그의 솜씨는 파리의 여성을 손쉽게 매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우(女優)출신인 리리아 삐띠에게 세 번째 장가를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사랑 노래는 요즘도 여러 가수들의 입으로 곧잘 불리워지기는 해도 그의 인기는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 한편 그의 레코드는 한번 찍어 놓으면 폐반(廢盤)이 되지 않고 언제나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모리스 슈발리에(Maurice Chevalier)

한국에서도 상연된 영화 하오(下五)의 연정과 지지에 출연한 바 있는 모리스 슈발리에 엄강.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를 하는 삼위일체의 대스타이다. 가수의 종류로 말하면 환타지스트. 1888년 9월 12일 파리의 메닐몽팡에서 출생, 벌써 일흔이 넘는 노인이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연예계에서 열과 힘을 과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거리에서 도장공(塗裝工)의 아들로 태어난 모리스 슈발리에에는 소학교를 나오자 전기상(電氣商) 인형의 도장공 등의 견습소년으로 굴러다녔다. 이런 날에 한창 서커스의 재주 넘기에 반해서 동경을 했으나 재주넘기를 배우다가 다치는 바람에 이번엔 가수가 소원이었다.

그의 나이 불과 열두 살 때 카지노 드뚜레르의 시험에 합격해서 일주 12프랑의 급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의 직업 가수로서의 스타트는 시작된 것이다. 다니는 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거리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꼬마 가수로 인기가 대단한 모양이었다.

그도 나이가 차서 군에 입대하는 날은 왔다. 1차대전이 터지자 출정을 했고 싸움터에서 그는 가슴에 총탄을 맞아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 약 2년간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젊은 슈발리에와 공연한 이래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된 미스탕게뜨의 눈물겨운 석방 운동은 지금도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다.

“내가 정말 사랑한 것은 슈발리에 뿐이다. 나의 영원한 애인은 슈발리에 뿐이다.”

미스탕게뜨는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한다.

그녀의 눈물겨운 노력은 마침 서반아(西班牙)[에스파냐] 국왕을 움직이는데 성공해서 1918년 슈발리에를 풀려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1928년엔 할리웃에 초청되어 영화에도 출연했고 파리에서의 그의 인기는 날로 상승했다. 단 혼자서 40회 이상이나 큰 극장을 입추의 여지도 없이 메웠고, 1946년엔 뉴욕에 건너가 원팬쇼로 환영을 받았다.

1954년 가수 생활 55주년 기념 리사이클을 열고 은퇴를 성명한 일이 있으나 그의 팬들이 그냥 내버려 둘리 없다.

그는 오늘도 무대에서 스크린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존경을 한 몸에 모으고 있다.

#### ○장 사블론(Jean Sablon)

1904년 3월 25일 파리교외에서 출생, 아버지는 작곡가, 장 사블론은 세 번째의 아들로 태어났다. 만행도 작곡가였으며 동생은 코미디언, 누이동생도 가수인 이른바 예술적인 분위기에 싸인 가정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코를 흘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극장과 노래를 좋아했는데 결국 열일곱 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연예계로 투신하고 말았다.

1930년 카지노 드 파리에 출연, 36년엔 누이와 함께 떠나간 그대를 취입(吹込)했는데 디스크 대상을 탔다.

#### 〈주(註)〉 디스크 대상

여기서 잠깐 디스크 대상에 대해 말씀드려 둔다.

프랑스 레코드 계의 연중행사로서 모든 상층 쉐의 주목을 끌고 있는 디스크 대상은 1931년 주간지 캔디드의 주최로 대전전(大戰前)까지 계속되었다. 그 목적은 프랑스에서 판매된 상층 곡의 우수한 음반에 상을 주는 것인데 이 심사를 위해 처음 16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1947년 축음기 잡지 협회가 약 80인의 심사원의 투표로 한 번 상을 정한 바 있고 그 이듬해부터는 아카데미 샤르르 크로스(ACC)가 디스크 대상수상 단체로서 창립되어 18, 9인의 심사원으로 프랑스에서 녹음된 모든(물론 국외 것도 포함됨) 디스크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1952년부터는 다른 또 하나의 단체인 아카데미 듀 디스크 후랑쎬(A·D·F)가 창립되어 그 이듬해부터 수상을 시작했다. 대상은 프랑스의 것에 한(限)한다. ACC가 순 민간단체인데 반해서 ADF는 반관적(半官的)인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래서 디스크 대상도 분명하게 말을 하려면 ADF냐, ACC냐를 분간해서 예를 들 것이지만 보통 양자 합해서 디스크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 ○샤르르 트레네(Charles Trenet)

샤르르 트레네는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도 하고 거기다가 노래도 하는 재주꾼인데 그가 쓰는 작시(作詩)는 시사적이고 풍자적인 것은 아니고 밝은 인생을 구가하는 것이다. 인생은 즐겁고 봄도 즐겁고 사랑은 아름답고 하늘도 곱다고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즐겨 하는 라메르(바다)나 시인의 녀도 그의 작품이다.

샤르르 트레네는 1913년 5월 18일 지중해에 면한 피레네 산맥에

가까운 나르본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마을의 공증인(公證人)이었다. 트레네는 열여섯 살 때 장식미술학교에 들어간다고 파리에 나왔지만 실은 파리고 외의 있는 영화 촬영소로 향했다. 얼마 안 가서 희망을 버리고 작사와 작곡면에 나아가게 되었다.

얼마 후 밀집 속의 침실이란 노래가 평판이 좋아져 인정을 받았다. 노래로 성공한 것은 포장마차였고 재기(才氣)가 넘쳐흐르는 그의 노래는 1936년 뮤직홀인 ABC에 그를 내세웠다. 이곳은 신인의 등용 무대였던 것이다.

공군에 들어가서도 놀기 좋아하는 그는 번번이 귀영(歸營)이 늦어져 별수 없이 영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는 이 속에서도 상송을 생산했다. 「나는 노래한다」, 「푸른 꽃」도 이때의 소산이다. 그 이듬해에 제대하고 콜롬비아의 전속이 된 트레네는 본격적인 가수 생활로 진출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2차 대전 때엔 그의 죽음을 신문은 보도했으나 트레네는 숨어 있었던 것이다. 파리가 독일군에 함락된 후에도 어두운 시민들의 마음을 위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안녕하십니까? 마담」, 「아무것도 없는 나는 노래한다」 등의 신작이 나온 것도 이때의 일이다.

하루는 독일군에게 가택수색을 당한 끝에 도망치다가 권총에 맞았다. 5개월 동안 병상에서 고통을 겪었고 1년 반을 절육거렸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완쾌한 1946년 2월 이전 전쟁도 끝나고 화려한 무대는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도 방문했다. 남미도 순방했다.

「시인의 녀」은 1951년도 작품이고 이듬해엔 디스크 대상을 탔다. 즐겁고 맑은 트레네의 노래는 파리의 재산이다.

#### ○에디트 피아프 (Edith Piaf)

에디트 피아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거센 물결 위에 휩쓸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산기(産氣)가 있어 자선(慈善)병원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도중 행길 한가운데에서 세상 구경을 했다. 1915년 12월 19일 추운 겨울이었다. 이런 일을 가지고 피아프의 운명이 기구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파란 많은 반생은 찬 길가에서 태어난 인생의 출발을 의미했는지도 모른다. 또는 운명의 신이 한 표본으로서 이 세상에 몰아넣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는 노르만디 출신의 광대, 어머니는 이탈리아인으로 가수였다. 가수라고는 하지만 길거리에서 노래하며 돈푼이나 동냥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다.

피아프가 세상 빛을 본 2개월 후 어머니는 어린 딸과 남편을 버리고 달아났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채우는 가난 때문이었다. 그래서 피아프는 외조모의 손으로 넘어갔다가 세 살 되던 해에 노르만디에 있는 친조모의 품으로 옮겨갔다.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1918년 11월 피아프는 갑자기 눈병을 앓고 1주일 뒤에는 실명하고 말았다. 할머니는 이 어린 손녀를 안고 신에게 기도했다. 1919년 8월 15일 기적이 일어나 피아프의 두 눈은 광명을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딸의 눈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피아프의 아버지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서커스 순업(巡業)에



데리고 다니게 되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곡예사의 딸로서 보는 것이란 그것뿐이었다. 피아프는 외로웠다. 노래를 부르며 고독을 잊으려고 했다. 어떤 날 딸의 노래를 들은 아버지는 기꺼워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목소리라

짐작해서이다.

열다섯에 접어들어 에디트는 아버지 곁을 떠나 파리로 갔다. 독립하고 싶어서이다. 가수가 되려고 무대를 찾았다. 하지만 누가 그를 위해 빈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람이 필요한 무대에서도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1934년 에디트 피아프의 나이 18세, 어떤 날 에프와르 광장에 가까운 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다. 이날 한 신사에게 끌려 카바레로 갔다. 방도 주고 노래를 하라는 것이다. 허수레한 옷, 광녀같이 흩어진 머리, 5척의 작은 키, 그러나 피아프는 파리의 인기를 살 수 있었다. 모리스 슈발리에와 장 콕토도 에디트의 노래를 들으러 왔다. 이 두 사람이 그녀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인 콕토는 그를 귀히 여겨 시를 써주었다. 가을 잎의 작사자인 작곡 프레벨이 써 준 ‘날 안아주오’가 성공했다. 피아프는 가수로서 순탄한 길을 걷는가 했으나 또 몹쓸 운명이 그를 희롱했다. 어떤 날 집에 돌아가 보니 자기 침대 위에 르프레란 사람의 시체가 덩굴고 있었던 것이다. 살인 혐의를 받아 피아프는 경찰에 끌려갔다.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 석방은 되었어도 시민들은 모두 의심을 했다. 무대에 나타나면 야유를 퍼부었다. 희망을 잃었다. 용기를 잃었다. 보람을 찾을 길이 없었다. 어떤 때는 자살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이런 날에 피아프를 위로해 준 사람은 시인 레이몽 아쑤였다. 당시 아직 무명이었던 아쑤는 피아프를 동정해 작사도 해 주고 격려도 해주었다. 여기서 피아프는 재기할 것을 약속했다. ‘나는 병사’, ‘파리 지중해’ 등의 걸작도 나오고 두 사람은 사랑도 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1944년 6월 파리의 물랑루즈에 출연하고 있을 때 신인 이브몽땅을 발견해서 한 사람의 훌륭한 가수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몽땅이 유명해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금이 가고 몽땅은 피아프의 사랑과 은공(恩功)을 모두 저버리고 여우(女優) 써몬느 씨노레와 결혼하고 말았다.

피아프는 약혼자였던 브르 무리스와 헤어지고 1952년 9월 20일 뉴욕에서 작곡 피일스란 상송 가수와 결혼했다. 피일스는 루씨엔느 보와이에의 남편이었으나 49년 이혼한 몸이었다.

그러나 56년 5월 그와도 헤어지고 말았다.

부단한 노력과 훈련 그리고 정신으로써 샹송과 더불어 살아온 에디트 피아프는 얼마 전부터 자작의 샹송이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 ○이브 몽땅 (Yves Montand)

전후 프랑스 샹송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별같이 많은 화제를 던지면서 성장해 온 가수도 드물 것이다.

영화 공포의 보수(報酬)에선 배우로서의 비중이 더 컸고 하층계급의 부랑아(浮浪兒) 연기에 특기가 있다.

이브 몽땅은 1921년 10월 13일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까운 고장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 어머니는 전형적인 피렌체의 미인이었다고 한다. 무쓰리니가 정권을 잡은 이듬해인 1923년 파시스트에 추방되어 그의 일가는 알프스 국경을 넘어 마르세유로 옮겨갔다. 한편 이들은 1926년 프랑스에 귀화했으며 몽땅의 아버지는 별다른 직업 없이 잡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몽땅도 소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국수공장에서 일을 했다. 형은 항구의 식당에서 급사(給仕)로, 큰 누이는 미용원을 개업했다.

이브 몽땅은 굶주린 배를 안고 국수상자를 나르는 중노동에 견디어 내지 못해서 누님의 미용원에서 일을 본 적도 있다. 1939년 그의 나이 열여덟 살 때 몽땅은 처음 샤르트 트레네의 노래를 듣고 가수가 될 것을 결심했다. 노래자랑에 출전해서 호평을 받았다. 젊음과 희망, 착실한 용모와 태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제2차대전이 일어났다. 가수로 출세해 보겠다는 욕망은 버릴 수 없었으나 생각 끝에 지중해 조선소의 직공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서민적인 자질을 직공들의 우정과 생활 속에서 발견했으며 현재도 그의 노래의 서민적인 터전은 여기서 몸에 배인 것이라 한다. 이 징용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노래를 계속했으며 여기서 몸이 폴리자 지방을 순회했다.

남부에서 성공하자 불현듯 파리로 나가고 싶은 욕심이 인 곳은 당연한 일이었다. 파리는 샹송의 고향이며 동경의 도시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아직 전쟁 중이다. 파리는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1944년 1월 기어이 파리로 갔다. 발판을 마련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피아프와의 역사는 이때부터 막을 열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1946년 마르셀르 까르네가 영화 밤의 문을 감독했을 때 주역에 이브 몽땅을 추천한 에디트 피아프가 그의 성공을 빌기 위해 2년간이나 술을 끊고 정성껏 후원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 영화에서 몽땅은 가을 잎을 노래했다. 이 노래가 세계적인 샹송으로 등장했다. 영화에선 실패한 몽땅이 샹송 가수로선 인기가 올라갔고 피아프와는 헤어져 버렸다. 1951년엔 에뜨와르 좌(座)에서 110회의 연속출연이란 기록을 기점으로 다시 움직일 수 없는 제1인자가 된 것이다. 이브 몽땅이 한창 명성을 날리던 1954년 경에 현부인인 시노레가 매일 그의 시중만 들고 있어서 영화의 창작 스케줄을 망쳐서 회사를 당황시킨 일도 있다고

—시노레는 배우였으니까……·지금도 배우이다. 1960년도의 아카데미 주연여우상을 탔다.

#### ○파타슈 (Patachou)

파리의 노동자로 알려진 메니르몽땅에서 태어난 파타슈, 그러나 생년월일은 알려져 있지 않다. 서민의 냄새도 나고 섹시한 맛도 있고 재기도 있는 파리의 중년 여인이다. 그녀가 출생한 메니르몽땅의 거리는 모리스 슈발리에와 에디트 피아프의 출생지로도 유명하다. 대체로 1918년생이 아닌가 추정되는 파타슈는 도자기를 굽는 아버지가 있었다. 소학교 밖에 다니지 못한 그가 악보출판상에 종사하면서 이름있는 작곡가나 가수들과 교제가 생겼다. 그 가운데서도 샤르트 트레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전 직후 몽마르트의 언덕 위에 과자 가게를 냈다. 상냥한 접대와 맛난 과자로 이 과자점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여기서 돈도 벌게 되어 이번엔 식당을 차렸다. 흰 블라우스와 푸른 스커트의 검소한 옷차림으로 카운터에 앉아 경기(景氣)를 돋구기 위해 노래도 불렀다. 처음엔 식당에 손님 없었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번창하는 날은 찾아 왔다.

농담과 술에 취해 저물어 가는 파타슈의 집엔 벵타이 조각이 수두룩하게 매일 밤 벽에 나붙게 된다고 하는데 파타슈가 노력하며 손님더러도 노래를 청해서 불음하면 가위로 싹둑 잘라서 벽에 걸어둔다는 것이다. 매일 밤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 벵타이를 잘리면서도 좋아한다. 이렇게 파타슈의 집이 성공한 것은 벵타이의 가위질과 파타슈 자신의 분장에 있다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흰 블라우스에 푸른 스커트의 간소하고도 청결한 복장이 손님들 마음에 꼭 들었다는 얘기다.

어느 영화감독에 소개되어 무대에 서게 되었다. 슈발리에도 후원해 주었다. 1950년 5월 슈발리에의 「A·B·C」에 출연하게 된 파타슈를 만장(萬場)의 청중에게 소개했다. 여기서 대성공을 거두고 그 이듬해엔 슈발리에와 같이 런던에도 건너갔다. 캐나다에서 남미, 그리고 이집트까지 두루 돌고 두 사람은 파리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파리의 신문들은 슈발리에와 파타슈의 사이를 떠들어댔다. 그가 파타슈에 보낸 자신의 사진에 이런 말이 쓰여있다고—

—그대의 남편이 아니며, 그대의 애인도 아니며, 그대의 벗도 아니다—

이 사진을 파타슈의 방에 걸어 놓고 있다니 알쏭달쏭한 얘기다. 한편 파타슈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뒤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맺어진 모리스 1950년— 이런 사실이 파타슈가 그의 남편과 헤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슈발리에와의 스캔들은 없는 것 같다.

나의 남자란 노래는 슈발리에와 얽힌 노래로 해석되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다.

#### ○이벳트 지로오 (Yvette Giraud)

다른 분야의 가수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샹송 가수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성이 중요하다. 누구를 닮았다는 것은 큰 모욕

이 되는 것이다. 음색, 창법, 태도, 의상 등에서도 남다른 개성들을 과시하고 있다.

샤르르 트레네의 「시인의 녀」을 노래해서 1952년의 디스크 대상을 탄 바 있는 이벳트 지로오는 「포르투갈의 4월」도 맨 처음 노래한 가수이다. 에디트 피아프에 이어 전후에 두각을 내민 여가수 중에선 연장자에 속한다.

에디트 피아프는 거리의 가수, 줄레에뜨 그레코는 쌍 제르팡 스타일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으나 이벳트 지로오는 평범한 프랑스의 중류계급의 주부 타입으로 생선처럼 피동피동한 신선미를 자랑하는 가정적인 가수라 하겠다.

1945년 5월이라고 하면 독일군이 항복한 달인데 이때까지 파리에서 속기사 겸 타이피스트로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회사가 레코드를 판매하고 있던 회사인만큼 지로오에게 전후 신인으로서의 진출의 호기가 왔다. 이 해 말에 파리에 진주(進駐)해 온 미군들 앞에서 노래했다. 이것이 그녀에게 있어선 처음 공중 앞에 나서는 기회였었다. 이 데뷔가 대성공이어서 4개월 후엔 큰 뮤직홀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로 라디오에서 노래를 했으나 미국, 남미, 캐나다,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화란(和蘭)[네덜란드], 영국, 북아프리카까지 원정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로오는 다른 여가수들보다 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의 걸작은 아디우.

#### ○자끄린느 후랑소아(Jacqueline Francos)

후랑소아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이름이 팔린 여가수이다.

1922년 1월 30일 출생. 데뷔한 것은 종전 직후인 1945년, 파리방송국의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우승한 때부터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끄린느 후랑소아는 무대에 필요한 가수라기보다는 레코드를 위한 가수라고 평한다. 무대에 서는 사람은 대개 제스처가 크다. 과장되는 때가 많은 것이다. 후랑소아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른다.

영화 「파리의 스캔들」의 뒷 노래도 블레로를 노래했을 때엔 별다른 화제를 일으키지는 못했으나 ‘봄은 찾아 왔는데’란 노래는 1948년의 디스크 대상을 탔다. 뿐만 아니라 영화 ‘파리의 아가씨’의 주제가와 이 영화에 삽입된 ‘포르투갈의 빨래하는 아가씨’는 크게 히트했으며 파리의 피부를 지녔다는 후랑소아의 위치도 뚜렷해진 것이다.

남편인 앙리 데게르도 유명한 샹송 가수이나 부인의 인기에 압도당하고 있다.

후랑소아의 노래를 처음엔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창 듣고 있노라면 은근한 매력에 끌린다. 그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도 그렇다고 한다. 마이크 앞에 우두커니 서서 노래한다고— 물론 전혀 표정이나 동작이 없는 것이 아니겠으나 전형적인 가수들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일 것이다. 오히려 목소리 위주의 그의 노래에 남다른 특징이 있다는 말로도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 ○줄리엣 그레코(Juliette Greco)

샹송 가수로서 가장 널리 한국에 알려진 사람이다.



사랑과 꿈이 화려하게 얽혀 즐거워야 할 청춘 시절을 전쟁 때문에 갖은 고생을 겪어 온 이 여가수는 어깨까지 뒤덮은 검은 머리와 목덜미마저 휘감은 검은 스웨터, 아랫도리는 남자의 바지, 거기다가 어두운 목소리—이것은 현실과 가수인 줄리엣 그레코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레코는 1927년(일설에는 1926년) 2월 7일 몽빠리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콜시카의 사법경찰이었다. 그는 다른 가수들처럼 노래를 배운 일도 없고 흥미를 가져 본 일도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학교에선 능성적이 꼴찌로 곧잘 벌을 서는 저능아에 가까운 소녀였다고 한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소학교에 서도 쫓겨났으며 몽상만을 즐기는 시절을 쫓았다.

얼마 후 무대의 재능이 있다고해서 그레코는 오페라 좌의 부속무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서도 얼마 안 가서 추방되었다. 전쟁이 시작된 1939년에 그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눈은 아름다웠으나 광대뼈가 나와 있는—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사나운 소녀였다. 독일군에게 가족들을 모두 잃고 1942년 12월 15세의 가냘픈 홀몸으로 파리로 나왔던 것이다.

거리에서 사권 그의 동무들도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미장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지를 걸치고 있었던 것은 양말을 살 도리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굶주린 배를 안고 허무한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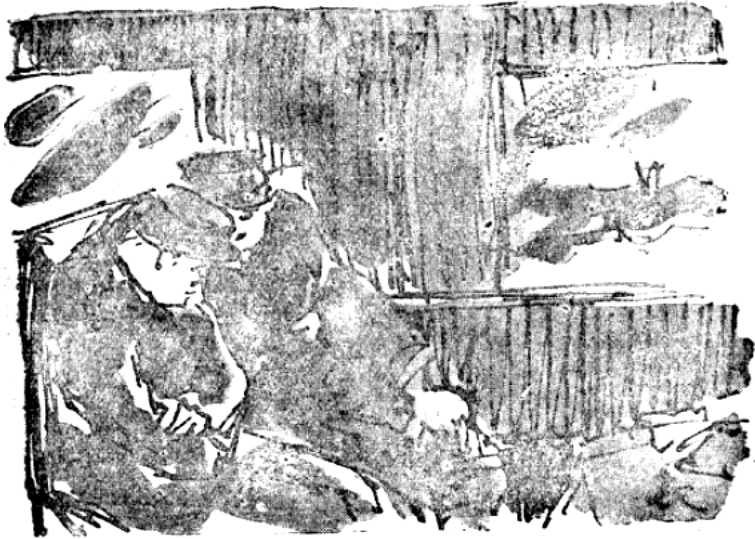
전쟁이 끝나자 샤르르와 까뮤의 작품에 빠지는 시기가 왔다. 또 이들과 만날 수도 있었다. 이 소녀군(群)에서 으뜸가는 것이 그레코였다.

1949년 그녀의 가슴을 크게 감동시켰던 노래 「가을 잎」이 그레코의 입을 열게 했다. 샤르르르는 「가을 잎」의 작곡가 꼬스마에게 그레코를 소개했고 50년엔 성공의 첫발을 디뎠다. 최근 천국의 뿌리 영화에 출연해 아프리카에서 로켓 중 졸도한 일도 있다고. ‘슬픔이여 안녕’에서 얼굴을 보여준 바도 있다.

한편 남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망통 시장이 1949년 이래 매년 선출하고 있는 오렌지상(賞)과 레몽상의 제11회 수상자가 60년 4월 8일 결정되었는데 여우상엔 작년의 지나 로로부리지다를 물리치고 그레코가 결정되었다.

오렌지상은 영화 기자에게 가장 협력적이었던 배우와 감독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필자(筆者)·HLKA 레코드 담당(擔當)>



〈창작(創作)〉

## 「상(像)」

오상원(吳尙源)

부산행 급행열차가 삼랑진을 지나 구포를 통과할 무렵부터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켓 호주머니 속에서 다시 한번 편지를 매만져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죽음과 같은 차가움을 손가락 끝에 느끼고 급히 포켓 속에서 손을 빼는 동시에 무겁게 한숨을 죽였다. 그의 눈앞에는 헬썩하게 여윌듯 정희의 모습이 그래도 떠오르는 것이었다. 정희는 지금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역구에서 싸늘히 식은 얼굴을 희미한 전등불 밑에 묻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희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를 명확히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전보를 친 자신을 후회하였다. 그리고 전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바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 뿐이었다. 이미 차는 부산에 시시각각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꾸 마음속으로 뒤뚱어오는 어두운 상념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전투에서 경상을 입고 입원가로 후 다시 귀대하여 × 전투 중대로 배치된 것이 바로 작년 봄 이맘때였다. 거기에서 그는 문 중위를 만났다. 골격이 굵고 늙은 키에 첫눈에도 인상이 깊은 것이 짙은 밑에 깊숙이 파묻힌 시선이 언제 보아도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전선대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문 중위의 그 인상적인 짙은 눈썹과 웃음 치는 시선에 마주치고 어깨를 소스라쳤다. (부탁하네), 하는 속 힘 있는 문 중위의 음성이 다시 그의 귓가에서 울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눈 앞에는 또 차창 밖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전선대만이 있었다.

도대체 나는 정희를 보자마자 그 첫마디를 뭐라고 시작해야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정희는 나를 보기가 무섭게 울음을 터트릴 것이다. 핏기 하나 없이 싸늘히 눈물에 젖어 버렸을 그 얼굴 그녀의 마음은 이미 슬픔에 지쳐 얼음장처럼 차가이 얼어붙었을 것이다. 그러한 그녀에게 나는 또 이 무슨 슬픈 사연을 전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 앞에 내 자태를 보여 그녀의 쓰라린 가슴에 다시 또 가슴 아픈 상처를 기억시키려 하는 것인가. 그는 아예 차가 정류장에 단자마자 출찰구를 피하여 딴 곳으로 빠져버릴 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문 중위가 전사한 것은 연천 북망 10기로 지점인(506) 고지서 였다. 중공군의 춘기공세로 진격하던 아군은 최전선 우단의 일각이 붕괴되자 필사적으로 침공해 오는 적군의 맹격을 막을 길 없이 다시 후퇴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으로 내닫는 협로, 이 협로를 끼고 도는 (506)고지, 적의 일대는 이 유일무이한 후퇴로를 차단키 위하여 우회하여 왔다. 아군은 불과 일개 중대, 이미 해는 떨어지고 어둠이 서서히 산기슭에서부터 안개처럼 서려가고 있었다. 긴장과 초조 속에 시간은 더욱 더디게 전 병사들의 가슴속에서 뛰고 있었다.

문 중위는 잠호 속에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이 점점 짙게 나리는 산 밑 협로를 끼고 패잔병들이 그칠 사이 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다. 이따금 뒤떨어진 탱크가 한 대, 두 대 무겁게 폭음을 죽이면서 패잔병들을 싣고 내려오는

것도 보였다. 한 시간, 두 시간. 어둠은 관목숲을 헤치고 나와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로 숨어 들어갔다. 이윽고 적막이 물밀 듯이 주위를 덮어갔다. 험로를 끼고 패잔병들의 동요는 어둠 속에서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문 중위는 시계를 보았다. 파란 초침이 연한 선을 그으며 파닥이는 속에 분침과 단침이 정각을 가리키고 있다.

“김소위”

“네?”

그는 어둠 속에서 문 중위의 속 힘있게 벨는 음성을 듣고 곧 대답하였다.

“수색병이 아직 안 돌아왔나?”

“네.”

잠시 또 잠호 속에 침묵이 흘렀다.

“연대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해.”

“네.”

하늘에는 무겁게 구름이 깔리고 봄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그때 멀리 전방에서 파란 신호탄이 세 줄 어둠을 뚫고 선명하게 선을 그으며 좌측으로 사라졌다. 수색병이 돌아왔습니다.

“음”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민가 전방까지 가보았습니다만 전연 적의 동정이 없습니다.”

“좋아.”

“김소위”

“네?”

그들은 우단에서 좌단 기슭까지 병사들의 잠호를 따라 빙 돌았다.

“내일 아침 공군의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 알겠나?”

“네”

어둠 속에서 긴장한 호흡만이 오고 갔다. 전방에서 또 신호탄이 파란 불꽃을 통기면서 터져 오르고 잠시 공중에서 흔들리다 흰 줄을 그으면서 낙하하였다. 긴장은 더욱 병사들의 눈방울 위에서 뛰고 있었다. 험로를 끼고 후퇴하는 아군의 대열은 그칠 사이 없이 어둠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차창 밖에도 어느덧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전등이 반짝하고 켜졌다.

그러나 얼마 후 그것은 조으는듯 희뿌연니 흐려가고 있었다.

“선생님?”

그는 문득 고개를 돌리고 음성난 쪽을 마주 보았다.

머리가 허여뜨레 벗겨진 늙은이었다.

“떡 고단해 보이시는데 제 앞으로 발을 뻗으시오.”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오시우?”

“네.”

“휴가로 오시나요?”

“아닙니다. 공무입니다.”

“제 아들놈도 군에 가 있어서 휴가온다는 군인들을 만나면 왜 그런지 반가워서 말입니다. 휴가가 아니시군요…….”

휴가……. 그는 다시금 문 중위에게로 마음이 끌려들어 갔다. 어느 날 오후 일선 고지에서였다. 문 중위는 편지를 쓰고 있다가 혼자 빙긋이 웃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김소위?”

그는 담배에 불을 부치다말고 고개를 들었다. 문 중위는 서로 시선이 마주치자 또 혼자 빙긋이 웃었다.

“내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는지 알아…….”

“…….”

“내 약혼자한테야. 그런데 회답이 올 때마다 불평이거든. 왜 당신은 밤낮 똑같은 말만 쓰느냐는 거지. 사실 나는 원래 둔해서 문장력이 없거든. 그래 이번 나 있는데 ××대학 영문과에 다니던 김 소위란 문학청년이 하나 배치되었는데 생김새도 가름한 게 멋들어진 문장가 같다고 했지. 그랬더니 약혼자가 김 소위의 성명과 경력같은 걸 정확히 적어서 이번 편지에 꼭 보내 달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냥 씩스럽게 웃었다. 문 중위는 약혼자의 이름이 김순이라고 했다. 부친상을 입고 휴가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장소는 그리 좋지 못한 곳이었지만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떡 아까운 여자라는 말을 말 끝머리마다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말을 통하여 문 중위가 그 여자와 약혼하게 된 동기도 대개 추측할 수 있었다. 그 후 회답이 왔을 때 문 중위는 자기 약혼자한테 그대로 소식을 전하였더니 떡 반가웠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문 중위는 자기 약혼자의 사진을 결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혼자 꺼내어 보다가도 누가 주위에 오면 곧 수첩을 접고 포켓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문 중위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문 중위가 포켓 속에서 사진을 꺼내는 기세만 보면 자리를 일부러 피해주곤 하였다.

장소는 그리 좋지 못하지만 우연히 만났다는 여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이미 자기 동료나 부하들

중에도 그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문 중위는 그 후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에게 자기 약혼자가 안부 전하더라 말을 자랑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뭔지 모르게 쑥스러워지는 것이었다.

문 중위가 전사하던 날 아침이었다. 문 중위는 잠호 속에서 자기 약혼자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다. 한참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연대본부에서 갑자기 급보가 온 것이다. 문 중위는 채 못 쓴 편지를 집어 넣고 곧 전대원에게 명령을 내렸다. 전투태세의 만전을 기해놓고 연대본부와의 연락이 잠시 중단될 때마다 그는 쓰다만 편지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달아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분대를 506 고지 좌단 언덕바지로 이동시켰다. 그 후 시시각각으로 전세는 악화하여갔다.

후퇴를 차단키 위한 적의 우회, 최후 전선부대가 후퇴할 수 있을 때까지 506 고지를 사수할 것, 정막은 새벽 3시를 기하여 어둠을 타고 506 고지로 쏟아져 왔다. 갑자기 좌우 사방에서 신호탄이 터지고 파란 불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순간 맹렬한 총성이 506 고지를 뒤흔들었다. 빗발치는 듯 내려 퍼붓는 총탄 속에 자주 비명이 처절한 음률을 남기면서 흩 뒤어갔다. 문 중위는 결코 잠호 속에서 상반신을 굽히지 않고 지휘하고 있었다. 기민하게 화력이 약화되는 쪽으로 분대원이 수시로 이동되었다. 드디어 놈들은 중화기의 원호를 받으면서 육박해오기 시작하였다. 수류탄전이 전개되었다. 뒤이어 작열하는 화염 속에 어둠이 찢기어 조각지며 있었다.

어둠이 빛을 잃고 사라질 무렵, 적의 공격이 갑자기 기세를 죽이기 시작하였다. 다음 순간 총성이 딱 끊어지자 몸서리 칠만치 무기미한 적막이 왔다. 그때 문 중위가 잠호 밑으로 털석 쓰러진 것이다. 그는 급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문 중위의 이마 위에서 구슬같은 땀방울이 똑똑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문 중위의 어깨죽지와 가슴팍 위에 끈적끈적하게 얼룩진 핏자국을 보았다. 언제 총에 맞았는지 누구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문 중위는 총에 맞고도 전연 동요함이 없이 최후까지 전투를 지휘하고 마지막 순간 쓰러진 것이었다.

급히 응급치료를 가하였다. 열 뜯 시선은 이미 주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침착한 어조로 김 소위를 불렀다. 문 중이는 자기의 포켓을 가리켰다. 그는 곧 단추를 끌어주었다. 문 중위는 자기의 손을 간신히 들어 포켓 속에 든 것을 꺼내었다.

“부탁하네.”

그것은 편지였다.

“쓰다만 편지지만 꼭 전해주기 바래. 끝을 맺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끝도 없이 이게 뭐냐고 불평 일거야. 그러나 그 불평스러운 회답이라도 펍 받고 싶어하더라고 전해주게.”

떠억떠억 말을 이어가면서도 문 중위는 예전처럼 빙그레 웃고 있었다.

“순이에게……

이름을 쓰고 보니 더 보고 싶군. 하는 수 없이 사진을 또 꺼내었지. 몇백 번 들여다보아도 싫지 않은 웃음이야. 웃는 얼굴도 좋지만 나는 순이가 잠들었을 때의 얼굴이 더 좋아. 잠든 얼굴을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으면 좋겠어. 또 요전과 똑 같은 이야기라고 성내지 말기 바래. 우리 집안 문제도 구애되지 말어. 결혼하고 우리 단들이 독립해 살면 되잖아.”

차창밖에는 어둠이 겹겹이 나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레일을 달리는 차륜의 규칙적인 고동만이 발밑에서 울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숨겨가던 문 중위의 심장이 고동과도 같았다. 그는 문 중위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싸늘히 식은 눈을 감겼다.

그리고 소지품을 전부 꺼내었다.

그 후 그는 문 중위 수첩 속에서 그의 약혼자라는 김순이의 사진을 보았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리 속에는 착잡한 혼동의 그늘이 얽히기 시작하였다.

실은 그녀가 김순이가 아니라 최정희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는 수첩을 펼치지 않았다. 소지품이 순이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편지만은 그 속에서 빼냈다. 끝을 맺지 못한 편지 그 편지를 송달해 준다는 것이 그녀에게 더 한층의 슬픈 충격을 줄 것만 같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자기의 이름을 속인 것일까. 그러나 곧 그는 이해할 수가 있었다. 문 중위의 말대로 그녀는 그리 좋지 못한 장소의 여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름을 바꾸어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미쳐가는 순간 그는 언젠가 문 중위가 편지를 쓰다 말고 자기 약혼자가 김 소위의 이름과 경력을 정확히 적어서 보내 달라고 하더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편지가 올 때마다 자기의 안부를 꼭꼭 묻고 전하더라는 말이 뒤미처 떠올랐다.

그녀는 곧 그를 알아차린 것이다.

그러나 그로서는 남의 약혼자에 대하여 흥미도 없었거니와 아니 흥미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름이 다르니 알 까닭도 없었다.

그는 위로의 편지라도 내볼까 생각하였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할수록 좀처럼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편지를 낸다는 것이 축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 생각하여 볼 때 그녀와 자기와의 과거는 어쨌든 약혼자가 죽은 그녀의 슬픈 심경을 동정은커녕 그대로 묵살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것 같기도 하였다. 더욱이 그녀는 추측컨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다행히 문 중위를 만났고 다시 새로운 길로 접어들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절망은 몇 걸음 앞에서 다시 그녀의 길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의 약혼자이었던 문 중위와 내가 생사를 같이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모르는 척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그는 자기가 그러므로서 그녀가 다시 타락의 길로 다시금 더듬어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을 때 가슴이 무엇에 억눌리는 것 같이 무거웠다.

그는 편지를 썼다. 그는 자기가 문 중위가 죽기 전 쓴 편지도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 도리어 그러한 최후의 편지를 전함으로써 생에 대한 진실한 의지를 부여할 수 있거나 않을까 하는 데서였다. 곧 회답이 왔다. 내용은 간단하였다. 펍 반갑다는 말과 모두가 운명이니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운명이란 말에 안다라인을 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기와 그녀 사이의 관계까지도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끝으로 그녀는 부산에 오늘 일이 있거든 전보를 쳐달라고 하였다.

그 후 그는 급히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는 전보를 쳤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몹시 망설였다. 그녀와 직접 만날 것을 생각하니 그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차창 밖에는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어 붙여 물었다. 그리고 무겁게 연기를 빼알았다. 그때 도어가 열리고 붉은 완장을 한 차장이 들어왔다. 최종 안내가 끝난 다음 나갔다. 잠자던 사람들도 스름스름 일어나서 내릴 차비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는 무겁게 다시금 담배 연기를 빼알았다.

플랫폼에 내려선 그는 수많은 여객들 속에 밀리면서 출찰구 쪽으로 걸어갔다. 긴 여정에 시달렸던 수많은 발자욱이 이제사 풀린 듯 성급히 흩어지는 속에서 그의 걸음걸이만은 무거웠다.

출찰구에 마중 나와 서성거리는 얼굴들, 그의 눈앞에는 여기저기 얼굴들에 겹쳐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자기를 찾고 있는 정희의 시선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문 중위가 전사한 지 벌써 한 달여. 그것은 곧 그녀의 슬픔과 눈물의 기록이었을 것이 아닌가. 침식을 잃고 매일 같이

호느껴 울어야 하였을 그녀,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무너져버린 수많은 상처의 흔적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토록 상냥스럽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는 빛을 잃고 매연(煤煙)에 그을린 유리알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을 것이다. 그는 어느덧 출찰구를 나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눈앞에 없었다. 그는 급히 주위를 둘러본 다음 그대로 역 구내를 걸어 나왔다. 그녀가 마중 나왔건 안 나왔건 그는 급히 이 장소를 빠져나가고 싶었다.

역 구내를 거의 빠져나와 아스팔트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힐끗 눈주었다. 술을 쓴 밑으로 짙은 화장이 얼핏 눈에 띄었다. 그는 잠시 동안 바로 곁이 가 벼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는 전신이 연덩어리처럼 땅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실망이 그의 눈앞을 가리웠다.

“편지를 드리죠.”

그는 자켓의 단추를 끌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축스러워요.”

그의 초조한 음성에 비하여 그녀의 음성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참 몇 해만이군요. 다시는 못 뵈울 것 같았는데…….”

“……………”

잠시 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갔다.

“부모님은…….”

그는 무엇이건 말을 꺼내야 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다. 그는 점점 바로 곁으로 육박해오는 침묵의 그늘이 무서웠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저는 저 혼자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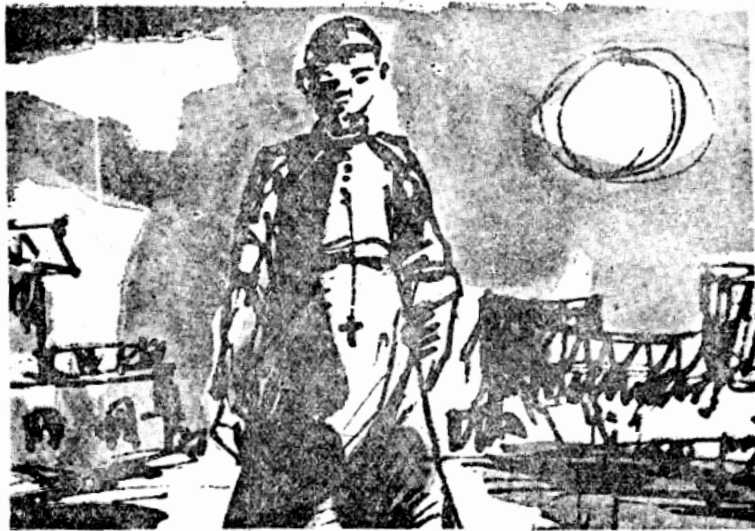
또 두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들은 그냥 걷고 있었다. 얼마 후 그녀는 혼자 말처럼 증얼거렸다.

“저는 다만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무엇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녀의 뒷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혼자 걸어가다 돌아섰다. 호미하게 던져 오는 가로등 밑에서 그녀는 흑 웃음을 죽이고 있었다. 짙은 화장이 그늘지면서 다시 흑 웃음 쳤다.

이미 그녀는 최정희도 김순이도 아니었다. (끝)

☆ ☆  
☆ ☆



〈창작(創作)〉

## 숙명(宿命)의 삶

임수일(林秀逸)

새벽이면 언제고 가슴속 싸늘히 슬픔과 비애가 스며들었다. 처음에서 끝까지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욕망 같은 데서 오는 것은 아니었다. 정말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는 자신의 두뇌의 세포 조직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 그런지 상이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기가 무섭게 전신을 간드러 떨며 입술을 가로 물었다. 그렇다고 상이는 “으악 으악 으악...” 축복, 저주, 어느 것을 받아야 할지 모를 어린 것의 울음, 얼마 전에 아내가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에 이기지 못해 마구 떨어진 비통한 신음소리, 서둘러대던 산파의 음성, 지레 겁을 먹고 주에게 그저 순산만을 기원하던 일, 자신이



그렇게 즐겨택한 과학도의 길, 그리고 예수교를 하나의 신조로 믿어 왔지만 그것도 손쉽게 내동댕이친 일이 아쉬워지는 데서 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 여자에게, 다달이 찾아오는 생리—더욱이 여자란 때에 따라 깜찍하고도 흥측한 팻닥수를 꺼림없이 짜내는 족속이란 것을 잊고 있었던 일이 원통히 여겨졌고 또한 이런 일로 인해 여태까지 차근차근 걸어온 자신의 꼬락서니가 너무나 허황하게만 여겨져서였다.

상이는 입술을 두세 번이나 가로 물었다 놓으며 눈을 사르르 감았다. 그리고 입속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 세상은 모순으로 둘둘 엉크러져 있는데…… 거기에 질식해진 나는 머리를 부둥켜 쥐고 어째서 몸부림을 계속하는가? 일체를 초월하고 또 무엇이든 무감각하게 대하고 심각해지는 자신을 억제하고 마구 터질듯한 울화를 꺾꺾 주먹질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되지 못할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 삶의 연장의 수백 년이 되어 제멋대로 뉘두리를 부리다가도 무엇이 남으며 또 그것이 뭐 어떻다고 이렇게 악을 쓰는가? 그리고 보면 그림자만도 못한 삶인데” 하고 상이는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치 말을 또록또록 입밖으로 떨어졌다. 상이의 혼잣말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감았던 눈을 떴다. 굵기야 괴로움이 사라지고 판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니었다.

거칠어지는 숨길 가슴팍을 치미는 울화 전신이 활활 타오르는 열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취한 행위였다.

휘어진 긴 숨길을 몰아쉬던 상이는 천정의 무늬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엄격히 말하면 나는 실로 허황한 길을 걸었지 영원하고 새롭고 신기한 일은 무엇일까? 어데있을까? 외국과학자들은 멀지 않아 달나라에 사람을 보낸다지? 그곳은 수면이 두 시간이면 족하다지, 수명도 연장 된다구, 열을 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천년 이천이 연장된다 그것이 무한에 비하면 어떻단 말인가? 사람이란 그대로 잠든 순간이 복된 일이고 또 죽는 것이 편하다고 단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삶을 꿀 수 없게 구조가 된 인간의 본바탕을 저주하는 일인데” 하고 상이는 급기야 이불을 머리 위로 뒤집어썼다. 잠시나마 어둠이 그리워졌고 그 어둠의 힘으로 번민을 잊어보자는 심사가 문득 뇌리에 파고들어 그런지도 모른다. 애처롭다기보다는 구슬픈 일이었다.

탐탐한 어둠 속에서 악을 쓰며 괴로움을 잊으려고 어거지를 썼지만 그러나 가슴팍을 저미는 아픔은 가시지 않았다.

“……뭐……달세계에선 수면이 두 시간이면 족하다니,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처리할 속셈인가 또 삶이 연장되는 그만치보다 더의 고통이 따를 게 철칙인데 정말 우스운 일이다. 그렇게 신비하던 월세계에 갈수록 고민과 비애는 늘어갈 뿐일 터이니까. 그건 인간이 겪는 공포, 불안, 죽음……이 어느 것 하나 오늘의 문명과학이 탈계한 것이 없으니까 만일 억지로 있다고 하면 형식이 얼마간 달라진 것 뿐이지, 그럼 나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보다 앞서 장본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인간을 처음 만든 창조자 일게다. 인간을 그토록 신비와 비애의 도가니 속에서 헤엄쳐 나올 수 없게 한데다 그나마도 무엇이 그렇게도 원수가 저서 서로가 이해와 믿음을 주지 않고 고달프게만 만든 그놈의 심보, 이 얼마나 심술 고약한 자의 소행이며 이보다 더 악된 자의 존재가 또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고 나는 지금에 와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심술궂은 존재가 누군지도 모른다. 진정 이걸 찍이나 다행한 일이다. 만일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면 그 존재는 배겨날 수가 없을 터이니까!” 상이는 잠시 입속말을 끊었다. 느닷없이 툭툭 튕겨 나오는 터무니 없는 생각. 극히 짧은 순간이 지났다. 상이는 어쩔 도리없이 드새여 나오는 입속말을 막을 수가 없다.

“정말 나는 그 악된자의 존재보다 더 몇 갑절 악되고 둔할지도 모른다. 그 중요에 쌓인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그놈의 테두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다만 아내와 어린 것을 증오할 뿐이니까……참말이지 나는 무엇 때문에 너그러움을 지니지 못하고 괴로워만 하는가? 그까지 이해 못 하면 어린 것을 죽여버리면 될 것을 그 애가 나의 핏줄기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자식이란 혈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끝내는 멸망을 가져올 존재이니까 그건 현대문명의 덕분으로 늘어만 가는 너절한 생명이 입증……” 상이가 생각을 돌린 때는 그 착잡한 고민을 쫓다가 문득 창살에 눈이 갔을 때였다. 어느덧 아침 햇살이 가볍게 창살을 스치고 있었다. 상이는 지금 아랫방에서 어린 것과 맞씨름을 하는 처를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협에서 아내의 마음을 읽어 주다가도 그만 문득 솟구치는 울화 그것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 며칠 전에 초조와 불안 속에서 신음한 일, 따지고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하자면 아내가 자신의 위치를 감싸고 복되게 하기 위협에서 생각을 짜냈고 그 감쪽한 패딱수를 눈치채고 끝내는 꼬집어 들추어낸 자신이나 아내의 그 상태가 모두 안되고 구슬프도록 망측한 것은 매일반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잊을 수는 없었다. 상이는 이런 번뇌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탁탁 막히는 숨길을 억지로 느끼며 처음부터의 환상을 하나 둘 뒤집었다.

상이가 미리와 결혼한 것은 작년 초가를 그러니까 구 개월 전이었다. 상이는 여자를 잘 몰랐다. 나이 삼십이 되도록 여자를 안다면 지금의 아내인 미리 뿐이었다. 원자학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숲을 굽는데서 나오는 연기를 잡아 냉각시켜 메탄을 알콜을 만들어 그것을 용도시켜 호리마랑을 만드는 일이었다. 상이는 열심이었다.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과학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신기한 물품이 이채를 띄우며 하나, 둘 쏘아져 나올수록 삶을 재미는 불꽃과 고통 그리고 정다우면서도 오붓하고 훈훈한 맛을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서글픔을 맛보지 못했다. 그만치 과학이란 놈이 우리에게 허수아비 안일을 가져다주는 척하면서 그 댓가로 알금알금 우리의 넋을 앗아가는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상이는 똑똑하고 약은 체는 했지만 우둔한 족속들이 달라니 뭐니 하고 막대한 인간의 피를 빨아 삼키며 추태를 부리는 그런 족속만을 동경했다. 흥측하고 더러운 수폭(水爆)보다 더욱 악질적인 세균, 영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 세균을 사용하면 여하한 상대국도 전멸되는 참으로 고약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어느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이 이상 과학의 발전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에 둔 적은 전혀 없었다. 그만치 상이는 삶의 본바탕이라던가 여자에 대한

문제엔 백지였다.

그러나 며칠 전 꺼림칙한 마음에서 어린 것의 피를 검사해 본 후부터는 그렇게 정열을 경주해 인간의 바탕을 파고들 수가 없었다. 상이가 그토록 즐기던 과학과 종교를 걷어치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어린것의 피 때문만은 아니었다. 징그럽도록 흉측한 게 인간이란 것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리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득하게 잊고 있다가, 얼마 전이야 새삼스럽게 인식한 일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었다. 상이가 파고드는 사색의 날개는 더욱 깊어갔다. 그러나 상이는 급기야 생각을 딱 끊고 후딱 몸을 일으켰다. 아내가 “여보 일어나세요 벌써 여덟시네요……” 하고 부엌에서 종알대며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상이는 아내의 음성만 들어도 울화가 치밀어 후다닥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침 식사를 몇 술 드는 등 마는 등 하고 집을 나올 때는 아홉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상이는 장춘단 공원으로 갔다. 조용히 다시 한번 더듬어 보자는 심사에서였다. 상이는 공원 깊숙이 오솔길을 따라서 들어갔다. 그리고 큰 소나무 가에 앉아 새벽부터의 생각을 이었다. 참말 어느 모로 달래봐도 마음은 시클시클해지며 아파 왔다. 그건 표준혈청을 간신히 구해가지고 아내를 속여가면서 혈액형을 낸 일이 불거지게 나타나서였다. 상이의 표준혈청은 O형이고 아내의 것은 B형이었다. 상이는 표준혈청 O·B를 유리관에다 놓고 어린것의 피를 떨어뜨렸다. 그순간 상이는 하마터면 으악 소리를 지를뻔했다. 어린것의 피는 O·B에 모두 +(응고)가 안됐다. 어린것의 혈액형은 AB형이었다. 어쩔것인가? 움직일수 없는 사실, 표준혈청·O와 B형에서는 결코 AB형이 태어날 수 없다는 현대의학이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는 그 사실을 인정치 않을 수도 없지만 아내가, “여보 당신도 미쳤어. 그럼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덟 달, 혹은 아홉 달만에 낳는 아이도 있지 않아요” 하고 파락파락 뛰던 일도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었다. 상이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아내가 냉큼냉큼 뛰는 것도 일리가 있었다. 팔 개월 전 결혼하던 첫날 밤이었다. 상이는 분명히 아내의 고통과 피를 보았다. 상이는 흐뭇하게 취했다. 하늘하늘하면서도 툭툭 튀기는 피부의 야릇한 탄력과 감촉, 고통에 가깝도록 황홀한 일순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자에게서 첫날밤 고통과 피를 본다는 그것만은 잊지 못할 일이었다. 본래 여자를 잘 모르는 그로선 고통과 피로 모든 것을 인정했고 또 흐뭇함에 취했다. 상이는 얼마나 이리저리 더듬었는지 일어설 땐 혼잣말로, “나도 공연히 자신을 매질하지 그까지 표준혈청이 뒤길래 난 분명히 이 눈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던가, 다시는 그 망측한 생각을 더듬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동댕이친 길을 다시 찾아가야지” 하고 뇌까린 후였다. 상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어린 것은 잠이 들어 있었다. 진정 모를 일이었다. 어린 것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잠잠해지던 생각은 사라지고 분노와 울화만이 앞을 탁탁 가로막았다. 그리고 못마땅한 얼굴로 움츠리고 앉아 있는 아내의 꼬락서니가 더욱 울화에 불질을 해 주는 것이었다. 얼마간의 침울한 고요가 흘렀다. 상이는 또 참을 수 없는 울화가 뇌리에 떠올라 그만 불쑥,

“여보 이리와. 이젠 더 말을 안 할 터이니가 솔직히 말을 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이해한다지 않았어, 이젠 진심이야 여보 알겠어, 이제 또 거짓을 꾸미면 난 책임을 안 질 테니까” 상이는 통명스럽게 쏘아붙이며 의자에 아무렇게나 주저 앉았다.

“당신도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어요 전 그런 망측한 일을 한 기억이 없어요” 하고 아내는 그제야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언성은 초조와 불안이 한테 엉켜 조용히 떨고 있었다.

“뭐라고 그래도 흘랑 까놓지 못해, 이것 봐 아직 늦지 않으니 뒤집어 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도 그 순간을 지나서 멀리서 바라보면 모두 우스꽝스러운 일이란 것을 알지 않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끔찍이만 빨리고 급급하는거야” 상이는 약간 말을 느꾸었다.

그러나 미리는 끝내 고집을 풀지 않았다. 그저 하나에서 열까지 자신을 보려는 데서만 급급했다. 상이는 이젠 미칠 것 같았다. 아내가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만치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만 믿어졌다. 잠시 무서운 고요가 또 찾아왔다. 상이는 그 이상 아내를 쏘아볼 수가 없었던지 “음” 하는 신음을 토하며 책상 위에 머리를 비볐다. 아내의 말속에서 살포시 여음을 던져주는 데서 오는 괴상한 느낌, 어딘지 모르게 의심을 가져다주는 그 표정을 어떠한 그렇게 재빨리 받아드려 살살 요모조모를 헤치는 아내의 마음 그 밑바닥을 파고드는 자신의 머리의 뒹뒹이가 장하다기보다 징그러워만 저서 그런지도 모른다. 상이는 껍이나 오랫동안 마음의 매질을 하다 다시금 버럭 소리와 함께 머리를 쳐든 것은 아내가, “여보 당신은 정말 너무 심해요. 벌써 싫어져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생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이젠 그만두세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하며 서럽게 울 때였다.

상이는 아내가 가엾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뭐, 어떻다고……뻔뻔스럽고 이 매정스러운 계집 같으니, 뭘 잘했다구 종알대긴……이것 봐 내가 뭘 때문에 당신의 피와 어린것의 피를 뽑아 갔었는지 알아! 분명히 어린애 내 자식이 아냐. 당신은 B형이고 난 O형이야 알겠어!

O·B형에선 AB형이 생겨날 수가 없어, 이걸 현대의학이 입증하는 거야, 그래도 끝내 우길 속셈이야, 어서 속 시원히 말을 해, 어떤 놈의 자식인가를……” 하고 상이는 다시금 책상 위에 얼굴을 던지며 와르르 떨어졌다. 분함에서는 아니었다. 급기야 아내가 뱉어버린 말이 무서웠다. 미리는 말이 없었다. 그저 새파라니 질려 가지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한채 멍하니 창을 바라볼 뿐이었다. 상이는 감치지 않았다. 그저 감겨진 눈을 지리 누른 채 연신 신음 소리만 토했다. 당황하는 아내의 꼬락서니 그것만은 차마 볼 수가 없어 그런지도 모른다. 짧은, 실로 짧은 일순이 지났다. 상이는 조금 전보다 더 공포에 떨었다. 아내의 입에서 떨어질 말, 그것만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고 괴로움 속에서 거듭 다짐을 받으면서도 끝내는 들으려고만 하는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이 흉측하게만 여겨졌다. 흥분과 저주로 꽉찬 얼마간이 또 지났다. 상이는 마침내 자기를 망치고야 마는 정말 어떻게 다룰 수 없는 신기하고도 끔찍한 마음의 움직임, 그것만은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 허겁지겁 구슬픈 일이었다. 상이는 몹시 분노가 짓든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어서 말을 하라지 않아, 이해한다니까……” 하고, 그러나 미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고양이 앞에 쥐 모양 꼼짝도 않고 거치른 숨길만을 내쉬며 입을 깨물고 있었다. 얼마 동안이 지났을까 상이는 그만 더 참을 수가 없었던지 벌떡 일어서며,

“어서 말을 못해……” 하고 아내의 머리채를 와락 휘감아 쥐었다. 미리는 그제야 상이의 손목을 잡으며,

“네, 그렇게 원하신다면 말을 하겠어요 이걸 놓아요” 하고 “휘유……” 한 숨을 몰아 쉬었다.

“……………”

상이는 아내의 말에 그만 머리가 아찔해져서 묵묵히 굳어진 행동으로 잡았던 머리채를 놓았다. 그리고 눈알만을 곤두세웠다. 미리는 살포시 머리를 숙인 그 대로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저두 이미 각오는 했었어요. 그리고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그 비밀이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랬어요. 한 번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결혼 전에 한두 번 미친개한테 물리었어요……그리고 결혼 날 은근히 월경이 있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이지 그때의 저는 공포와 두려움에 지쳐 죽고만 싶었고 또 후회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때 마침 쾌락수가 났어요. 그건 소변을 보는 척하고……그곳을 약간……저……첫날밤 고통과 피를 보인 것 말이에요……” 하고 미리는 말끝을 흐려놓은 것이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어떻든 대담한 말이었다. 현대의학이 입증하는 데서 그만 손을 들고 될 대로 되라는 심사에서였는지도 모른다. 상이는 분에 못 이겨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아내의 일보다 인간에게 이바지하는 바 큰 혈액형이지만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지금엔 저주스러운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숨 가뿐 일순이 지났다. 상이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듯 전신에 핏대를 세우고 왈각 아내의 앞으로 다가서며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리고 “우둔한 계집 같으니 뭐라고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하랬어!” 하고 후딱 돌아서 뒷방으로 올라갔다. 미리는 그 순간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러지며 심하게 어깨를 흔들었다. 기나긴 시간이 흘렀다. 죄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에 지쳐 울어댈 기력이 몽땅 빠졌는지 이제 미리는 울지 않았다. 상이는 이 기나긴 시간 미쳐 지는듯한 착각을 몇 번이나 일으켰다. 어제가 옛날같이 늘어만 가는 인간의 쾌락수, 꺼림칙한 예감에서 꼬치꼬치 파고들어 아내의 밑바닥을 홀랑 뒤집어 놓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곳에 일부로 상처까지 내가며 발악을 한 아내의 그 징글맞게 끔찍한 생각이 어디서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뺨이 나갈 것인지 생각이 어디서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뺨이 나갈 것인지 생각만 해도 전신에 오싹 소름이 돋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래도 좀 이해할 수가 있었다. 상이의 머리엔 또 하나의 원망스런 환상이 나타났다. 인간에게 기여해 주는 바가 큰 표준혈청의 가치가 고맙게 여겨지기는커녕 끝없이 저주스럽게만 여겨졌다. 알맹이 없는 병치료 보다는 인간의 본바탕을 어느 만치라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약이 그렇게 그리워질 수가 없었다. 상이는 참기 힘든 번민 속에서도 이런 일을 골똘히 더듬은 탓인지, “내가 백 번 천 번 잘했지 그놈의 과학과 담을 쌓은 것을, 그러나 교회를 떠나 버린 건 생각할 문제가 아냐——” 하고 너까리기도 했다. 또 펴이나 괴로운 긴 시간이 흘렀다. 상이는 한꺼번에 몰아치는 고민에 지쳐 이제 더 더듬을 수가 없었다. 그 래 그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어리석은 억지였다. 눈을 붙이려는 그만치 아내가 한두 번 있었다는 망측한 꼬락서니를 마치 목격하는 듯한 더러운 환상만이 휘딱휘딱 나타났다. 어떤 놈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그놈에게도 자기에게 배풀 어주던 절차와 꼭 같은 수속을 받았겠지 하니 더욱 숨길이 거칠어지고 눈알만이 휘딱 뒤집혀졌다. 그러니 상이로선 잔잔한 마음을 지날 수는 없었다. 상이가 그래도 마음의 거센 고통을 잠시나마 살짝 덮은 것은 수면제를 손에든 후였다. 그는 모든 시름을 잊기 위해 잠들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상이는 끝내 약을 들지는 않았다. 생각 같아선 잠시나마 참으로 복된 무아 상태로 이끌어 주는 그 약의 효과가 기특하게 여겨지긴 했지만 그러나 잠이

깨어난 다음에 오는 어쩔 수 없는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그 존재에게 매혹되는 것만 같아 급기야 싫어졌는지도 몰랐다. 상이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아직 잠은 오지 않았다. 파고들수록 모호해지는 신비함에 굴복하기에 급급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사흘이 지났다. 상이는 이 이상 변민을 지닌 채 흐리터분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다급히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몸뚱아리가 똑딱 사그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떤 단정도 내리지 못했다. 어린것의 존재가 그토록 갈피를 잡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또 하루가 지났다. 아침이었다. 상이는 며칠 동안 변변한 수면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날 역시 일찌감치 일어나 책상 위에 놓여진 아내의 성경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제부터 생긴 새로운 습성이었다. 상이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별경게 얼굴을 붉히며 외락미리의 성경책을 집기가 무섭게 아내의 머리맡에 던지는 것이었다. 그 순간 미리는 훌쩍 일어나 앉으며, “당신은 정말, —내가 얼마나 사정을 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데 까지를 다 하지 않았어요, 너무해요, 욕심이 지나치단 말예요, 이제 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어느 때고 주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나의 사죄는 물론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불러 주기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격책이 어떻게 내동댕이 치세요 ……” 하고 미리는 오랜만에 대드는 것이었다. “흥! 뭣이 어떻다구, 네가 주체님께 기도 올린다구, 이것 봐 그럼 우스운 이야기는 그만둬—” 하고 상이는 코까지 통졌다. 상이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조금 잠잠해지는 교회에 대한 증오가 다시금 솟구쳐 올랐다. 더군다나 그리 열열할 수가 없는 그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주여! 나에게 만복을 주옵소서……” 자기만을 위하는 아내, 죄악을 범하고도 거룩하다는 주(主) 앞에 나서는 염치없고 뻔뻔한 아내가 싫어졌다. 상이는 종교란 그 자체가 인간에게 끼치는 플러스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상이는 이를 전부터 다시금 종교에 대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몰아치는 고민을 덜게 하기 위해선 뭐니 뭐니 해도 종교의 길만이 있을 뿐이라고 믿어져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망측스러운 아내의 지난 일을 돌이키면 마음은 변덕스러워만 졌다. 정말이지 이젠 전과같이 종교 자체를 무턱대고 따르고 싶지는 않았다. 상이는 종교와 도구미(교리(敎理))가 믿음의 의식을 격식화시켜놓고 생활의 구속을 주는 그런 죄악을 종교가 지니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게끔 되었다. 더욱이 종교 자체가 스스로 범하는 죄악—너무나 가혹한 예수—인간의 역사 위에 사랑과 구원을 삼십여 년이나 수놓은 예수—그의 공로가 인간에게 무엇을 실증해 주었으며

또한 이천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와 같은 존재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적을 목격치 못하고야 어찌 다시없는 생을 그에게 사랑과 구원—인간의 생애와는 엄청난 거리에 있는 그 길을 하나에서 열까지 믿어야만 한다는 그 자체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믿어져서였는지도 모른다. 얼마쯤 뻗을까, 미리의 손에는 어چه와도 같이 성경이 쥐어져 있었다. 실상 미리는 지독하게 들볶이면서도 새벽 기도에까지 빠진 일이 없었다. 상이는 할 말이 없었다. 며칠 전부터 피워보기 시작한 담배에 불을 댔다. 그리고 피워 문 담배의 자연이 소용돌이치며 하늘하늘 피어오르는 것만 물끄러미 바라 보았다. 마침 이때, 미리는 나직이 혼잣말처럼 소곤했다.

“여보 사람이란 실수가 있는거예요, 기분이 나쁘지만 요즘의 나의 낮은 당신에게만 가 있어요, 하나님과 당신에게 사죄만을 비니까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고 또 빌지를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다시 교회로 돌아가 주세요” 하고 나직이 그러나 차근차근 말의 마디마디에 힘을 주는 것이었다.

“흥! 교회라고 가고 싶은 사람이나 실컷 다니지 뭣 때문에 나가지 유혹을 해” 하고 상이는 또 율화가 솟구쳤는지 무뚝뚝한 말로 투덜대는 것이었다. “그럼 새벽기도엔 혼자 가겠어요, 그러나 아침 예배엔 같이 나가도록 힘주세요” 하고 미리는 황급히 일어섰다. 미리는 그 이상 머뭇거리다간 벼락소리를 들을 게 뻔한 일어서서 그토록 성급히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요즘엔 어느 날이고 모두 그랬지만 유달리 일요일 아침엔 참을 수 없는 고민과 허쳤함이 찾아왔다. 상이는 한참 동안 아내의 추악한 발자취를 더듬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문득 십여 년 전에 본 어느 외국 소설의 스토리의 실마리를 붙잡았다. 그 소설의 스토리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미모의 여인은 애인이 신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단념을 못하고 그를 사모하며 사랑을 애걸한다. 그렇지만 일단 신부가 된 그는 그녀의 애걸을 끝내 물리친다. 그래도 그녀는 일편단심 그를 쫓아다녔다. 어느 겨울날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날이었다. 그녀는 신부가 공부할 하기 위해 산중에 토막을 치고 들어간 곳을 찾아갔다. 그녀가 손수 마차를 몰아 신부의 토막에 다다른 것은 어둠이 무거워진 후였다. 그녀는 불빛이 새어 나는 문을 두드리며 나직이 말을 떨어쳤다. 잠시 초조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신부는 전의 애인임을 알고 문을 열지 않았다. 딱한 일이었다. 그녀는 애걸과 버럭 화도 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저 어떤 반응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라는 짜늘한 말이 문틈으로

새여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되돌아 갈 수는 없었다. 이번만은 기어 이 그를 유혹하리라 그리고 마음껏 사랑을 하리라—다시금 마음의 다짐을 받으며, “저 이것 좀 보세요, 신부의 직책이 사람을 얼어 죽이는 거예요? 빨리 문을 열어 주세요” 하고 연신 애걸을 했다. 그러나 아직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짧은 얼마간이 지났다. 그녀가 발을 동동 굴리며 사, 오차레나 더 애걸을 한 뒤에야 문이 열렸다. 신부는 사람을 얼어 죽게 할 수는 없다고 단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는 길로 침대에 풀썩 드러누우며 배가 아프다고 죽는 흉내를 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서둘러 대는 것이었다. 그녀는 신부의 손이 혼흔한 피부에 살금살금 스치면 그도 인간이 이상야릇한 감촉이 스며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신부는 목석인양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 배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신부는 심각한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그녀의 뺨엔 살결에 손을 댈 수도 안 댈 수도 없었다. 미칠듯한 얼마간이 지났다. 신부는 급기야 어떤 결심을 했던지 그만 휘황하니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도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 아픔이 심했다. 신부는 손수건으로 피를 막고 그제야 방에 돌아와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픔으로 짜릿하게 스며들 흥분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아침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는 판 곳으로 시집을 갔다. 물론 산중 토막에서 있었던 신부의 행위는 삼시간에 퍼졌다. 사람마다 신과 다름없는 신부라고 그에게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 세월은 흘렀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고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보였다. 신부도 환갑이 지났다. 어느 날의 아침이었다. 신부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십육, 칠 세의 예쁜 소녀를 데리고 노파가 찾아 온 것이다. 노파는 소녀의 아픈 배가 좀처럼 낫지가 않으니 신부님의 손의 혜택을 받아야겠다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 마을에선 신부의 손만 가면 아픈 곳이 낫는다고 믿었다.> 신부는 잠시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노파에게 저녁에 소녀만 보내라고 했다. 저녁 때였다. 예쁜 소녀는 신부를 찾아 왔다. 시간은 흘렀다. 망측한 밤은 무거워졌다. 소녀가 신부의 방을 나설 땐 이미 동이 트인 후였다. 신부는 소녀가 나간 후 곧 평복으로 갈아입고 남몰래 성당을 빠져나갔다. 신부는 지금 수십 전의 애인이었던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돌연 신부의 방문을 받은 그녀는 “어머나 신부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하고 황송해 어쩔줄을 몰랐다. “아니 그렇게 황송해할 것까지는 없고 나더러 신부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렇다고 놀랄 것은 없오 내 말을 들어보면 알 터이니까, 이것 봐요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할 말이 있어서……그대는 날 존경할 아무런 이유도 없거니와 내가 존경받을 가치도 없고 알겠어요? 내 말을 말하자면 당신이야말로 말로 나로부터 존경 받아야 할 사람이요, 그것은 당신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할 일을 다하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저렇게 귀여운 아들 딸들을—” 하고 신부는 그녀가 그토록 붙잡을 수가 없었지만 그냥 뿌리치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상이는 그 신부와 그녀, 그리고 예쁜 소녀의 환상만을 찾아 얼마나 해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새벽 기도에서 돌아와 조반상을 들고 들어올 때야 환상의 꼬리를 뺐었다. 상이는 억지로 일어났다. 잠시 후 조반이 끝났다. 상이는 수저를 놓는 그 길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미리 더러 곧 오라고 했다. 미리는 또 교회에 나갈 시간이라고 서두르며 부엌에서 “네!” 하고 대답했다. 상이는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불끈 주먹에 힘을 주었다. 상이는 화가 날대로 났다. 세삼스럽게 생각해낸 외국소설의 스토리가 그렇게 화를 내주는지도 몰랐다. 미리는 아직 부엌에서 들어 오지 않았다. “이거 뭘 하는거야 어서 들어오지 못해,” 상이는 잡쳐댔다. 그리고 곧 말을 이어, “이거 잠잠고 못난 척하니까—어서 들어와 오늘은 어떤 판단을 내릴 터이니까!”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보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 남이 듣지 않아요” 하고 미리는 태연히 지껄이며 그제야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울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상이는 “오늘은 교회에 못 가! 어떤 결정을 짓고 가던지 해!” 하고 아주 험상궂게 말했다. 그때였다. 아내 미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정말 옹졸해요 저의 죄와 교회와는 다르지 않아요. 이제 저도 더할 말이 없어요” 잠시 착잡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미리는 무언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렀다. “저도 언젠가는 당신한테 버림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서 말씀하세요. 죄지은 사람의 여생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저에겐 그럴수록 더욱 교회엘 나가게 해 주셔야지요. 오늘은 목사님이 일찍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이는 목사라는 말에 더 화가 솟구쳤다. “흥, 그래 목사가 나보다 더 중하군, 교회 꼴도 말이 아니지 당신 같은 걸 일까지 시키니……참!”

“여보 미쳤오, 뭇 때문에 교회와 목사까지 욕을 하세요. 죄받을 소린 그만 두세요”

“뭣이 어떻다고 내가 죄를 받아? 참 우스워서, 만일 죄를 받는다면 주를 제멋대로 팔아먹고 사는 목사나 당신 따위 족속들 일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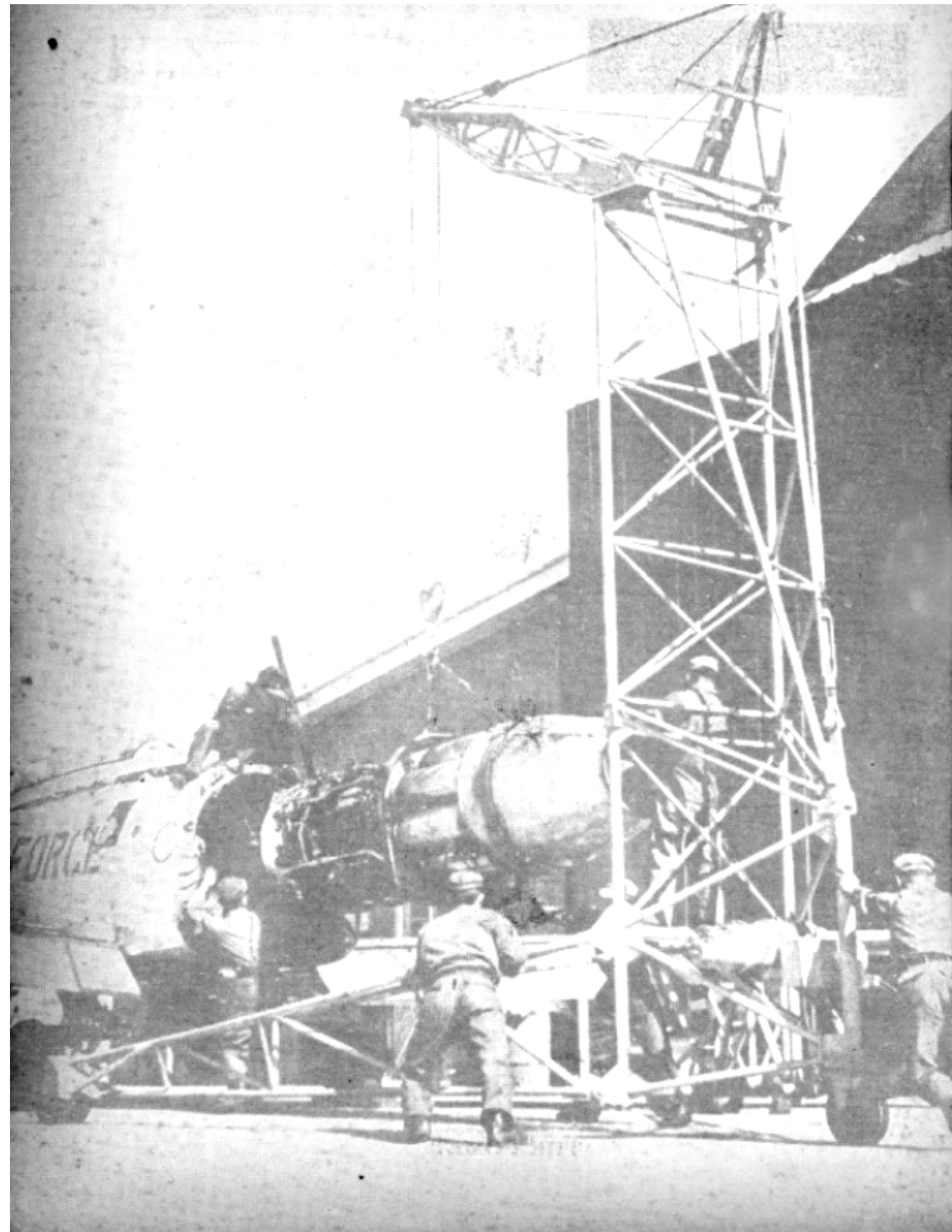
“……………”

“왜 말이 없어, 내 말이 틀린단 말야 순수한 인간 그대로 살아 그것이 어째서 나쁘냐 말야 응! 말을 해봐…”

상이는 “취우” 한숨을 몰아쉬고 옷을 입었다. 그리고 막 밖으로 나가려는 찰라, 미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뭣 때문에 당신은 억지만을 쓰려고 해요, 내 죄가 당신을 괴롭힌다는 것은 나도 괴로워요, 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나 하나로 인해 장구한 시간 위에 우리의 조상들이 세우는 신념의 터전 즉 오늘의 터전을 파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쁘면 제가 나쁘고, 죄가 많지 왜 딴 곳에... 게다가 당신은 무서운 고독을 느끼면서도 이따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그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아녜요, 과건 과거구 오늘은 오늘예요, 뚜렷한 사실은 내가 당신 옆에서 애원하고 있다는 이 순간이 어찌면 우리는 지금 터무니없는 낭비만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매일 교회에 가는 것도 당신과 나 때문이에요, 어서 마음을 푸세요, 그리고 교회로 나가주세요.” 하고 미리는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서 있었다. 상이는 말을 잃었다. 아니 모든 번뇌를 잃었다. “어찌면 우리는 지금 터무니없는 낭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오늘은 분명 오늘인 것이다.” 그렇다. 자기는 아내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제 아내와 무슨 단판을 짓는단 말인가? 설사 단판을 짓는다고 해도 자기는 더 아쉽고 괴로움 속에서 분노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삶의 삶 그것이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때 미리가 또 입을 열었다, “그만큼 괴로워 하세요 제가 보기 딱해요, 설혹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이예요, 자신의 시간을 가지세요, 교회에 가는 것도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위한 것 뿐예요, 그 어떤 인물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니며 허영심에서 우러나는 것도 결코 아니예요, 그리고 용서해주세요” 미리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이때 옆방에서 어린애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도 미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린애는 더 큰소리로 울고 있었다. 상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환상을 보는 순간이었다. 수 분이 지났다. 상이는 완전히 어떤 결정을 마음속으로 맺고 있었다. 급기야 아래층으로 내려간 상이는 우는 어린 것을 안고 일어섰다. 신기하게도 어린 것은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병긋병긋 웃는 것이 아닌가. — 어느새 옆에 와 서있던 아내 미리의 입가에도 가는 환희의 미소가 떠올랐다.

상이는 어린 것이 밟지 않았다. 웃는 어린 것을 아내에게 주고 부지런히 집을 나왔다. 플라타너스가 우거진 수의대 앞길을 지나 며칠을 열지 않았던 연구실에 잠깐 들러 그는 다시 걸었다. “살을 위해서... 내가 나를 기만하고 우매한 것으로 끝장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끝내는 고독해지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과학이라 하지만 그 길을 우둔하나마 나는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의 길도 이것이 딱하도록 어리석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길이다. 나는 어디까지나 우매한 인간이니까—” 상이는 이렇게 뇌이고 나서야 연구실 문을 열었던 것이다. 잠시 일의 절차를 마친 상이는 그토록 걸음을 재촉하며 대학거리로 나설 수가 없었다. 아마 교회 시간에 늦을까 하는 생각에 서였는지도 모른다.





코메트

發行處·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中領 朱貞鎬  
印刷處·空軍教材廠  
印刷人·空軍大領 金石桓

코메트

第46號

4293年12月25日

印刷

4293年12月30日

發行



THE COMET

기

공군6469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